

經濟危機에 따른 貧困水準 및
所得不平等 變化와 政策方向

朴讚用

金振郁

金泰完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1997년 11월 경제위기이후 韓國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갑작스러운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家族解體, 결식아동의 증가, 아동유기, 노숙자 증대 등 사회 전체적으로 힘에 겨운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직자 대부사업 등 社會安全網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과 수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실직가구의 생활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사회각계에서는 政府政策의 효율과 적절성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經濟危機이후 저소득층의 변화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여러 貧困指標 및 所得 不平等指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변화상태와 소득불평등 상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층가구의 거주지역별, 가구주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특성별 분석을 통하여 低所得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정부기관, 각종 연구소, 개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고, 여러 방법으로 測定되고 分析되어졌던 각종 빈곤통계와 소득불평등 지표 등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빈곤분석에 있어 통일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제는 과거

자료만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만을 분석하는데서 벗어나, 貧困豫測이 가능한 빈곤 Monitoring 체제를 구축하여, 貧困率과 所得不平等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豫測이 가능토록 하는데 본 연구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 Monitoring 시스템을 통해 현재의 빈곤현황 및 발생가능한 상황을 미리 추정해 봄으로써, 政府政策 수립시 이를 세밀한 대 상별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찬용 사회부조·복지정책 팀장의 책임 하에 김진욱 건국대 교수, 김태완 주임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원의 김미곤 부연구위원과 이견직 책임연구원이 주신 助言과 協助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과정에 들여진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의 한계는 전적으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社會福祉 政策 및 서비스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貧困問題와 所得分配問題에 관심있는 사회정책학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본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3
第1章 序 論	27
第1節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27
第2節 研究內容	28
第3節 期待效果	29
第2章 經濟危機의 現況	30
第1節 構造調整과 失業	30
第2節 家口所得·支出의 變化	35
第3章 貧困計測과 變化要因分析	37
第1節 計測方法	37
第2節 貧困計測	50
第3節 家口主 特性別 貧困水準	77
第4節 經濟危機 前後 貧困要因 分析	160
第4章 所得不平等度 計測과 變化要因分析	165
第1節 計測方法	165
第2節 所得不平等度 計測	173

第3節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分析	183
第5章 貧困緩和 및 所得不平等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187
第1節 要約	187
第2節 政策課題	188
參考文獻	193
附 錄	197

表 目 次

〈表 2- 1〉	中小製造業 雇傭動向	32
〈表 2- 2〉	政府의 構造調整 現況	33
〈表 2- 3〉	失業率 推移	34
〈表 2- 4〉	5分位 勤勞者 家口所得과 前半期 對比 所得增減 推移	36
〈表 3- 1〉	所得資料 構成項目	38
〈表 3- 2〉	支出構成項目	39
〈表 3- 3〉	年度別 都市地域 最低生計費	50
〈表 3- 4〉	所得-貧困率	51
〈表 3- 5〉	臨時·日傭職 勤勞者 및 無職家口 現況	53
〈表 3- 6〉	支出-貧困率	55
〈表 3- 7〉	所得-貧困갭 比率	59
〈表 3- 8〉	支出-貧困갭 比率	60
〈表 3- 9〉	所得-Sen指數	62
〈表 3-10〉	Sen指數 變化 要因分析	63
〈表 3-11〉	貧困層의 所得 Gini 係數	64
〈表 3-12〉	貧困層의 支出 Gini 係數	64
〈表 3-13〉	支出-Sen指數(Sen index)	66
〈表 3-14〉	所得-FGT指數($\alpha=2$)	67
〈表 3-15〉	支出-FGT指數($\alpha=2$)	68
〈表 3-16〉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	78
〈表 3-17〉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79
〈表 3-18〉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80

〈表 3-19〉	家口主 年齡別 貧困갇 比率	82
〈表 3-20〉	家口主 年齡別 貧困갇 比率(勤勞者 家口)	83
〈表 3-21〉	家口主 年齡別 貧困갇 比率(非勤勞者 家口)	83
〈表 3-22〉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	85
〈表 3-23〉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86
〈表 3-24〉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87
〈表 3-25〉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102
〈表 3-26〉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02
〈表 3-27〉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03
〈表 3-28〉	家口主 學歷別 貧困갇 比率	104
〈表 3-29〉	家口主 學歷別 貧困갇 比率(勤勞者 家口)	104
〈表 3-30〉	家口主 學歷別 貧困갇 比率(非勤勞者 家口)	105
〈表 3-31〉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	107
〈表 3-32〉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108
〈表 3-33〉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108
〈表 3-34〉	家口主 性別 貧困率	121
〈表 3-35〉	家口主 性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22
〈表 3-36〉	家口主 性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23
〈表 3-37〉	家口主 性別 貧困갇 比率	124
〈表 3-38〉	家口主 性別 貧困갇 比率(勤勞者 家口)	125
〈表 3-39〉	家口主 性別 貧困갇 比率(非勤勞者 家口)	125
〈表 3-40〉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	126
〈表 3-41〉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127
〈表 3-42〉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128
〈表 3-43〉	地域別 貧困率	141
〈表 3-44〉	地域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42
〈表 3-45〉	地域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43
〈表 3-46〉	地域別 貧困갇 比率	143

〈表 3-47〉	地域別 貧困집 比率(勤勞者 家口)	144
〈表 3-48〉	地域別 貧困집 比率(非勤勞者 家口)	144
〈表 3-49〉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全家口)	146
〈表 3-50〉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146
〈表 3-51〉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147
〈表 3-52〉	貧困家口中 家口類型別 比率의 變化	164
〈表 4- 1〉	家口均等化指數 比較	167
〈表 4- 2〉	勤勞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74
〈表 4- 3〉	經常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75
〈表 4- 4〉	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77
〈表 4- 5〉	總收入 基準 所得不平等度	178

附表目次

〈附表 3- 1〉	所得-貧困率	69
〈附表 3- 2〉	支出-貧困率	70
〈附表 3- 3〉	所得-貧困갚 比率	71
〈附表 3- 4〉	支出-貧困갚 比率	72
〈附表 3- 5〉	所得-Sen指數	73
〈附表 3- 6〉	支出-Sen指數	74
〈附表 3- 7〉	所得-FGT指數($\alpha=2$)	75
〈附表 3- 8〉	支出-FGT指數($\alpha=2$)	76
〈附表 3- 9〉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全家口)	89
〈附表 3-10〉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90
〈附表 3-11〉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91
〈附表 3-12〉	家口主 年齡別 貧困갚 比率	92
〈附表 3-13〉	家口主 年齡別 貧困갚 比率(勤勞者 家口)	93
〈附表 3-14〉	家口主 年齡別 貧困갚 比率(非勤勞者 家口)	94
〈附表 3-15〉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	95
〈附表 3-16〉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96
〈附表 3-17〉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97
〈附表 3-18〉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 2$, 全家口)	98
〈附表 3-19〉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 2$, 勤勞者 家口)	99
〈附表 3-20〉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 2$, 非勤勞者 家口)	100
〈附表 3-21〉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119
〈附表 3-22〉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10
〈附表 3-23〉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11

〈附表 3-24〉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比率	112
〈附表 3-25〉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比率(勤勞者 家口)	113
〈附表 3-26〉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比率(非勤勞者 家口)	114
〈附表 3-27〉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	117
〈附表 3-28〉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116
〈附表 3-29〉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117
〈附表 3-30〉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全家口)	118
〈附表 3-31〉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勤勞者 家口)	119
〈附表 3-32〉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非勤勞者 家口)	120
〈附表 3-33〉	家口主 性別 貧困率	129
〈附表 3-34〉	家口主 性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30
〈附表 3-35〉	家口主 性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31
〈附表 3-36〉	家口主 性別 貧困率 比率	132
〈附表 3-37〉	家口主 性別 貧困率 比率(勤勞者 家口)	133
〈附表 3-38〉	家口主 性別 貧困率 比率(非勤勞者 家口)	134
〈附表 3-39〉	家口主 性別 Sen指數	135
〈附表 3-40〉	性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136
〈附表 3-41〉	性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137
〈附表 3-42〉	家口主 性別 FGT指數	138
〈附表 3-43〉	家口主 性別 FGT指數(勤勞者 家口)	139
〈附表 3-44〉	家口主 性別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140
〈附表 3-45〉	地域別 貧困率	148
〈附表 3-46〉	地域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149
〈附表 3-47〉	地域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150
〈附表 3-48〉	地域別 貧困率 比率	151
〈附表 3-49〉	地域別 貧困率 比率(勤勞者 家口)	152
〈附表 3-50〉	地域別 貧困率 比率(非勤勞者 家口)	153
〈附表 3-51〉	地域別 Sen指數(全家口)	154

〈附表 3-52〉	地域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155
〈附表 3-53〉	地域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156
〈附表 3-54〉	地域別 FGT指數(全家口)	157
〈附表 3-55〉	地域別 FGT指數(勤勞者 家口)	158
〈附表 3-56〉	地域別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159
〈附表 4- 1〉	勤勞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79
〈附表 4- 2〉	經常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80
〈附表 4- 3〉	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181
〈附表 4- 4〉	總收入 基準 所得不平等度	182

그림 目 次

[그림 2-1]	失業率과 貧困率의 比較	35
[그림 4-1]	2人 經濟의 社會厚生函數	169
[그림 4-2]	勤勞者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184
[그림 4-3]	非勤勞者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185
[그림 4-4]	全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187

要約

I. 研究目的

- 經濟危機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소득분배 및 빈곤의 동향을 Monitoring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토대 구축
-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요인 파악의 결과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II. 貧困計測

- 統計資料
 - 통계청 「都市家計調査」자료의 所得 및 支出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이 자료는 1인 가구, 농어촌지역 거주가구, 非勤勞者家口 등의 소득이 누락되어 있음.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가구의 빈곤수준과 소득불평등도를 추계하였음.
 - 貧困線은 94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
- 貧困率
 - 經濟危機로 인한 大量失業이 본격화된 1998년에 경상소득-빈곤율

은 15.30%로 전년대비 60.71%가 상승하였으며 99년 1/4분기에 빈곤율이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임.

- 비근로자 가구 경상소득-빈곤율이 근로자가구보다 약 4~5배 정도 높으나, 빈곤율 증가율은 勤勞者家口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근로자가구 중 약 10%의 가구주 가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충격이 근로자 가구에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됨.
-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과 가계지출-전가구 빈곤율이 서로 비슷한 추세이나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빈곤율은 '98년의 경우 6.77%로 가계지출-빈곤율 13.56%보다 무려 6.79% 포인트 낮게 나타남.
 - 이 결과는 最低生計費 以下 근로자가구 경상소득수준이 가계지출수준보다 높은 흑자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98년 3/4분기 자료에 따르면 最低生計費 以下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가구의 88.6%가 흑자가구임.
- '97년도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 비율은 37.96%이었으나 '98년 들어와 43.22%로 증가하여 貧困의 심도가 악화됨.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비근로자가구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전가구 경상소득-Sen指數는 '98년의 경우 9.29%로서 '97년의 5.29%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99년도에 들어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가구 경상소득-Sen指數의 증가는 빈곤율 증가뿐만 아니라 빈곤율 比率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기인
 - 즉, 빈곤율의 深化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주도하였음.

-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의 Sen指數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貧困率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순서로 그 영향을 미쳤음.
- 전가구의 경상소득-FGT指數는 '98년의 경우 4.22%로서 '97년의 2.14%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경상소득-FGT指數는 경상소득-Sen指數보다 빈곤의 심도 그리고 貧困層 소득불평등을 더 고려함으로 분석기간 중 빈곤심도와 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을 경우 Sen指數보다 더 민감해짐.

□ 家口主 特性別 貧困水準

-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빈곤율 추계결과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주 연령대는 '98년까지는 50대, '99년 들어와서는 4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음.
- 비근로자 가구 빈곤갭 비율이 근로자 가구 빈곤갭 比率보다 높게 나타나 비근로자가구 貧困의 深度가 심각함은 분명
-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Sen指數도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가장 높으며 Sen지수가 가장 낮은 가구주 연령의 가구는 '98년까지는 50대, 그리고 '99년 들어와서는 40대임.
 - '97년도 대비 '98년의 연령별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 증가율은 50대 가구주 가구가 가장 높으며(141.15%), 40대(76.72%), 30대(70.46%),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65.71%) 순서이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증가율(49.95%)이 가장 낮음.
 - 우리나라의 빈곤계층 중 60대 이상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빈

곤수준이 가장 심각하며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아울러 50대 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家口主 學歷別 경상소득-빈곤율 추계결과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순서로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구분도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97년과 '98년 사이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나 경제위기는 중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가구주 가구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비근로자 가구 중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99년 들어와 50%를 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임.
- 家口主 學歷別 빈곤갭 비율은 '97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낮게 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에 들어와 학력별 빈곤수준 순위는 빈곤율, Sen指數, FGT指數 중 어떤 지수를 적용해도 같은 순위로 결과되고 있음.
- 家口主 性別 貧困率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97년에는 7.57%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5.86%에 이르러 2.1배정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음.
 - 그런데 비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빈곤율이 '99년 1/4분기에 52.59%까지 상승한 것은 이들 가구의 貧困問題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 이들 가구의 빈곤율이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46.39%와 41.22%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그 빈곤수준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에 대한 對策마련이 시급함.
- 남성가구주 가구의 Sen指數가 '96년에는 4.08%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는 9.54%에 이르러 여성가구주 가구의 Sen지수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음.
- 거주 지역별 빈곤율은 서울지역 거주 가구의 빈곤율이 기타 도시 지역 거주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9년 1/4분기에 들어오면 두 지역의 빈곤율 격차가 상당히 줄었음.
- 지역별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서도 서울이 기타 도시지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부터 서울과 기타 도시 거주가구들의 빈곤갭 比率이 서로 근접.
- 지역별 Sen指數와 FGT指數 계측 결과도 서울지역 거주 가구가 기타 도시지역 거주가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9년 1/4분기에 들어오면 두 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
 - '97년~'98년 중 Sen指數와 FGT指數의 증가율이 빈곤율 증가율보다 높는데 이는 빈곤가구의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의 심도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지수들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
 - 즉, 貧困層의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의 심도가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貧困率의 증가율보다 커진다는 것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위기의 충격이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을 빈곤율 결과 때보다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음.

- 어느 지역이던 간에 비근로자가구의 貧困水準이 근로자가구에 비해 훨씬 심각하며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서울과 기타도시간의 Sen 指數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 '99년 3/4분기에는 상당히 수렴

□ 貧困要因 分析

○ 貧困原因分析

- 분석기간동안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 여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빈곤선 이하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음.
- 그러나 經濟危機의 충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 50대 남성 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수준이 勤勞者家口보다 높은 이유는 비근로자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비율이 '98년의 경우 약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임.
 - '98년 3/4분기에 最低生計費 以下 근로자가구의 88.6%가 흑자가구인 반면에 비근로자가구는 대부분이 적자가구로 나타나는 것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줌.
- '98년의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은 근로자가구가 비근로자가구보다 크게 나타남.
 - 그 이유는 비근로자가구 중 무직가구주 가구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빈곤상태에 있으므로 경제위기의 충격에 단지 높은 빈곤율 수준을 유지하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
 - 그러나 家口主가 근로자인 가구 중 고용상태가 지극히 불안

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10%에 달하는 등 경제위기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 가구의 比率이 높기 때문임.

- 연령별로 60대 이상 그리고 여성가구주로서 초등학교만을卒業한 가구주 가구가 빈곤선 이하에 있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 가구가 일반적으로 경제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음.

○ 貧困要因分析

-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가구주 특성별(가구주의 근로여부 거주 지역별·성별·학력별·연령별)로 그 비중을 계산하였음.
- 그 결과 '99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는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임.
 - 이들 家口의 비율은 8.965%이며 '97년 1/4분기에 10.235%, '98년 1/4분기에는 10.941%, 그리고 '99년 1/4분기에는 9.709%를 기록하였음.
 - 경제위기 전후기간에 이들 가구는 전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96년 1/4분기에서 두 번째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는 기타 도시에 居住하는 초등학교까지 졸업한 60대 이상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임.
 - 이들 가구의 비율은 '97년 1/4분기에는 5.213%였으나 '98년 1/4분기에는 오히려 3.917%로 그 비율이 떨어졌으며 '99년 1/4분기에는 4.127%로 다시 증가하였음.
 - 이들 가구는 經濟危機 전에도 빈곤율이 높은 가구였으며 소득창출 능력이 약한 가구들로써 大量失業의 직접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해 '98년도에 다른 가구들의 증가로 이 가구들의 비율이 감소

-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약 45%에 달하여 이들 가구의 변화가 전체 貧困水準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

Ⅲ. 所得不平等度 計測과 變化要因分析

□ 所得不平等度 計測

-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소득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이며 측정단위는 「가구」 임.
- 근로자가구의 勤勞所得 기준 Gini계수는 경제 위기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동시에 1999년에 들어와 더욱 악화
 - Gini계수가 '97년에 0.303에서 '98년에는 0.313으로 상승. 이러한 상승추세는 '99년도 1/4분기까지 이어져 0.322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 0.314로 감소하다 3/4분기에는 다시 증가 추세
 - '99년 3/4분기의 Gini 계수는 0.325로 1996년 1/4분기 이래로 최고의 不平等度를 보이고 있음.
 - Atkinson指數 역시 1998년에 0.09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0%의 증가율을 기록
- 經常所得 기준 근로자 가구 Gini 계수는 '97년에 0.296, '98년에는 0.302 그리고 '99년까지 근로소득 Gini 계수와 비슷한 추세이나 불평등도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 중 사업 및 부업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은 편이나 이전소득의 不平等度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財産所得과 함께 합산된 분배상태가 경상소득 불평등도를 다소 줄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 Gini 계수는 1997년에 0.467에서 1998년에 0.494로 증가. 1999년 1/4분기에는 0.508까지 악화.
- 全家口의 경우 1997년에 0.369에서 1998년에는 0.39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 들어와 약 0.4정도를 유지.
- Atkinson指數도 Gini계수와 비슷한 추세이며, '97년에 0.07에 달하던 근로자가구의 불평등도가 '98년에는 0.08로 악화되는 동시에 비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가 0.16에서 0.19로 큰 폭으로 역시 악화.
 - '99년에 접어들어서 근로자가구의 경우 1999년 2/4분기에 조금 개선, 3/4분기에 악화되었고 비근로자가구는 1/4분기에 0.21을 정점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3/4분기에 0.19로 '98년보다 악화된 상태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全家口의 경우 '99년에 소득분배가 1/4분기에 가장 악화되었고, 그 이후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1998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가구의 소득 Gini계수는 경상소득 Gini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가구 소득 Gini계수는 '97년에 0.299에서 '98년에 0.319로 악화되었으며, '99년에 들어와 1/4분기에 0.33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4분기에는 0.320, 3/4분기에는 0.312로 감소.
 - 소득기준 Gini계수가 經常所得 Gini 계수보다 높은 이유는 退職金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며 연금일시금 등 비경

상소득의 영향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비근로자가구는 '97년에 0.508에서 '98년에는 0.554로 악화. '99년 1/4분기에 0.558로 전년보다 악화, 2/4분기에 소폭 개선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가구 所得不平等은 '97년에 0.399에서 '98년에는 0.44로 악화, '99년 1/4분기에 0.453으로 큰 폭으로 악화, 2사분기에 약간 개선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악화
- 이처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改善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 '98년의 Atkinson指數는 Gini 계수의 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
 - 특히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의 Atkinson指數가 '97년에 각기 0.07, 0.18에서 '98년에 0.09, 0.24로 약 30% 가량 악화된 것으로 계산되었음.
 - '99년에도 소득불평등도가 1/4분기는 크게 惡化되어,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공통적으로 최악의 분배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4분기에 소폭 改善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악화.

□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分析

-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요인
 - 所得 기준 불평등도는 경상소득 불평등도보다 크게 나타남.
 - 즉,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나빠진 것과 더불어 비경상 소득에 대한 소득분배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
-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요인

- 비근로자가구의 Gini계수는 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기준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은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와 비경상소득의 불평등도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
- '99년에 들어서도 所得分配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기준 불평등도의 악화 요인은 경상소득보다는 비경상소득에 기인
- 전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요인
 - 전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불평등도는 '98년에 악화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소득의 所得分配 악화와 비경상소득의 소득분배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며 '99년에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

IV. 政策方向

□ 貧困 및 所得分配 統計시스템 改善

- 우리나라는 아직 전 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深度 그리고 소득 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통계에서 누락되어있는 1人 家口를 포함시키고 비근로자가구 소득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
 - 이를 위해 국세청과 통계청의 情報交換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
- 일단 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가 改善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분배정책과 빈곤완화정책 프로그램의 效果性을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함.

□ 對象別 貧困對策 마련과 地方 都市 貧困對策 強化

- 경기가 회복되고, 失業率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또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지방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貧困政策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
- 따라서 빈곤의 심도에 따라 빈곤대책의 방법과 강도가 차등화되어야 함.
 - － 빈곤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유형은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임.
 - － 이들 가구들에 대한 빈곤대책으로는 지방도시의 自活對策 및 일자리 창출이 效率的인 政策
 - － 아울러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약 37~45%에 달하고 있어 지방 도시의 빈곤 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

□ 脆弱階層 自立

- －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들 소득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
- － 60대 이상 가구주의 再就業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저학력자나 여성도 정상적인 일자리 구하기란 어려움.

- 따라서 이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創業支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경험이 없는 노인들에게 창업지원비 대출 등의 시스템으로는 성공하기 힘들.
 -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생활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生計費 支援은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自活의 成功率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제도구축

□ 年金制度의 強化

- 높은 빈곤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연금수혜가 확대되어야 하나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현재 운영중인 敬老年金을 강화해야함.
 - 즉,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의 제고가 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老人所得保障의 근간이 되도록 정책마련 필요
 - 또한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연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敬老年金制度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빈곤가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빈곤규모를 낮추는 정책중의 하나가 노인의 빈곤수준을 완

화하는 것임.

- 따라서 연금을 통한 노인빈곤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自營者 所得把握率 提高와 所得再分配

- 선진국의 경우 所得分配, 즉, 1차분배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소득 재분배 즉, 2차분배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대폭 완화시킴.
 - 예를 들면 稅前 Gini계수는 미국의 경우 0.455, 독일은 0.436, 스웨덴은 0.487로 모두 우리나라의 稅前 Gini계수보다 높으나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 이후 Gini계수가 각각 0.282와 0.230으로 세전 Gini 계수에 비해 대폭 감소
- 이러한 소득분배구조가 市場經濟와 生産的 福祉를 동시에 달성하는 분배구조임.
 - 따라서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영자의 소득과악률을 제고하며 동시에 稅源의 투명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사회보장 소득이전 기능을 강화하여 1차분배보다는 2차분배에 역점을 두고 분배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1997년 말 발생한 外換危機는 그 동안 미뤄왔던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실업자의 대량발생으로 초유의 失業率을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는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대부사업 실시,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低所得 失業者 보호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속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所得分配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의 대량발생은 중하위계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율 및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一貫性 있는 연구가 미흡하여 그 실태 파악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經濟危機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소득분배 및 빈곤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빈곤과 소득분배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변수에 따른 貧困率·所得不平等度 예측도 가능하여 빈곤율 등이 향후 주요지표로 자리를 굳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요인 파악의 결과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第 2 節 研究內容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한 상황을 검토하고 실업증가에 따른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별 빈곤수준과 소득분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발표되고 있지 않은 비근로자가구의 所得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비근로자 가구소득과 「도시가구조사」 원자료에 발표되어있는 소득 및 지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經濟危機 後인 1997년과 1998년의 빈곤수준 변화요인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일반가구, 근로자와 비근로자 가구, 가구주 연령별·학력별·성별·거주지역별 등 家口特性別 빈곤수준을 계측하였으며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빈곤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빈곤율(head-count ratio) 뿐만 아니라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Sen指數 그리고 FGT指數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빈곤수준을 계측함으로써 우리나라 빈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빈곤수준과 함께 경제위기 後의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所得不平等度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Gini계수와 함께 OECD 등 선진 국가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Atkinson指數를 이용하였다. 소득불평등도는 전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로 구분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였으며, 소득관련 자료를 총수입·소득·경상소득·사업 및 부업 소득·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불평등도 및 貧困水準 計測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토대로 빈곤수준과 소득불평등도 Monitoring system 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마련하였다.

第 3 節 期待效果

우리나라에서 행한 기존의 所得不平等이나 貧困에 관한 연구는 단순하게 소득불평등의 수준이나 빈곤의 규모 등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의 변화만을 강조하는데 불과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貧困의 실태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그리고 전가구로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빈곤타개 정책을 수립하는데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그리고 전가구의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불평등을 계측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악화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악화요인을 바탕으로 所得不平等을 해소할 수 있는 社會保障政策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Monitoring system개발로 분기별 동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효과도 갖고 있다.

第 2 章 經濟危機의 現況

第 1 節 構造調整¹⁾과 失業

1997년 말에 시작한 외환위기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업체를 급증시켰고 그 동안 미루어오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때부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부도업체의 증가와 構造調整은 당장 해당업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 동안 2~3%에 머물던 실업률이 1998년 1/4분기에 들어와 5.6%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9년 1/4분기에는 8.4%로 최고치에 달하였다.

외환위기는 우리 나라 金融部門의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이 부문의 구조개혁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은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분야로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확산되어나가면서 勞動市場으로부

1)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Restructuring)이란 광의로는 國家資源-여기에는 인력, 자본, 기술력 등 전반적인 국가자원이 모두 포함-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치하여 생산성은 물론 국부를 증대 시키는 것이다. 협의적으로는 개별경제주체가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즉, 정부는 잘못된 투자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企業은 무분별한 자원의 사용이나 인력의 활용을 개선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며,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능력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성을 가지는 전체적인 資源의 效率性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종류에는 人力의 재배치, 임금삭감, 재교육,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을 행하는 인력구조조정과, 팀제도입, 유사조직의 통폐합, 의사결정단계의 축소 등을 하는 조직구조조정, 제품의 산출에 있어 사양제품의 과감한 생산중단과 이익상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제품구조조정, 새로운 발전가능성 있는 시장 등을 개발하는 시장구조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조정방향은 주로 인력구조조정과 조직구조조정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터 퇴출되는 근로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은행간 합병과 퇴출을 통해 이루어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먼저 1998년 6월에 시중 5개은행²⁾이 퇴출대상으로 선정되 다른 선도은행에 합병되었으며 기존 은행들도 서로 합병³⁾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1998년 은행의 총종사자는 1997년의 34%에 해당하는 11만 4,619명이 감소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은행부문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어 리스사, 생명보험사, 종금사 등이 폐쇄되었으며 폐쇄를 면한 기타 투신사나 나머지 제2금융기관 등도 인력감축과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함으로써 많은 勤勞者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한편 정부는 98년 2월에 企業部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6월에 1차로 55개 퇴출기업을 선정·발표했다. 그리고 2차 기업부문 구조조정으로 5대그룹간 빅딜을 추진함으로써 5대그룹간의 사업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수 천명 이상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경제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고용구조는 <表 2-1>과 같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97년 12월에 고용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98년 1월의 경우는 종금사 등에 대한 退出로 인한 영향과 갑작스런 자금악화로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후 상반기 大企業과 銀行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9월 이후로는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99년 3월부터 종업원수가 증가한 업체의 비율이 감소한 업체의 비율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2) 경기은행, 충청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3)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그리고 현대종금 등이 서로 합병

〈表 2-1〉 中小製造業 雇傭動向

(단위: %)

연도	월	중업원수 증가업체 비율(A)	중업원수 감소업체 비율(B)	A-B
'97	10	17.4	18.9	-1.5
	11	13.6	22.0	-8.4
	12	10.7	27.2	-16.5
'98	1	9.2	31.6	-22.4
	2	10.9	29.5	-18.6
	3	14.9	26.1	-11.2
	4	11.6	30.0	-18.4
	5	12.1	26.4	-14.3
	6	12.1	22.6	-10.5
	7	12.0	23.9	-11.9
	8	13.8	22.7	-8.9
	9	15.8	18.5	-2.7
	10	14.6	17.3	-2.7
	11	16.0	16.9	-0.9
	12	14.8	16.1	-1.3
'99	1	17.0	17.7	-0.7
	2	15.8	16.6	-0.8
	3	23.5	14.4	9.1

資料: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각연도.

그 동안 다른 어떤 조직보다 非效率的이고 非生産的이라 생각되어 온 공공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빠르게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98년 2월 1차 구조조정과 '99년 5월 2차 구조조정을 통해 헌법기관과 교육·경찰 및 공안·일반·현업 등 국가공무원, 그리고 시·도 및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중 총 49,508명이 退職하였다.

<表 2-2> 政府의 構造調整 現況

(단위: 명)

구분	국민의 정부 출범전 (’97년 12월 31일)	1차 구조조정 (’98년 2월)	2차 구조조정 (’99년 5월)	현재 (’99년 11월)
헌법기관	16,605	17,634 (1,029)	17,651 (▽1,046)	17,800 (▽1,195)
국가공무원	561,952	559,063 (▽2889)	551,742 (▽10,210)	551,569 (▽10,383)
지방공무원	355,690	357,202 (▲1,512)	315,370 (▽40,320)	315,370 (▽40,320)
총계	934,247	933,899 (▽348)	884,763 (▽49,484)	884,739 (▽49,508)

註: ▲ 증가, ▽ 감소
 資料: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또한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5개 聯合理事會로 개편하며, 인력조정을 단행하여 약 2,500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16개의 공기업의 경우, ’98년 11월말기준 12,608명을 감축하였으며 이는 ’98년 3월 정원기준으로 8.8%를 감축한 것이다. 공기업의 子會社의 경우는 2,793명을 감축하여 역시 ’98년 3월 정원기준으로 13%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우 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등을 통해 106기관으로 조정하고 인원은 7,670명을 명예퇴직이나 재임용 등을 단행해 ’97년 12월 정원기준으로 12.2%를 감축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따른 가장 큰 社會·經濟的 變化는 실업의 급증이다. <表 2-3>에서 보듯이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 1/4분기의 실업률이 ’97년 4/4분기 실업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99년 1/4분기에 8.4%의 失業率을 기록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는 인력구조조정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다.

〈表 2-3〉 失業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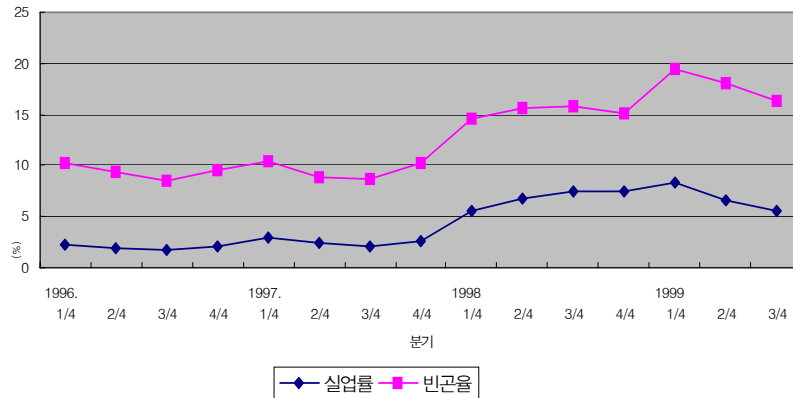
(단위: %)

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996	2.2	1.9	1.8	2.0
1997	3.0	2.5	2.1	2.6
1998	5.6	6.8	7.4	7.4
1999	8.4	6.6	5.6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그림 2-1] 을 보면 失業率의 증가와 함께 貧困率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2-1] 의 빈곤율은 도시 전가구의 경상소득을 이용한 빈곤율이다. 빈곤율과 실업률의 추세를 보면 經濟危機가 본격화된 1998년 1/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4/4분기에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9년 1/4분기에 최고치를 달하고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실업률과 빈곤율의 동향이 아주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貧困水準은 실업률에 의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失業政策은 빈곤정책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2-1] 失業率과 貧困率의 比較



第 2 節 家口所得·支出의 變化

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가구소득과 지출이 감소하였다. '98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가계지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消費支出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13만원으로 '97년 대비 6.7% 감소한 반면 가계지출은 154만원으로 전년 보다 8.4%, 消費支出은 10.7%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다. 5분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表 2-4>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의 所得減少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97년 하반기 저소득계층인 I 계층의 평균소득은 97만 2,325원이었으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 상반기에는 78만 4,750원으로 -23.9%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소득감소를 경험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소득계층인 V층의 경우 '97년 하반기의 경우 428만 4,750원에서 '98년 상반기에는 432만 650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0.8%증가했는데, 이는 상반기의 높은 이자율에 따른 金融所得의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III 계층도 '97년 하반기

대비 '98년 상반기 家口所得이 -11.3%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II 계층의 경우 이 감소폭이 -14.1%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IV 계층의 경우 -9.2%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의 감소폭이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所得減少 推移는 '98년 下半期에 들어와 I 계층의 평균가구소득 감소율이 가장 적은 -0.2%를 기록한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V 계층의 평균가구소득이 가장 커다란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소득감소의 추이가 반전되고 있다.

〈表 2-4〉 5分位 勤勞者 家口所得과 前半期 對比 所得增減 推移
(단위: 원, %)

	I	II	III	IV	V
1997 하반기	972,325 (+5.2)	1,582,800 (+4.0)	2,064,000 (+3.5)	2,695,430 (+3.1)	4,284,750 (+1.4)
1998 상반기	784,750 (-23.9)	1,386,780 (-14.1)	1,853,780 (-11.3)	2,469,130 (-9.2)	4,320,650 (+0.8)
1998 하반기	783,425 (-0.2)	1,349,900 (-2.7)	1,800,700 (-2.9)	2,411,280 (-2.4)	4,167,230 (-3.7)

註: 괄호안의 수치는 전기대비 소득증감으로 + 는 증가, - 는 감소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7, 1998.

第 3 章 貧困計測과 變化要因分析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失業率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우리나라의 빈곤수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기존의 관련연구 및 통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율을 계측하기 위해 방법론과 계측결과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본 方法論은 OECD의 방법에 가능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의 차이로 불가피한 경우 다소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貧困率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서 소득의 개념, 측정단위, 가구규모의 조정, 그리고 所得不平等度 측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第 1 節 計測方法

1. 所得 및 支出概念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은 貨幣所得이다. 화폐소득은 해당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의 역할을 하며 특히 타 가구와의 비교와 계산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소득자료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의 總收入, 所得, 그리고 經常所得이다. 먼저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常所得은 勤勞所得, 事業 및 副業所得, 財産所得, 移轉所得으로

구성되며 所得은 經常所得과 非經常所得을 합한 값이다. 여기서 非經常所得은 퇴직금·연금일시금·복권당첨금 등과 慶弔所得,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포함한다. 그리고 總收入은 所得과 其他收入의 합계인데, 기타수입은 저축 찾은 금액, 보험이나 계단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매각, 빌려준 돈 받은 것, 기타 등으로 구성되는 資産減少와 빌린 돈이나 외상 및 월부 등 負債增加로 구성된다.

한편 소득과 함께 가계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 지출자료가 서유럽 국가들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득과 지출 중 어떤 자료가 복지수준 측정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모두 이용하여 빈곤수준을 측정하였다(Townsend, 1987; Hurd, 1986; EUROSTAT, 1990).

〈表 3-1〉 所得 構成項目

구분		구성항목	
總 收 入	所 得	經常所得	勤勞所得 事業 및 副業所得 財産所得 移轉所得
		非經常所得	慶弔所得 廢品賣却代金 其 他
	其 他 收 入	資産減少	저축찾은 금액 보험·계단 금액 有價證券·不動産·其他財産 賣却 빌려준 돈 받음 其他 資産減少
		負債增加	주택관계 빌린 돈 기타 빌린 돈 월부 및 외상 기타 부채 증가
前月 移越金			

資料: 통계청, 『1998 도시가계연보』, 1999.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지출자료의 항목은 통계청의 구분에 따랐는데 즉, 총지출은 가계지출과 기타지출 그리고 월말현금잔고로 구성되며, 가계지출은 消費支出과 非消費支出, 기타지출은 자산증가와 부채감소로 구성된다.

〈表 3-2〉 支出 構成項目

구분		항목	
總 支 出	家計支出	消費支出	식료품, 주거, 광열 및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非消費支出	조세,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기타 비소비지출 (이자지급, 부담금, 송금 및 보조 등)
	其他支出	資産增加	저축, 저축성보험, 계부은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 구입 빌려준돈(전세보증금 전화설치예치금 등) 기타 자산증가
		負債減少	주택관계 빌린 돈 상환 기타 빌린 돈 갚음 월부 및 외상 갚음 기타 부채 감소
月末 現金殘高		전세평가액, 보증부 월세평가액, 자가평가액	

資料: 통계청, 『1998 도시가계연보』, 1999.

2. 統計資料와 測定單位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都市家計調査」와 「家口消費實態調査」 그리고 그 동안 농림부에서 조사 및 담당하여오다 1998년부터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農家經濟調査」이다. 「家口消費實態調査」자료는 1991년부터 조사를 시작하

여 매5년마다 조사되는 자료로서 1996년 조사결과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이 조사자료에는 「都市家計調査」 자료에 없는 1인 가구, 농어촌지역 거주가구, 非勤勞者家口 등의 소득이 조사·발표되므로 사실상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년 말을 기점으로 經濟危機 이전과 이후의 빈곤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1997년과 1998년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하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는 1996년에 조사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이며 다음 조사연도는 2001년이 되므로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家口消費實態調査」 자료는 농어촌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만을 포함하고 있고 農魚業에 종사하는 가구는 제외되어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원자료를 분석·검토하였으나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조사항목과 소득 및 지출개념 등이 상이하야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資料를 이용하여 貧困率과 소득불평등도를 실제로 추계하였으나 '98년부터 통계청이 담당하면서 조사지역과 층화지표 그리고 층화기준 등이 '98년 이전의 통계자료와 상이하며 아울러 '97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대한 추계결과가 불안정하게 도출되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 비근로자가구의 所得 등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 全家口의 빈곤율, 특히 소득불평등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자료가 발표되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所得不平等度를 추계해 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한 전직 근로자가구들의 경우 비근로자가구로 분류되므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을 추계할 경우 경제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구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勤勞者家口의 소비함수를 기초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역추정하여 전가구의 빈곤수준과 소득불평등도를 추계함으로써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貧困率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써 「家口」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측정단위가 가구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단위는 家口(household)와 家計(family)의 개념이 혼재되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OECD 국가에서 빈곤율 또는 소득분배의 측정단위로 주로 사용하는 가구단위는 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꾸려나갈 경우 한 단위로 포함한다. 반면에 「도시가계조사」에서 사용되는 가구는 주로 혈연관계인 가족만을 그 단위로 하는 가계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가구의 개념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3. 非勤勞者家口 所得推定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은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 발표되지 않으므로 비근로자가구의 所得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非勤勞者家口의 소득에 대한 추정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었으며 이중 가장 대표되는 추정방법으로는 나성린-유종구(1991)와 이정우-황성현(1998)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방법들을 소개하고 각 접근 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가. 非勤勞者家口의 所得推定方法

나성린·유종구(1991)의 모형은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소비 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人口·社會學的 變數를 도입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계수를 기준으로 비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과 人口·社會學的 變數를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였다. 특히 나성린·유종구는 인구·사회적인 변수로써 가구원수와 주택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로그 模型을 제시하였다.

$$\begin{aligned} \ln C_i = & \alpha_1 + \alpha_2 D_{2i} + \alpha_3 D_{3i} \\ & + \beta_1 \ln N_i + \beta_2 (D_{2i} \cdot \ln N_i) + \beta_3 (D_{3i} \cdot \ln N_i) \\ & + \gamma_1 \ln Y_i + \gamma_2 (D_{2i} \cdot \ln Y_i) + \gamma_3 (D_{3i} \cdot \ln Y_i) \end{aligned}$$

여기서 D_{2i} 는 전세 가구에 대한 더미 변수, D_{3i} 는 월세 가구에 대한 더미 변수이다. N_i 는 가구원수(가족수), Y_i 는 소득, C_i 는 소비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消費函數를 추정하여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주택이 自家인 가구의 소득추정식 :

$$Y_i = \exp \left[\frac{1}{\gamma_1} (\ln C_i - \alpha_1 - \beta_1 \ln N_i) \right]$$

둘째, 專貰 가구의 소득추정식 :

$$Y_i = \exp \left[\frac{1}{\gamma_1 + \gamma_2} (\ln C_i - (\alpha_1 + \alpha_2) - (\beta_1 + \beta_2) \ln N_i) \right]$$

셋째, 月貰 가구의 소득추정식 :

$$Y_i = \exp \left[\frac{1}{\gamma_1 + \gamma_3} (\ln C_i - (\alpha_1 + \alpha_3) - (\beta_1 + \beta_3) \ln N_i) \right]$$

나성린·유종구의 비근로자 소득추정방법은 로그-로그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비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항상 陽의 값으로 도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모형은 로그-로그 함수의 추정을 통해 所得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를 사용하므로 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計量經濟學에서는 돌출치(outlier)를 제거하고 계산한다.

이정우·황성현(1998)의 방법은 나성린·유종구의 모형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구의 消費函數가 비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逆推定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소비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다.

$$C_i = \alpha + \beta Y_i + \gamma W_i + \delta F_i + \eta DH_i$$

여기서 C_i 는 소비지출, Y_i 는 가구 소득, W_i 는 가구의 자산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말현금잔고 + 전세평가액 + 자가평가액이며, F_i 는 가족 수이고, DH_i 는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더미 변수이다. 이정우·황성현의 방법은 본인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資産(W_i) 變數는 누락된 범위가 많아서 범위가 불충분하며, 그나마 들어가 있는 항목도 조사에

서 정확하게 파악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형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所得이 음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비근로자가구 가운데 많은 가구의 소득이 음으로 도출되었다.)

나. 非勤勞者家口의 所得推定 結果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인 나성린·유종구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고자 한다. 각 연도별로 추정치의 값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분기를 기준으로 추정한 方程式을 근거로 모든 분기에 동일한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분기별로 동일한 형태의 모형을 개별적으로 推定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一定 時點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횡단면 분석의 경우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한다. 이분산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분산이 존재한다면 치더라도 추정치의 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다만 t값이나 결정계수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상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하더라도 변수의 추정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模型을 통해 비근로자가구의 所得을 추정하였다.

4) 1996년 1/4분기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전체 관찰치는 6,020가구 였다. 이 가운데 총수입이 음으로 계산된 가구수는 56가구였으며, 소득이 음으로 도출되는 가구수는 102가구, 경상소득이 음으로 도출되는 가구수는 115가구였다.

$$\begin{aligned} \ln C_i = & \alpha_1 + \alpha_2 D_{2i} + \alpha_3 D_{3i} + \alpha_4 D_{4i} \\ & + \beta_1 \ln N_i + \beta_2 (D_{2i} \cdot \ln N_i) + \beta_3 (D_{3i} \cdot \ln N_i) \\ & + \beta_4 (D_{4i} \cdot \ln N_i) + \gamma_1 \ln Y_i + \gamma_2 (D_{2i} \cdot \ln Y_i) \\ & + \gamma_3 (D_{3i} \cdot \ln Y_i) + \gamma_4 (D_{4i} \cdot \ln Y_i) \end{aligned}$$

여기서 D_{2i} 는 자가가 아니지만 전·월세를 제외하고 기타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로써 전·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더미 변수, D_{3i} 는 專貰 家口에 대한 더미 변수, D_{4i} 는 月貰 家口에 대한 더미 변수이다. N_i 는 가구원수(가족수), Y_i 는 소득, C_i 는 소비를 나타낸다. 각 분기별로 추정한 식의 결과는 <附錄 1>에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住宅 所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주택이 自家인 가구의 소득추정식:

$$Y_i = \exp \left[\frac{1}{\gamma_1} (\ln C_i - \alpha_1 - \beta_1 \ln N_i) \right]$$

둘째, 專·月貰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택을 사용하는 가구의 소득추정식:

$$Y_i = \exp \left[\frac{1}{\gamma_1 + \gamma_2} (\ln C_i - (\alpha_1 + \alpha_2) - (\beta_1 + \beta_2) \ln N_i) \right]$$

셋째, 專貰 家口의 소득추정식:

$$Y_i = \exp \left[\frac{1}{\gamma_1 + \gamma_3} (\ln C_i - (\alpha_1 + \alpha_3) - (\beta_1 + \beta_3) \ln N_i) \right]$$

넷째, 月貫 家口의 소득추정식:

$$Y_i = \exp \left[\frac{1}{\gamma_1 + \gamma_4} (\ln C_i - (\alpha_1 + \alpha_4) - (\beta_1 + \beta_4) \ln N_i) \right]$$

4. 貧困指數와 貧困線

가. 貧困率(Head-Count Ratio)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빈곤율은 주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올리는 家口數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R(x, \pi) = \frac{q}{n}$$

여기서 HR은 貧困率, q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올리는 가구수이며, n은 전체 가구수를 나타내며 x는 가구소득, π 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빈곤율은 Rowntree(1901) 이래로 계속되어온 가장 알려진 貧困指數이다.⁵⁾ 그런데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만을 설명하는 단조로운 약점을 안고 있다. 만일 10명으로 구성된 사회의 빈곤선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있고 10명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貧困人口라고 가정하면 이때 빈곤율은 10%가 된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자의 소득이 29만원인 경우나 소득이 1만원인 경우, 어떤 경우에도 빈곤선 이하에 있게 되므로 빈곤율에는 차이가 없으나 빈곤의 深度(depth)는

5) 빈곤율은 head-count ratio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인데 만일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돈을 피할 수 있다.

상이하다. 즉, 빈곤율은 이러한 빈곤의 심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빈곤갭(Poverty Gap)이 보완적으로 이용되곤 한다.

나. 貧困갭 比率(Poverty Gap Ratio)

개인(또는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 $(\pi - x_i)$ 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총빈곤갭은 貧困層 전체의 빈곤갭을 합한 $\sum_{i=1}^q (\pi - x_i)$ 가 된다. 이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총빈곤갭은 미국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the US)에서 개발하였으며,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貧困線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빈곤갭 比率(Poverty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GR = \frac{\sum_{i=1}^q (\pi - x_i)}{\pi q}$$

여기서 PGR은 빈곤갭 비율, π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x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그리고 q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그런데 빈곤갭 비율은 빈곤의 심각성 또는 深度(depth)를 나타내 주지만 貧困의 規模는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다. Sen指數

Sen指數(Sen index)는 Sen이 1976년에 제안한 지수로써 貧困率이나

빈곤갭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이 지수는 빈곤 계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심도(depth) 그리고 빈곤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즉, Sen指數는 빈곤율, 빈곤갭 그리고 빈곤계층의 지니계수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지수이다.

$$S = HR [PGR + (1 - PGR) G_p]$$

여기서 S는 Sen指數, HR은 빈곤율, PGR은 빈곤갭 비율을 나타내며, Gp는 빈곤층의 소득분배상태에 대한 지니계수(Gini index)이다. Sen指數는 貧困線 이하 가구의 소득이 모두 '0'일 경우 '1'이 되며 반대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모두 빈곤선에 근접할 경우 '0'이 된다. Sen指數는 주로 OECD에서 빈곤율을 계측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 FGT指數

FGT指數는 1981년 Foster, Greer와 Thorbecke이 제시하였으며 이들 이름의 첫자를 따서 FGT로 명명되고 있다. FGT指數는 다른 貧困指數와는 달리 파라미터 α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α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로서 α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貧困에 대해 민감해진다. 이 지수는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정도(depth)의 有意性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FGT\alpha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alpha$$

여기서 FGT α 는 파라미터 α 인 FGT지수, n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수, q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π 는 빈곤선, x_i 는 빈곤

선 이하에 있는 家口 i 의 소득, α 는 빈곤혐오감(poverty-avers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alpha \geq 0$)이다. FGT指數는 파라미터 α 의 값에 따라 빈곤의 규모(extent), 심도(depth), 그리고 분배를 고려할 수 있는데,

$$\alpha = 0 \text{ 인 경우, } FGT_{\alpha=0}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0 = \frac{q}{n} = HR$$

이므로 빈곤율과 동일하며 따라서 貧困의 規模(extent)를 나타낸다. α

$$=1 \text{ 인 경우, } FGT_{\alpha=1}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1 = HR \times PGR$$

이므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곱한, 즉, 빈곤의 규모(extent)와 심도(depth)를 나타낸다. 그리고 α 의 값이 1 이상으로 증가할 수록 빈곤에 민감한 기능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alpha=2$ 인 경우,

$$FGT_{\alpha=2}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2 = HR [PGR^2 + (1 - PGR)^2 CV^2]$$

로써 분배상태에 민감한 指數가 된다.(Hourriez J-M & Legris B., 1998)

여기서 CV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σ/μ)이다. 따라서 FGT 계수는 파라미터 값에 따라 빈곤율, 빈곤갭 비율, 그리고 Sen指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편리한 貧困計測 指數이며 주로 세계은행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 貧困線

빈곤선은 94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단, 본원의 도시지역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最低生計費로 분류되어 있어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 도시지역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여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表 3-3〉 年度別 都市地域 最低生計費

(단위: 원)

연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96	395,306	605,967	740,273	850,138	936,545	1,000,098
1997	414,773	635,809	776,729	892,004	982,666	1,049,349
1998	433,186	664,034	811,210	931,603	1,026,290	1,095,933
1999	465,730	713,921	872,154	1,001,591	1,103,393	1,178,267

註: 본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것임.

第 2 節 貧困計測

1. 所得 및 支出資料를 利用한 貧困計測

가. 所得資料를 利用한 貧困率

<表 3-4>에는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로 나누어 貧困率을 추계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구의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은 모두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근로자가구의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은 앞 절에서 추정된 所得資料이다. 아울러 전가구의 빈곤율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근로자가구 소득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정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자료를 합하여 계산되었다.

〈表 3-4〉 所得-貧困率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2.31	0.59	5.21	7.41	3.30	14.27	9.45	4.20	18.60	
1997	2.66	0.46	6.27	7.67	2.87	15.42	9.52	3.62	19.54	
1998	4.25	1.21	8.57	14.28	6.07	25.90	15.30	6.77	27.87	
1999	1/4	4.78	1.62	8.82	17.07	7.76	28.93	19.50 (17.31)	9.01 (7.52)	33.60 (30.40)
	2/4	4.91	1.77	9.05	14.87	7.29	24.74	18.00 (17.82)	8.28 (8.10)	31.26 (31.15)
	3/4	4.41	1.40	8.43	14.21	6.24	24.72	16.33 (18.23)	7.00 (8.15)	29.45 (32.41)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1997년도 전가구 총수입-빈곤율의 경우 2.66%, 소득-빈곤율의 경우 7.67%, 경상소득-빈곤율의 경우 9.52%로 나타나고 있다. 經濟危機로 인한 大量失業이 본격화된 1998년에 와서 총수입-빈곤율은 4.25%로 전년대비 59.77%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득-빈곤율은 14.28%로 전년대비 86.18% 증가, 그리고 경상소득-빈곤율의 경우 15.30%로 전년대비 60.71%가 높아졌다. 여기서 총수입-빈곤율과 경상소득-빈곤율의 증가율이 약 60% 수준인데 비해 소득-빈곤율 증가율이 86.18%에 도달하고 있는 이유는 低所得層의 비경상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 폐품 매각대금 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총수입을 구성하는 소득항목 중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수입(저축찾은 금액, 보험·계단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 매각, 빌려준 돈받음, 빌린 돈, 외상 등)이 경제위기에 따른 經常所得의 減少를 대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貧困率은 총수입-빈곤율의 경우 비근로자 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약 7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과 경상소득-빈곤율의 경우 모두 약 4~5배 정도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절대수준에서 볼 때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8년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빈곤율이 '97년에 비해 87% 증가한 반면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42.63%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소득-빈곤율이 각각 86.18%, 67.96% 증가하여 역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위기의 충격이 勤勞者家口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빈곤수준은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충격은 오히려 근로자 가구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에 들어와 전체 貧困率에서 근로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低所得家口 중 근로자가구로 분류되거나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가구 중 약 10%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家口로 나타나고 있다.(表 3-5 참조)

한편 <表 3-4>에서 경상소득-빈곤율을 계산한 결과와 함께 季節變動 要因을 제거한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은 '98년에 15.30% 그리고 99년 1/4분기는 19.50%로 빈곤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나 2/4분기부터 18.00%로 다소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3/4분기에는 16.33%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全家口 경상소득-빈곤율을 보면 '99년에 들어와 貧困率이 17.31%로 '98년에 비해 2.0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4

분기와 3/4분기에 각각 17.82%, 18.23%로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3-5〉 臨時·日傭職 勤勞者 및 無職家口 現況

(단위: 1000 가구, %)

연도		분기			
		1/4	2/4	3/4	4/4
1996	전가구	15,787	15,745	15,616	15,651
	근로자가구(A)	9,787	9,825	9,702	9,711
	임시/일용노무자(B)	978	990	951	1,115
	B/A×100	10.0	10.1	9.8	11.5
	비근로자가구(C)	6,000	5,920	5,914	5,940
	무직가구(D)	1,392	1,359	1,373	1,352
	D/C×100	23.2	23.0	23.2	22.8
1997	전가구	15,414	15,397	15,269	14,914
	근로자가구(A)	9,486	9,497	9,308	9,181
	임시/일용노무자(B)	906	931	918	962
	B/A×100	9.6	9.8	9.9	10.5
	비근로자가구(C)	5,928	5,900	5,961	5,882
	무직가구(D)	1,435	1,439	1,433	1,416
	D/C×100	24.2	24.4	24.0	24.1
1998	전가구	16,505	16,096	15,980	15,854
	근로자가구(A)	9,698	9,329	9,116	9,032
	임시/일용노무자(B)	897	943	935	936
	B/A×100	9.2	10.1	10.3	10.4
	비근로자가구(C)	6,807	6,767	6,864	6,822
	무직가구(D)	2,157	2,136	2,237	2,218
	D/C×100	31.7	31.6	32.6	32.5
1999	전가구	15,768			
	근로자가구(A)	8,655			
	임시/일용노무자(B)	797			
	B/A×100	9.2			
	비근로자가구(C)	7,113			
	무직가구(D)	2,507			
	D/C×100	35.2			

註: 임시·일용직 근로자가구는 도시가계연보 가구분류 코드 122이며 무직가구의 가구 분류 코드는 291

나. 支出資料를 利用한 貧困率

지출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은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자료로 구분하여 추계되었다. <表 3-6>에는 家計支出과 消費支出을 이용하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을 추계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지출자료는 모두 「도시가계조사」원자료에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지출자료를 이용한 빈곤율 추계결과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도시지역 全家口 가계지출-빈곤율은 9.72%에서 15.63%로 높아져 60.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근로자 가구의 경우 8.24%에서 13.56%로 64.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비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빈곤율은 12.05%에서 18.46%로 53.2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同期間 전가구의 소비지출-빈곤율은 13.17%에서 21.18%로 急增하였으며, 근로자가구의 경우 12.12%에서 19.88%로 64.0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비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빈곤율은 14.84%에서 22.96%로 54.7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빈곤율은 '97년의 경우 비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약 1.46배 높았으나 '98년에는 그 비율이 1.36배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지출-빈곤율의 경우 비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97년에 1.22배 높았으며 이 비율은 '98년에 들어와 1.15배로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所得資料를 이용한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빈곤율 격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자료나 지출자료 어느 쪽을 이용하더라도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의 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근로자 가구의 貧困問題가 더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支出資料을 이용한 빈곤율은 소득자료를 이용한 빈곤율 추계결과와 같이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가구 빈곤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위기의 충격은 오히려 근로자가구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에 근로자가구나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 家計支出이나 消費支出 어느 자료를 이용하던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조세납부액,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액, 기타 비소비지출 등의 항목이 경제위기로 인해 민감한 변화를 하지 않는 지출항목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99년도 들어와 전가구 가계지출-빈곤율은 1/4분기에 14.76%로 '98년의 15.63%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15.18%와 15.24%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가계지출-빈곤율의 경우 1/4분기에 14.46%로 감소한후 3/4분기까지 계속 조금씩 減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表 3-6〉 支出-貧困率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10.80	9.89	12.30	14.28	13.83	15.02	
1997	9.72	8.24	12.05	13.17	12.12	14.84	
1998	15.63	13.56	18.46	21.18	19.88	22.96	
1999	1/4	14.76 (14.46)	12.51 (12.55)	17.49 (16.75)	18.91	16.89	21.36
	2/4	15.18 (14.26)	12.83 (11.74)	18.16 (17.55)	21.19	19.44	23.40
	3/4	15.24 (14.07)	12.56 (11.71)	18.67 (17.04)	20.07	17.79	22.98

註: 괄호안 수치는 비율이동평균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다. 所得 및 支出 貧困率의 比較

본 연구에서 소득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은 총수입-빈곤율, 소득-빈곤율, 경상소득-빈곤율, 지출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은 가계지출-빈곤율, 소비지출-빈곤율을 추계하고 있다. 이중 어떤 빈곤율이 빈곤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貧困線으로 적용하고 있는 最低生計費의 구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94년도에 추계된 최저생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출자료의 경우 가계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所得資料의 경우 본 연구의 초점이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수준에 맞춰있는 만큼 經濟危機로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빈곤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득인 경상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상소득-빈곤율과 가계지출-빈곤율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997년과 1998년도의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을 비교하면 9.52%에서 15.30%로 증가하였으며 전가구 가계지출-빈곤율도 9.72%에서 15.63%로 增加하여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과 가계지출-빈곤율이 서로 비슷한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빈곤율은 '98년의 경우 6.77%로 同 期間 가계지출-빈곤율 13.56%보다 무려 6.79%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最低生計費 以下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수준이 가계지출수준보다 높은 흑자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98년 3/4분기 자료의 분석결과 最低生計費 以下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가구의 88.6%가 흑자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추계시 지출자료를 적용할 것인가 또는 소득자료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약간 초과하나 불안한 未來에

대비하여 현재 지출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낮추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여부가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빈곤율과 지출-빈곤율 모두를 추계하여 전반적인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低所得層이 많은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 빈곤율은 앞에서 추계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같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소득-빈곤율이 '98년의 경우 27.87%인 반면 가계지출-빈곤율은 18.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자료 적용시 빈곤율보다 가계지출 자료적용시 貧困率이 9.41% 포인트 떨어지는 것인데 앞에서 근로자 가구의 경우와는 반대로 비근로자 가구는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2. 貧困갭 比率(Poverty Gap Ratio) 計測

빈곤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빈곤의 크기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빈곤의 심도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빈곤갭 비율이 10%이면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빈곤가구들의 소득이 '0'일 때 이들 가구들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 비용의 10%가 있으면 현재 이들 가구들의 경상소득 수준을 最低生計費 以上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빈곤갭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곤의 深度(depth)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빈곤갭 비율은 빈곤의 심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빈곤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빈곤갭 비율을 이용하여 빈곤율의 弱點을 보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가. 所得-貧困갭 比率

빈곤갭 비율 추계결과 '96년도 전가구 경상소득-빈곤갭 비율은 35.68%, 그리고 '97년도에는 37.96%로 상승하였으며 '98년 들어와 43.22%로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貧困의 심도는 '96년 이후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대비 빈곤갭 비율의 증가율은 '97년의 경우 6.39%, 그리고 '98년의 경우 13.85%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심도가 惡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99년 1/4분기에 들어와 43.04%로 조금 하락하였으며 2/4분기에도 42.12%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는 42.72%로 미미하나마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경상소득-빈곤갭 비율은 '99년도 1/4분기에 들어와 40.05%로 전년도와 비교해 하락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總收入과 所得을 기준으로 한 빈곤갭 비율에서도 비슷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가가와 비근로자 가구의 총수입-빈곤갭 비율, 소득-빈곤갭 비율, 그리고 경상소득-빈곤갭 비율 등 모든 경우의 빈곤갭 비율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증함으로써 貧困의 深度(depth)가 악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7년과 '98년 사이의 빈곤갭 비율의 증가폭이 같은 기간동안의 빈곤율 증가폭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주변의 가구층이 많을 경우 소득이나 지출이 약간 줄어도 빈곤율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빈곤의 심도는 적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99년 들어와 전가구 총수입-빈곤율, 소득-빈곤율, 경상소득-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전가구의 총수입-빈곤갭 비율, 소득-빈곤갭 비율, 경상소득-빈곤갭 비율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이는 最低生計費

以下로 새로 떨어진 가구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한 가구들이기 때문에 빈곤갭 비율은 오히려 줄어 빈곤의 심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갭 비율을 볼 때 모든 경우에서 비근로자가구가 근로자가구의 빈곤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빈곤율의 격차만큼은 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차이가 크나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의 심도의 차이는 貧困率의 차이보다 적다고 추정된다.

<表 3-7> 所得-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29.20	17.88	31.66	33.13	28.63	35.03	35.68	29.40	38.36	
1997	31.20	18.09	33.08	35.47	31.13	36.91	37.96	33.38	39.53	
1998	34.21	19.70	37.40	43.31	36.31	45.80	43.22	37.42	45.42	
1999	1/4	30.70	19.14	33.67	41.34	33.37	44.24	43.04 (40.05)	34.67 (31.75)	46.24 (43.08)
	2/4	30.41	20.82	33.19	38.82	32.87	41.28	42.12 (41.63)	33.68 (33.67)	45.38 (44.65)
	3/4	30.07	18.72	32.99	41.00	34.02	43.50	42.72 (43.75)	34.99 (35.29)	45.49 (46.81)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빈곤갭 비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나. 支出-貧困갭 比率

<表 3-8>에 나타나 있는 전가구 지출-빈곤갭 비율을 보면 '97년에 21.13%를 記錄하였으나 '98년에는 24.19%로 증가하였으며, '99년 1/4

분기에 들어와 22.82%로 감소하였으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23.74%와 23.54%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 빈곤갭 비율을 보면 全家口의 경우 '96년에 21.81%에서 '97년에 21.3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98년에는 24.63%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 추세는 '99년 1/4분기에 들어와 23.19%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다시 23.78%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 趨勢는 3/4분기에도 이어져 24.35%를 기록하였다.

소득-빈곤갭 비율과 비교하면 지출-빈곤갭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貧困家口의 가계지출이 경상소득보다 더 最低生計費에 근접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의 지출-빈곤갭 비율은 지출-빈곤율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빈곤갭 비율에서도 비근로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貧困의 심도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8〉 支出-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21.17	19.72	23.24	21.81	20.75	23.52	
1997	21.13	19.46	23.12	21.38	20.10	23.19	
1998	24.19	22.20	26.29	24.63	23.06	26.57	
1999	1/4	22.82 (21.77)	20.98 (20.23)	24.53 (23.28)	23.19	21.93	24.48
	2/4	23.74 (22.96)	22.63 (21.55)	24.81 (24.21)	23.78	22.50	25.21
	3/4	23.54 (22.87)	22.23 (21.93)	24.76 (23.71)	24.35	22.70	26.0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빈곤갭 비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1998년도 全家口의 가계지출-빈곤율은 15.63%이고 경상소득-빈곤율은 15.30%으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가구의 가계지출-빈곤갭 비율은 24.19%, 소득-빈곤갭 비율은 34.21%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最低生計費 以下の 빈곤가구의 수는 소득기준이나 지출기준 모두 서로 비슷하나 貧困의 深度가 상이한데 이를 통해 볼 때 家計支出이 가계소득보다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Sen指數(Sen index) 推計

Sen指數는 빈곤율이나 빈곤갭의 결점을 보완한 빈곤 측정지수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 지수는 빈곤계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심도(depth) 그리고 빈곤계층의 所得分配 상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이 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비율,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Gini계수를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다. Sen指數 공식을 다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S = HR \cdot [PGR + (1-PGR) \cdot Gp]$ 여기서 S는 Sen指數, HR은 빈곤율, PGR은 빈곤갭 비율을 나타내며, Gp는 빈곤층의 소득분배상태에 대한 지니계수(Gini index)이다. Sen指數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Sen指數는 빈곤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다음으로 빈곤갭 비율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상태의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Sen指數의 추계결과는 빈곤율의 추세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

가. 所得-Sen指數

소득자료를 기초로 Sen指數를 추계한 결과 전가구의 경상소득-Sen指數는 '98년의 경우 9.29%로서 '97년의 5.29%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Sen指數의 전반적 추세는 경상소득-빈곤율과 비슷함을 보이고 있으나 '97~'98년 중 Sen指數 증가율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102.76%,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56.74%로 경상소득-빈곤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貧困의 深度까지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는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소득-Sen指數를 보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Sen指數와 비근로자 가구-Sen指數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상소득-빈곤율의 경우의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격차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Sen指數는 빈곤율과 빈곤갭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最低生計費 以下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비율이 근로자 가구의 비율보다 높은 것에 더하여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의 심도가 더하여져서 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9년도에 들어와 경상소득-Sen指數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기간 빈곤율의 증가폭이 큰 편이어서 빈곤갭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상쇄하고 Sen指數를 빈곤율 증가폭보다는 크지 않으나 그래도 증가추세로 끌고 나갔다고 判斷할 수 있겠다.

〈表 3-9〉 所得-Sen指數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1.04	0.15	2.49	3.70	1.44	7.39	4.99	1.87	10.29	
1997	1.24	0.12	3.04	4.02	1.33	8.30	5.29	1.81	11.12	
1998	2.10	0.36	4.45	8.73	3.20	16.42	9.29	3.67	17.43	
1999	1/4	2.16	0.44	4.32	9.94	3.98	17.47	11.75 (10.10)	4.76 (3.82)	21.08 (18.43)
	2/4	2.21	0.56	4.32	8.30	3.66	14.23	10.69 (10.53)	4.16 (4.10)	19.42 (19.15)
	3/4	1.93	0.38	3.97	9.94	3.20	14.72	9.72 (11.14)	3.67 (4.30)	18.18 (20.69)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Sen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Sen指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전가구 경상소득-Sen指數는 '96년에 4.99%에서 '98년에 5.29%로 6.01%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빈곤율은 0.74%, 그리고 빈곤갭 比率은 6.39% 증가를 기록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Gini계수는 6.61% 증가를 기록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Sen指數의 상승은 빈곤갭의 深化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논의한 빈곤율 변화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를 통해 '97년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이미 惡化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 3-10〉 Sen指數 變化 要因分析

(단위: %)

기간	전가구 경상소득			
	Sen 지수	빈곤율	빈곤갭 비율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Gini 계수×100
1996	4.99	9.45	35.68	26.62
1997	5.29 (6.01)	9.52 (0.74)	37.96 (6.39)	28.38 (6.61)
1998	9.29 (75.61)	15.30 (60.71)	43.22 (13.85)	30.81 (8.56)
1999	1/4 11.75 (26.48)	19.50 (27.45)	43.04 (-0.41)	30.22 (-1.91)
	2/4 10.69 (-9.02)	18.00 (-7.69)	42.12 (-2.13)	29.83 (-1.29)
	3/4 9.72 (-9.07)	16.33 (-9.27)	42.72 (1.42)	29.33 (-1.67)

註: 괄호안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가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의 Sen指數는 9.29%로 전년대비 75.61%를 기록함으로써 빈곤문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빈곤인구의 증가, 즉, 貧困率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순서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 1/4분기에 들어와서는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는 약간 改善되었으나 빈곤율은 계속 증가하여 Sen指數도 전년 대비 26.4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4분기에는 Sen指數가 10.69%로 前 分期에 비해 9.02% 감소하는데 소득분배와 빈곤갭 그리고 빈곤율 모두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 3/4분기에도 Sen指數는 9.72%로 前 分期 대비 9.07%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빈곤갭 비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빈곤율이 9.27% 감소하였고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의 소득분배도 개선됨으로써 3/4분기의 Sen指數는 감소세로 결과되었다.

〈表 3-11〉 貧困層의 所得 Gini 係數

연도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 근로자 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 근로자 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 근로자 가구
1996	0.225	0.082	0.234	0.251	0.211	0.258	0.266	0.212	0.275
1997	0.223	0.084	0.229	0.262	0.222	0.268	0.284	0.248	0.287
1998	0.230	0.129	0.231	0.314	0.258	0.325	0.308	0.269	0.31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12〉 貧困層의 支出 Gini 係數

연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0.145	0.111	0.185	0.148	0.122	0.185
1997	0.150	0.114	0.182	0.154	0.126	0.186
1998	0.154	0.124	0.181	0.154	0.126	0.18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나. 支出-Sen指數

전가구 가계지출-Sen指數는 '96년에 3.52%에서 '97년에는 3.20%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98년에는 5.61%로 다시 증가하였다. '99년에 들어와서는 5% 수준에서 약간씩 감소, 증가 그리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지출-Sen指數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준은 가계지출-Sen指數보다 다소 높다. 이러한 소비지출-Sen指數와 가계지출-Sen指數의 전반적 추세는 지출-빈곤율과 비슷하다. 그러나 '97~'98년 사이 Sen指數의 增加率이 지출-빈곤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빈곤율, 빈곤갭, 빈곤선 이하의 가구들의 분배상태를 고려하는 Sen指數 결과에 따라 經濟危機로 인해 빈곤의 심도와 소득분배상태도 惡化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表 3-13〉 支出-Sen指數(Sen index)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3.52	2.83	4.61	4.77	4.20	5.66	
1997	3.20	2.36	4.47	4.41	3.66	5.57	
1998	5.61	4.31	7.31	7.67	6.51	9.22	
1999	1/4	4.98 (4.71)	3.85 (3.71)	6.34 (5.92)	6.39	5.36	7.63
	2/4	5.27 (4.96)	4.24 (3.90)	6.56 (6.31)	7.44	6.37	8.77
	3/4	5.35 (4.94)	3.96 (3.77)	7.14 (6.44)	7.10	5.76	8.83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Sen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4. FGT指數(FGT index) 推計

FGT指數는 파라미터 α 의 값에 따라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 정도(depth), 그리고 분배상태의 유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alpha=2$ 인 경우, $FGT_{\alpha=2} = HR[PGR^2 + (1 - PGR)^2 CV^2]$ 로써 여기서 CV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σ/μ)이다.

가. 所得-FGT指數

소득자료를 기초로 FGT指數를 추계한 결과 전가구의 경상소득-FGT指數는 '98년의 경우 4.22%로서 '97년의 2.14%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FGT指數의 전반적 추세는 경상소득-Sen指數와 비슷함을 보이고 있으나, Sen指數보다 빈곤의 심도 그리고 貧困層 소득불평등을 더 고려함으로 분석기간 중 빈곤심도와 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을 경우 Sen指數보다 더 민감해진다. 경상소득-FGT指數는 경상소득-Sen指數와 마찬가지로 비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FGT指數가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FGT指數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상소득-빈곤율에 대한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격차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FGT指數는 貧困率과 빈곤갭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最低生計費 以下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비율이 근로자 가구의 비율보다 높은 것과 함께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의 深度가 더하여져서 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9년도 1/4분기에 들어와 전가구 경상소득-FGT指數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4분기부터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表 3-14〉 所得-FGT指數($\alpha=2$)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정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0.32	0.03	0.81	1.35	0.52	2.72	1.94	0.70	4.08	
1997	0.42	0.03	1.06	1.54	0.50	3.20	2.14	0.72	4.52	
1998	0.77	0.08	1.75	3.97	1.39	7.62	4.22	1.64	8.01	
1999	1/4	0.74	0.11	1.54	4.30	1.55	7.80	5.28 (4.35)	1.96 (1.50)	9.73 (8.15)
	2/4	0.74	0.14	1.53	3.42	1.38	6.05	4.76 (4.67)	1.66 (1.63)	8.98 (8.84)
	3/4	0.66	0.09	1.42	4.30	1.26	6.49	4.36 (5.20)	1.47 (1.73)	8.41 (10.04)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FGT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나. 支出-FGT指數

가계지출-FGT指數는 '96년에 0.85%에서 '97년에는 0.77%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98년에는 1.53%로 다시 증가하였다. '99년 1/4분기에 들어와서는 1.31%로 감소, 그리고 2/4분기부터는 1.41%, 3/4분기에는 1.4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지출-FGT指數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준은 가계지출-FGT指數보다 다소 높으며 전반적 추세는 支出-貧困率과 비슷하다. 그리고 '97~'98기간 중 FGT指數의 증가율이 가계지출-빈곤율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빈곤율, 빈곤갭, 빈곤선 이하의 가구들의 분

배상태를 고려하는 FGT指數 결과에 따라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의 심도와 소득분배상태도 악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表 3-15〉 支出-FGT指數($\alpha=2$)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0.85	0.64	1.17	1.15	0.97	1.44	
1997	0.77	0.53	1.15	1.06	0.83	1.41	
1998	1.53	1.10	2.11	2.12	1.71	2.66	
1999	1/4	1.31 (1.25)	0.93 (0.92)	1.76 (1.64)	1.69	1.32	2.13
	2/4	1.41 (1.29)	1.05 (0.93)	1.87 (1.76)	1.98	1.57	2.48
	3/4	1.44 (1.33)	1.01 (0.96)	1.98 (1.78)	1.96	1.50	2.55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계절 변동요인을 제거한 FGT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 所得-貧困率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정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1/4	2.55	0.78	5.53	8.18	4.14	14.93	10.26 (9.11)	5.20 (4.34)	19.08 (17.26)
	2/4	2.30	0.60	5.19	7.71	3.40	14.95	9.35 (9.25)	4.09 (4.00)	18.59 (18.52)
	3/4	2.31	0.58	5.23	7.16	2.84	14.39	8.56 (9.56)	3.79 (4.41)	16.92 (18.62)
	4/4	2.09	0.40	4.91	6.57	2.82	12.80	9.61 (9.93)	3.72 (4.26)	19.79 (19.66)
	연간	2.31	0.59	5.21	7.41	3.30	14.27	9.45	4.20	18.60
1997	1/4	2.93	0.51	7.01	8.10	3.35	15.88	10.39 (9.22)	4.47 (3.73)	20.66 (18.69)
	2/4	2.62	0.53	6.12	6.95	2.84	13.71	8.85 (8.76)	3.46 (3.39)	18.08 (18.02)
	3/4	2.50	0.36	6.00	7.17	2.34	14.86	8.68 (9.69)	2.99 (3.48)	18.23 (20.06)
	4/4	2.58	0.46	5.97	8.47	2.95	17.23	10.18 (10.52)	3.54 (4.05)	21.21 (21.07)
	연간	2.66	0.46	6.27	7.67	2.87	15.42	9.52	3.62	19.54
1998	1/4	3.82	0.88	8.21	13.82	5.74	25.90	14.67 (13.02)	6.48 (5.41)	27.47 (24.85)
	2/4	4.68	1.28	9.53	15.17	6.21	27.97	15.54 (15.38)	6.84 (6.69)	28.37 (28.27)
	3/4	4.54	1.48	8.79	15.42	6.69	27.51	15.85 (17.70)	7.32 (8.52)	28.10 (30.92)
	4/4	3.97	1.21	7.77	12.70	5.67	22.25	15.16 (15.66)	6.48 (7.42)	27.52 (27.34)
	연간	4.25	1.21	8.57	14.28	6.07	25.90	15.30	6.77	27.87
1999	1/4	4.78	1.62	8.82	17.07	7.76	28.93	19.50 (17.31)	9.01 (7.52)	33.60 (30.40)
	2/4	4.91	1.77	9.05	14.87	7.29	24.74	18.00 (17.82)	8.28 (8.10)	31.26 (31.15)
	3/4	4.41	1.40	8.43	14.21	6.24	24.72	16.33 (18.23)	7.00 (8.15)	29.45 (32.41)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 支出-貧困率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1/4	10.90 (10.68)	10.02 (10.05)	12.32 (11.80)	14.32	14.08	14.70
	2/4	11.82 (11.10)	11.34 (10.38)	12.62 (12.19)	15.89	15.76	16.12
	3/4	11.66 (10.77)	10.61 (9.89)	13.39 (12.22)	14.99	14.34	15.96
	4/4	8.82 (10.60)	7.57 (9.33)	10.88 (12.65)	11.91	11.06	13.30
	연간	10.80	9.89	12.30	14.28	13.83	15.02
1997	1/4	9.38 (9.19)	7.81 (7.83)	11.88 (11.38)	12.38	11.23	14.22
	2/4	9.83 (9.23)	8.79 (8.05)	11.51 (11.12)	13.83	13.17	14.90
	3/4	10.62 (9.81)	8.80 (8.21)	13.47 (12.29)	13.82	12.46	15.94
	4/4	9.04 (10.87)	7.56 (9.32)	11.34 (13.19)	12.65	11.61	14.28
	연간	9.72	8.24	12.05	13.17	12.12	14.84
1998	1/4	14.47 (14.18)	12.32 (12.35)	17.53 (16.79)	19.29	17.87	21.32
	2/4	16.49 (15.49)	14.34 (13.13)	19.45 (18.79)	23.49	22.23	25.23
	3/4	20.27 (18.72)	18.08 (16.86)	23.18 (21.16)	26.08	24.97	27.55
	4/4	11.31 (13.60)	9.52 (11.74)	13.68 (15.91)	15.86	14.46	17.72
	연간	15.63	13.56	18.46	21.18	19.88	22.96
1999	1/4	14.76 (14.46)	12.51 (12.55)	17.49 (16.75)	18.91	16.89	21.36
	2/4	15.18 (14.26)	12.83 (11.74)	18.16 (17.55)	21.19	19.44	23.40
	3/4	15.24 (14.07)	12.56 (11.71)	18.67 (17.04)	20.07	17.79	22.9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 所得-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1/4	29.96	20.29	32.56	34.89	31.85	36.46	37.19 (34.61)	32.90 (30.13)	39.44 (36.74)
	2/4	28.60	18.03	30.95	31.83	26.68	33.99	34.53 (34.13)	27.77 (27.76)	37.29 (36.69)
	3/4	27.44	17.77	29.47	33.99	28.57	35.89	34.40 (35.23)	27.98 (28.22)	37.11 (38.19)
	4/4	30.92	13.16	33.76	31.45	26.10	33.59	36.29 (36.37)	27.58 (28.77)	39.37 (39.26)
	연간	29.20	17.88	31.66	33.13	28.63	35.03	35.68	29.40	38.36
1997	1/4	32.49	18.62	34.53	35.60	30.86	37.39	38.65 (35.97)	32.86 (30.10)	41.01 (38.20)
	2/4	30.71	19.25	32.66	33.84	30.58	35.05	36.38 (35.95)	32.40 (32.39)	37.81 (37.20)
	3/4	31.04	13.98	32.97	35.78	31.98	36.83	37.38 (38.28)	34.16 (34.45)	38.34 (39.45)
	4/4	30.35	19.37	31.93	36.43	31.31	37.97	39.11 (39.20)	34.37 (35.86)	40.55 (40.43)
	연간	31.20	18.09	33.08	35.47	31.13	36.91	37.96	33.38	39.53
1998	1/4	34.94	18.83	37.73	45.51	38.93	47.84	44.98 (41.86)	40.05 (36.68)	46.90 (43.69)
	2/4	35.13	20.61	38.17	45.67	36.36	48.87	44.11 (43.59)	36.46 (36.44)	47.04 (46.28)
	3/4	33.66	21.27	36.97	42.79	35.79	45.32	42.13 (43.14)	36.74 (37.05)	44.29 (45.58)
	4/4	33.02	17.38	36.61	38.63	33.97	40.31	41.66 (41.75)	36.41 (37.99)	43.49 (43.36)
	연간	34.21	19.70	37.40	43.31	36.31	45.80	43.22	37.42	45.42
1999	1/4	30.70	19.14	33.67	41.34	33.37	44.24	43.04 (40.05)	34.67 (31.75)	46.24 (43.08)
	2/4	30.41	20.82	33.19	38.82	32.87	41.28	42.12 (41.63)	33.68 (33.67)	45.38 (44.65)
	3/4	30.07	18.72	32.99	41.00	34.02	43.50	42.72 (43.75)	34.99 (35.29)	45.49 (46.81)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갭 비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 支出-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1/4	21.57 (20.58)	20.59 (19.85)	22.98 (21.81)	21.81	20.71	23.65
	2/4	21.01 (20.32)	19.36 (18.44)	23.61 (23.04)	21.71	20.80	23.25
	3/4	21.64 (21.02)	19.86 (19.59)	24.12 (23.09)	22.51	21.29	24.44
	4/4	20.29 (20.94)	18.89 (19.31)	22.00 (22.96)	21.09	20.05	22.61
	연간	21.17	19.72	23.24	21.81	20.75	23.52
1997	1/4	21.40 (20.42)	19.46 (18.76)	23.63 (22.42)	21.44	19.98	23.43
	2/4	20.86 (20.18)	19.77 (18.83)	22.36 (21.82)	21.24	20.39	22.58
	3/4	21.34 (20.73)	19.21 (18.95)	23.70 (22.69)	22.02	20.41	24.15
	4/4	20.90 (21.57)	19.39 (19.82)	22.64 (23.63)	20.77	19.53	22.49
	연간	21.13	19.46	23.12	21.38	20.10	23.19
1998	1/4	24.10 (23.00)	21.97 (21.18)	26.33 (24.98)	24.22	22.74	26.05
	2/4	24.77 (23.96)	22.75 (21.67)	26.92 (26.26)	25.38	23.49	27.78
	3/4	24.97 (24.25)	22.85 (22.54)	27.28 (26.12)	25.99	24.48	27.88
	4/4	22.51 (23.23)	20.40 (20.85)	23.66 (24.69)	21.82	20.37	23.46
	연간	24.19	22.20	26.29	24.63	23.06	26.57
1999	1/4	22.82 (21.77)	20.98 (20.23)	24.53 (23.28)	23.19	21.93	24.48
	2/4	23.74 (22.96)	22.63 (21.55)	24.81 (24.21)	23.78	22.50	25.21
	3/4	23.54 (22.87)	22.23 (21.93)	24.76 (23.71)	24.35	22.70	26.0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갭 비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 所得-Sen指數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정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1/4	1.17	0.22	2.67	4.27	1.99	8.00	5.61 (4.82)	2.55 (2.05)	10.86 (9.49)
	2/4	1.04	0.14	2.51	3.72	1.36	7.59	4.81 (4.74)	1.69 (1.67)	10.16 (10.02)
	3/4	0.94	0.14	2.21	3.66	1.27	7.58	4.43 (5.08)	1.65 (1.93)	9.14 (10.40)
	4/4	1.02	0.08	2.53	3.13	1.13	6.36	5.08 (5.36)	1.54 (1.84)	10.98 (11.14)
	연간	1.04	0.15	2.49	3.70	1.44	7.39	4.99	1.87	10.29
1997	1/4	1.43	0.13	3.56	4.23	1.52	8.59	5.78 (4.97)	2.12 (1.70)	11.94 (10.44)
	2/4	1.19	0.14	2.88	3.59	1.25	7.37	4.81 (4.74)	1.68 (1.66)	10.13 (9.99)
	3/4	1.14	0.06	2.80	3.71	1.10	7.81	4.79 (5.49)	1.54 (1.81)	10.15 (11.55)
	4/4	1.17	0.11	2.87	4.54	1.46	9.41	5.79 (6.11)	1.88 (2.25)	12.26 (12.44)
	연간	1.24	0.12	3.04	4.02	1.33	8.30	5.29	1.81	11.12
1998	1/4	1.94	0.24	4.34	8.72	3.11	17.00	9.17 (7.88)	3.69 (2.96)	17.62 (15.40)
	2/4	2.31	0.41	4.93	9.68	3.32	18.53	9.61 (9.47)	3.64 (3.59)	18.20 (17.95)
	3/4	2.22	0.48	4.51	9.34	3.49	17.32	9.46 (10.84)	3.88 (4.55)	17.35 (19.74)
	4/4	1.92	0.33	4.02	7.12	2.89	12.77	8.92 (9.42)	3.48 (4.16)	16.54 (16.78)
	연간	2.10	0.36	4.45	8.73	3.20	16.42	9.29	3.67	17.43
1999	1/4	2.16	0.44	4.32	9.94	3.98	17.47	11.75 (10.10)	4.76 (3.82)	21.08 (18.43)
	2/4	2.21	0.56	4.32	8.30	3.66	14.23	10.69 (10.53)	4.16 (4.10)	19.42 (19.15)
	3/4	1.93	0.38	3.97	9.94	3.20	14.72	9.72 (11.14)	3.67 (4.30)	18.18 (20.69)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Sen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6〉 支出-Sen指數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1/4	3.52 (3.33)	2.82 (2.72)	4.62 (4.31)	4.70	4.10	5.63
	2/4	3.86 (3.63)	3.25 (2.99)	4.82 (4.63)	5.34	4.85	6.14
	3/4	3.92 (3.62)	3.14 (2.99)	5.13 (4.63)	5.20	4.62	6.08
	4/4	2.79 (3.55)	2.11 (2.69)	3.86 (4.84)	3.82	3.24	4.77
	연간	3.52	2.83	4.61	4.77	4.20	5.66
1997	1/4	3.22 (3.05)	2.37 (2.28)	4.52 (4.22)	4.19	3.45	5.32
	2/4	3.23 (3.04)	2.48 (2.28)	4.37 (4.20)	4.68	3.98	5.79
	3/4	3.46 (3.19)	2.38 (2.26)	5.07 (4.57)	4.70	3.76	6.09
	4/4	2.89 (3.67)	2.22 (2.83)	3.92 (4.92)	4.07	3.43	5.04
	연간	3.20	2.36	4.47	4.41	3.66	5.57
1998	1/4	5.26 (4.98)	3.95 (3.80)	7.07 (6.60)	6.84	5.68	8.45
	2/4	5.89 (5.55)	4.57 (4.20)	7.63 (7.34)	8.52	7.33	10.09
	3/4	7.57 (6.98)	5.91 (5.62)	9.69 (8.74)	10.00	8.63	11.75
	4/4	3.70 (4.70)	2.83 (3.60)	4.83 (6.06)	5.31	4.37	6.51
	연간	5.61	4.31	7.31	7.67	6.51	9.22
1999	1/4	4.98 (4.71)	3.85 (3.71)	6.34 (5.92)	6.39	5.36	7.63
	2/4	5.27 (4.96)	4.24 (3.90)	6.56 (6.31)	7.44	6.37	8.77
	3/4	5.35 (4.94)	3.96 (3.77)	7.14 (6.44)	7.10	5.76	8.83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Sen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7〉 所得-FGT指數(α=2)

(단위: %)

기간		총수입			소득			정상소득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 자가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1996	1/4	0.35	0.08	0.86	1.62	0.76	3.04	2.24 (1.84)	1.01 (0.77)	4.38 (3.67)
	2/4	0.31	0.03	0.78	1.29	0.46	2.67	1.81 (1.78)	0.61 (0.60)	3.90 (3.84)
	3/4	0.29	0.03	0.73	1.37	0.47	2.86	1.69 (2.01)	0.63 (0.74)	3.52 (4.20)
	4/4	0.33	0.01	0.87	1.11	0.37	2.33	2.01 (2.17)	0.55 (0.71)	4.51 (4.62)
	연간	0.32	0.03	0.81	1.35	0.52	2.72	1.94	0.70	4.08
1997	1/4	0.49	0.03	1.27	1.62	0.56	3.35	2.38 (1.96)	0.84 (0.64)	5.02 (4.20)
	2/4	0.42	0.03	1.05	1.32	0.48	2.69	1.89 (1.86)	0.67 (0.66)	3.95 (3.89)
	3/4	0.38	0.01	0.97	1.43	0.43	3.03	1.89 (2.25)	0.63 (0.74)	3.99 (4.76)
	4/4	0.39	0.03	0.96	1.77	0.53	3.74	2.41 (2.60)	0.76 (0.98)	5.14 (5.26)
	연간	0.42	0.03	1.06	1.54	0.50	3.20	2.14	0.72	4.52
1998	1/4	0.71	0.06	1.68	4.18	1.47	8.24	4.34 (3.57)	1.77 (1.35)	8.35 (6.99)
	2/4	0.87	0.09	2.00	4.60	1.46	9.08	4.47 (4.39)	1.63 (1.60)	8.64 (8.50)
	3/4	0.80	0.11	1.77	4.18	1.47	7.91	4.18 (4.98)	1.68 (1.98)	7.75 (9.25)
	4/4	0.69	0.07	1.55	2.91	1.17	5.28	3.88 (4.19)	1.46 (1.88)	7.24 (7.42)
	연간	0.77	0.08	1.75	3.97	1.39	7.62	4.22	1.64	8.01
1999	1/4	0.74	0.11	1.54	4.30	1.55	7.80	5.28 (4.35)	1.96 (1.50)	9.73 (8.15)
	2/4	0.74	0.14	1.53	3.42	1.38	6.05	4.76 (4.67)	1.66 (1.63)	8.98 (8.84)
	3/4	0.66	0.09	1.42	4.30	1.26	6.49	4.36 (5.20)	1.47 (1.73)	8.41 (10.04)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FGT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8〉 支出-FGT指數($\alpha=2$)

(단위: %)

기간		가계지출			소비지출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996	1/4	0.87 (0.83)	0.69 (0.68)	1.17 (1.09)	1.16	0.98	1.44
	2/4	0.91 (0.83)	0.73 (0.65)	1.21 (1.14)	1.27	1.13	1.51
	3/4	0.94 (0.87)	0.70 (0.66)	1.34 (1.20)	1.26	1.05	1.60
	4/4	0.65 (0.87)	0.45 (0.61)	0.98 (1.27)	0.92	0.73	1.22
	연간	0.85	0.64	1.17	1.15	0.97	1.44
1997	1/4	0.77 (0.73)	0.50 (0.49)	1.18 (1.10)	1.01	0.76	1.40
	2/4	0.79 (0.72)	0.58 (0.51)	1.11 (1.05)	1.13	0.94	1.42
	3/4	0.85 (0.78)	0.55 (0.52)	1.31 (1.18)	1.14	0.86	1.57
	4/4	0.69 (0.92)	0.48 (0.65)	1.01 (1.31)	0.95	0.75	1.26
	연간	0.77	0.53	1.15	1.06	0.83	1.41
1998	1/4	1.40 (1.33)	0.99 (0.97)	1.98 (1.85)	1.87	1.51	2.40
	2/4	1.67 (1.53)	1.20 (1.06)	2.31 (2.18)	2.46	1.98	3.11
	3/4	2.10 (1.94)	1.55 (1.47)	2.83 (2.54)	2.83	2.35	3.45
	4/4	0.95 (1.27)	0.67 (0.91)	1.32 (1.71)	1.30	1.01	1.69
	연간	1.53	1.10	2.11	2.12	1.71	2.66
1999	1/4	1.31 (1.25)	0.93 (0.92)	1.76 (1.64)	1.69	1.32	2.13
	2/4	1.41 (1.29)	1.05 (0.93)	1.87 (1.76)	1.98	1.57	2.48
	3/4	1.44 (1.33)	1.01 (0.96)	1.98 (1.78)	1.96	1.50	2.55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FGT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第 3 節 家口主 特性別 貧困水準

본 절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별·학력별·성별·거주지역별로 빈곤수준을 추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용된 통계자료는 전가구 경상소득이다. 가구주 특성별 빈곤수준을 推計하기 위해 이용된 貧困指數는 빈곤율·빈곤갭·Sen指數·FGT指數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앞에서 다룬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우리나라 빈곤의 모습을 세밀하게 分析할 수 있다.

1. 家口主 年齡別

가. 年齡別 貧困率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빈곤율 추계결과 분석기간 동안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家口主 연령의 가구는 '98년까지는 50대, 그리고 99년 들어와서는 40대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96년과 '97년 사이에 4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7.89%에서 7.88%로 약간 감소하나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53%에서 5.70%로 40대 가구주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減少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구주 연령별 가구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증가하였다. '97년 전가구 經常所得-貧困率은 9.52%로 20대 이하(12.91%), 30대 (9.80%),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17.81%)가 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98년도의 경우 20대 이하(19.68%)와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 빈곤율(24.03%)이 전체 빈곤율(15.30%)를 상회하고 30대 가구주 가구는 전체 빈곤율 이하로 떨어졌다.

연령별 貧困率 順位는 1997년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17.8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12.91%), 30대 가구주 가구(9.80%), 40대 가구주 가구(7.88%) 그리고 50대 가구주 가구(5.70%)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經濟危機가 본격화된 1998년에 들어와서 여전히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가 계속 가장 높은 빈곤율(24.03%)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 그리고 30대, 40대와 50대순으로 높은 貧困率을 기록하여 순위는 변동 없이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계속 가장 낮게 나타났다.

〈表 3-16〉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2.90	9.59	7.89	6.53	16.95
1997		12.91	9.80	7.88	5.70	17.81
1998		19.68	14.93	12.11	11.98	24.03
1999	1/4	21.84 (19.87)	16.22 (13.44)	14.15 (12.82)	14.98 (13.44)	24.15 (22.96)
	2/4	20.36 (19.22)	14.98 (15.88)	11.58 (11.12)	14.43 (14.01)	25.54 (24.11)
	3/4	20.12 (22.94)	13.99 (15.50)	11.32 (13.03)	11.61 (13.65)	20.45 (22.25)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그러나 '97년도 대비 '98년의 연령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은 50대 家口主 家口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10.17%) 다음이 40대(53.68%), 20대 이하(52.44%), 30대 가구주 가구(52.34%) 순으로 서로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

가을(34.92%)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 빈곤율이 가장 낮던 50대 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 貧困率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經濟危機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99년도 1/4분기에 들어와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빈곤율은 증가하였으며 이후 3/4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2/4분기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근로자 가구의 經常所得-貧困率을 보면 전가구 경상소득-빈곤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가구소득이 비근로자 家口所得을 상회하는 결과이며, '96년보다 '97년의 경우 근로자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98년 들어와 약 2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17〉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4.58	4.04	4.63	2.60	6.65	
1997	3.37	3.57	4.09	2.25	6.63	
1998	6.10	7.11	6.51	5.20	12.52	
1999	1/4	6.57	7.62	7.12	6.54	13.38
	2/4	6.18	6.76	5.97	6.94	13.15
	3/4	5.95	6.67	5.00	4.72	9.2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반면에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경상소득-빈곤율을 보면 전가구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8년 들어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2.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18〉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26.56	18.64	13.21	12.94	33.76
1997		28.11	19.96	14.05	11.33	36.03
1998		38.20	27.67	21.23	23.03	42.81
1999	1/4	40.42	30.26	25.61	28.73	41.71
	2/4	38.33	28.40	20.72	26.64	45.73
	3/4	38.22	25.94	21.61	22.86	38.7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이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주 연령의 가구는 '98년까지는 50대 가구주 가구였으나 경제위기의 타격이 가장 심한 연령층 가구로서, '99년 들어와서는 40대의 빈곤율보다 높아져 가장 낮은 빈곤율을 維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60대 이상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貧困率이 가장 심각하며 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年齡別 貧困갭 比率

가구주 연령별 빈곤갭 비율 계측결과 대상기간 중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번갈아 가며 가장 높게 나타났

고 50대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7년과 1998년의 연령별 빈곤갭 비율 순위는 1997년의 경우 20대 이하(43.90%), 60대 이상(43.66%), 30대(37.39%), 40대(33.43%), 50대(28.43%) 순서로 빈곤갭 비율이 낮아졌다. 1998년 들어와서는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48.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46.27%), 30대(41.26%), 40대(39.64%), 그리고 50대(34.63%)의 순서로 낮아졌다. 1997년부터 빈곤율이 가장 낮던 50대 가구주 가구가 貧困의 深度도 가장 낮았고, 반면 貧困率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99년 들어와 빈곤갭 비율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각 연령별 '98년 수준을 중심으로 增減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전가구 경상소득-빈곤갭 비율은 '96년도에 35.68%, 그리고 '97년도에는 37.96%로 상승하였다. '98년도에 들어와 빈곤갭 비율은 43.22%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99년 1/4분기에 들어와 43.04%로 조금 하락하였고 2/4분기에도 42.12%로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는 42.72%로 미미하나마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음을 살펴보았다. 즉, '96년 이후 빈곤갭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나 이에 예외적인 경우로 50대 가구주 가구와 60대 家口主 家口의 빈곤갭 비율은 '97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즉, 우리나라 빈곤의 심도는 '96년 이후 전체적으로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97년대비 '98년 빈곤갭 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50대로 21.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貧困率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빈곤선 주위에 있던 즉, 빈곤선과 가구소득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가구들이 '98년에 貧困線 以下로 많이 떨어졌으므로 이로 인해 빈곤갭 비율은 빈곤율 만큼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同期間 빈곤갭 비율의 증가율 순위는 50대 가구주 가구에 이어 40대(18.58%), 60대

이상(12.00%), 30대(10.35%)의 순서이며 20대 이하의 가구(5.40%)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충격은 50대 가구주 가구에게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表 3-19>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 比率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40.62	33.18	28.53	30.34	44.13	
1997	43.90	37.39	33.43	28.43	43.66	
1998	46.27	41.26	39.64	34.63	48.90	
1999	1/4	49.80	41.64	39.46	34.09	49.13
	2/4	42.98	40.34	39.32	36.69	47.03
	3/4	43.78	39.70	39.66	38.01	47.7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表 3-20>과 <表 3-21>에서 비근로자 가구 빈곤률 비율이 근로자 가구 빈곤률 比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보다 높으나 그 차이가 빈곤율의 차이만큼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근로자가구는 빈곤율뿐만 아니라 貧困의 深度도 더 심각함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의 경우 3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비율이 전체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20〉 家口主 年齡別 貧困갇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33.24	31.68	24.15	27.58	31.60
1997		36.09	37.30	32.06	24.49	26.41
1998		38.87	39.74	37.89	28.82	30.48
1999	1/4	35.93	41.18	36.04	27.96	31.98
	2/4	28.72	39.53	37.51	31.88	28.45
	3/4	35.91	37.00	37.87	33.60	27.5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21〉 家口主 年齡別 貧困갇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40.85	35.61	35.66	34.84	47.48
1997		41.89	37.53	35.66	34.84	47.40
1998		46.72	43.73	42.48	44.11	53.38
1999	1/4	51.16	42.38	45.03	44.08	52.78
	2/4	45.75	41.67	42.28	44.53	51.83
	3/4	44.09	44.09	42.56	45.21	51.9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99년도의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빈곤갇 비율은 年齡別로 각각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98년도에 비해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Sen指數 추계결과 분석기간 동안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 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주 연령의 가구는 '98년까지는 50대, 그리고 '99년 들어와서는 40대의 Sen指數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상의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빈곤율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96년과 '97년 사이에 대부분 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간 증가하나 50대 가구주 가구는 3.24%에서 2.77%로 감소하고 있다. 分析期間 전체를 통해 전가구 경상소득-Sen指數보다 큰 연령층 가구주 가구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이다.

연령별 Sen指數 순위는 1997년의 경우 6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10.03%)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7.35%), 30대 가구주 가구(5.18%), 40대 가구주 가구(3.91%) 그리고 50대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2.77%)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 들어와서 여전히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계속 가장 높은 Sen指數(15.04%)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 그리고 30대, 40대와 50대 순으로 높은 Sen指數를 기록하여 順位는 변동 없이 50대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는 계속 가장 낮게 나타났다.

〈表 3-22〉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

(단위: %)

기간	지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SEN	7.29	4.65	3.66	3.24	9.95	
	FGT _{α=2}	3.04	1.79	1.25	1.17	4.53	
1997	SEN	7.35	5.18	3.91	2.77	10.03	
	FGT _{α=2}	3.27	2.08	1.44	0.99	4.55	
1998	SEN	12.18	8.83	6.91	6.68	15.04	
	FGT _{α=2}	5.61	3.96	3.00	2.89	7.31	
1999	SEN	1/4	14.13 (12.85)	9.42 (7.41)	8.13 (6.98)	8.32 (7.36)	14.92 (13.94)
		2/4	11.63 (10.75)	8.37 (9.09)	6.58 (6.26)	8.07 (7.86)	15.68 (14.76)
		3/4	11.55 (13.62)	8.08 (9.08)	6.49 (7.97)	6.71 (8.03)	12.76 (14.14)
	FGT _{α=2}	1/4	6.97 (6.11)	4.12 (3.12)	3.61 (2.89)	3.56 (3.02)	7.10 (6.42)
		2/4	5.27 (4.76)	3.63 (4.03)	2.86 (2.75)	3.61 (3.49)	7.44 (6.75)
		3/4	5.54 (6.99)	3.43 (3.95)	2.85 (3.74)	3.02 (3.79)	6.11 (7.0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그러나 '97년도 대비 '98년의 연령별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 증가율은 50대 가구주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41.15%) 다음이 40대(76.72%), 30대(70.46%),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65.71%) 순으로 서로 비슷한 增加率을 기록하였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 증가율(49.9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 Sen指數가 가장 낮던 50대 가구주 가구가 經濟危機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 Sen指數가 가장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99년도 1/4분기에 들어와 연령별

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Sen指數는 증가하였으며, 이후 3/4분기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2/4분기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經常所得-Sen指數를 보면 전가구 경상소득-Sen指數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7년에서 '98년에 들어오면서 50대 가구주 근로자가구의 Sen指數가 158.42%로 가장 큰 폭으로 급증하였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도 141.52%, 그리고 30대는 106.63%, 20대는 86.17% 마지막으로 40대는 80.61%로 經濟危機로 인한 Sen指數 증가폭이 全家口의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보아 비근로자 가구의 Sen指數 증가폭보다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表 3-23〉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지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SEN		2.27	1.86	1.76	1.06	3.05
	FGT _{α=2}		0.99	0.78	0.49	0.36	1.21
1997	SEN		1.88	1.96	1.96	0.89	2.36
	FGT _{α=2}		0.86	0.86	0.72	0.28	0.80
1998	SEN		3.50	4.05	3.54	2.30	5.70
	FGT _{α=2}		1.68	1.91	1.55	0.86	2.06
1999	SEN	1/4	3.74	4.53	3.64	3.02	6.38
		2/4	3.06	3.74	3.33	3.20	5.93
		3/4	3.12	3.57	2.70	2.55	4.41
	FGT _{α=2}	1/4	1.57	2.14	1.59	1.17	2.21
		2/4	1.17	1.67	1.46	1.29	1.82
		3/4	1.49	1.46	1.23	0.97	1.6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반면에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경상소득-Sen指數를 보면 전가구 Sen指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8년 들어와 Sen指數 증가율이 가장 높은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Sen指數 증가율이 전년대비 136.83%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층 가구들의 Sen指數 증가율은 40대가 71.01%, 30대가 59.34%, 20대가 49.56% 그리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34.31%의 增加率을 기록하여 근로자 가구의 Sen指數 증가율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경제위기의 충격이 근로자 가구보다 덜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經濟危機는 50대 근로자 가구, 그리고 이보다 다소 낮으나 60대 이상 근로자 가구에 가장 심하게 작용하였으며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도 50대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24〉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빈곤지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SEN		15.54	9.19	6.746	6.80	21.21
	FGT _{α=2}		6.39	3.44	2.49	2.50	9.94
1997	SEN		16.06	10.43	7.085	5.83	22.53
	FGT _{α=2}		7.09	4.07	2.61	2.14	10.66
1998	SEN		24.02	16.62	12.40	13.81	30.26
	FGT _{α=2}		10.97	7.31	5.36	6.21	15.86
1999	SEN	1/4	26.76	17.39	15.46	16.95	28.83
		2/4	22.48	15.92	11.87	16.02	31.57
		3/4	22.32	15.42	12.67	13.50	26.39
	FGT _{α=2}	1/4	13.53	7.35	6.89	7.45	15.08
		2/4	10.46	6.81	5.15	7.38	16.60
		3/4	10.70	6.64	5.50	6.35	13.4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이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Sen指數값이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주 연령의 가구는 '98년까지는 50대 가구주 가구였으나 經濟危機의 타격이 가장 심한 연령층 가구로서, '99년 들어와서는 40대의 Sen指數보다 높아지며 가장 낮은 貧困率을 維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60대 이상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가장 심각하며 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의 貧困水準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아울러 50대 가구주 가구가 經濟위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FGT指數는 Sen指數의 추세와 상당히 흡사하므로 이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附表 3-9〉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全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12.40 (11.28)	10.38 (8.60)	8.75 (7.93)	7.48 (6.71)	19.14 (18.20)
	2/4	13.31 (12.56)	9.18 (9.73)	7.69 (7.38)	7.07 (6.86)	17.07 (16.11)
	3/4	11.94 (13.61)	9.01 (9.98)	7.19 (8.28)	5.05 (5.94)	15.02 (16.34)
	4/4	13.92 (14.43)	9.78 (10.02)	7.95 (7.95)	6.53 (7.02)	16.78 (17.19)
	연간	12.90	9.59	7.89	6.53	16.95
1997	1/4	14.09 (12.82)	11.39 (9.44)	8.70 (7.88)	6.01 (5.39)	18.19 (17.29)
	2/4	14.07 (13.28)	8.27 (8.76)	7.45 (7.15)	5.29 (5.14)	17.73 (16.74)
	3/4	11.02 (12.56)	8.82 (9.77)	6.55 (7.54)	5.64 (6.63)	16.91 (18.40)
	4/4	12.60 (13.06)	10.72 (10.98)	8.78 (8.78)	5.90 (6.34)	18.39 (18.84)
	연간	12.91	9.80	7.88	5.70	17.81
1998	1/4	18.20 (16.56)	15.70 (13.01)	11.12 (10.08)	11.49 (10.31)	22.27 (21.17)
	2/4	18.88 (17.82)	14.51 (15.38)	12.82 (12.31)	12.76 (12.39)	25.53 (24.10)
	3/4	20.19 (23.02)	14.67 (16.25)	12.49 (14.38)	13.22 (15.54)	26.23 (28.54)
	4/4	21.51 (22.30)	14.81 (15.17)	12.01 (12.01)	10.47 (11.25)	22.26 (22.81)
	연간	19.68	14.93	12.11	11.98	24.03
1999	1/4	21.84 (19.87)	16.22 (13.44)	14.15 (12.82)	14.98 (13.44)	24.15 (22.96)
	2/4	20.36 (19.22)	14.98 (15.88)	11.58 (11.12)	14.43 (14.01)	25.54 (24.11)
	3/4	20.12 (22.94)	13.99 (15.50)	11.32 (13.03)	11.61 (13.65)	20.45 (22.25)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0〉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4.79	5.36	5.57	3.23	9.30
	2/4	4.65	3.87	4.57	2.45	6.04
	3/4	4.75	3.40	4.25	2.37	5.61
	4/4	4.13	3.50	4.13	2.34	5.93
	연간	4.58	4.04	4.63	2.60	6.65
1997	1/4	3.30	4.75	5.26	3.03	6.65
	2/4	3.78	3.12	4.39	1.38	6.78
	3/4	3.26	2.97	2.85	2.20	5.56
	4/4	3.11	3.40	3.84	2.43	7.50
	연간	3.37	3.57	4.09	2.25	6.63
1998	1/4	5.76	7.41	5.88	4.43	10.69
	2/4	6.19	6.82	6.72	5.90	13.68
	3/4	5.67	7.33	7.22	6.98	14.01
	4/4	6.87	6.86	6.27	3.53	11.87
	연간	6.10	7.11	6.51	5.20	12.52
1999	1/4	6.57	7.62	7.12	6.54	13.38
	2/4	6.18	6.76	5.97	6.94	13.15
	3/4	5.95	6.67	5.00	4.72	9.2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1〉 家口主 年齡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24.812	18.566	13.949	14.397	35.200
	2/4	27.686	17.853	12.768	14.595	35.068
	3/4	23.735	18.152	11.988	9.412	30.366
	4/4	29.927	20.033	14.170	13.361	34.478
	연간	26.564	18.643	13.217	12.947	33.762
1997	1/4	31.349	22.216	14.312	10.863	37.024
	2/4	30.627	16.656	12.428	11.658	35.579
	3/4	23.132	18.362	12.592	11.247	35.417
	4/4	27.797	22.658	16.835	11.546	36.146
	연간	28.116	19.969	14.052	11.337	36.037
1998	1/4	35.925	29.214	19.660	22.997	41.156
	2/4	36.449	27.045	22.766	23.935	44.851
	3/4	39.467	26.643	21.075	23.412	46.162
	4/4	40.898	27.781	21.375	21.803	39.224
	연간	38.204	27.677	21.235	23.038	42.813
1999	1/4	40.426	30.261	25.616	28.738	41.715
	2/4	38.333	28.400	20.720	26.643	45.739
	3/4	38.226	25.944	21.617	22.862	38.72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2〉 家口主 年齡別 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41.10	36.53	30.02	34.78	43.38
	2/4	38.55	30.31	28.84	26.70	45.22
	3/4	39.27	31.83	25.83	30.28	44.71
	4/4	43.29	32.48	28.70	27.84	43.41
	연간	40.62	33.18	28.53	30.34	44.13
1997	1/4	41.44	36.71	34.73	28.30	43.47
	2/4	42.89	33.31	33.39	30.18	44.81
	3/4	43.33	37.91	31.38	30.58	42.26
	4/4	48.18	41.83	33.42	26.88	44.00
	연간	43.90	37.39	33.43	28.43	43.66
1998	1/4	52.50	42.84	40.38	35.40	50.68
	2/4	48.05	41.21	39.14	34.56	50.71
	3/4	42.51	40.73	39.69	36.12	47.75
	4/4	42.78	40.05	39.56	31.84	46.59
	연간	46.27	41.26	39.64	34.63	48.90
1999	1/4	49.80	41.64	39.46	34.09	49.13
	2/4	42.98	40.34	39.32	36.69	47.03
	3/4	43.78	39.70	39.66	38.01	47.7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3〉 家口主 年齡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38.83	36.29	26.37	30.84	31.74
	2/4	30.01	27.73	25.53	23.04	34.31
	3/4	30.42	30.04	20.56	31.17	34.80
	4/4	33.51	30.24	23.21	23.66	25.41
	연간	33.24	31.68	24.15	27.58	31.60
1997	1/4	41.10	35.36	32.29	21.68	24.80
	2/4	32.44	32.54	33.84	29.62	27.62
	3/4	39.85	38.69	29.18	28.24	26.16
	4/4	30.99	43.51	31.85	21.66	26.83
	연간	36.09	37.30	32.06	24.49	26.41
1998	1/4	51.10	41.27	37.40	30.80	31.60
	2/4	38.84	39.21	36.44	27.07	31.17
	3/4	31.49	39.58	39.83	30.43	28.88
	4/4	33.88	38.63	38.15	26.24	30.63
	연간	38.87	39.74	37.89	28.82	30.48
1999	1/4	35.93	41.18	36.04	27.96	31.98
	2/4	28.72	39.53	37.51	31.88	28.45
	3/4	35.91	37.00	37.87	33.60	27.5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4〉 家口主 年齡別 貧困갭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41.41	36.91	35.97	41.21	47.26
	2/4	38.06	34.50	34.24	32.66	47.96
	3/4	38.03	34.74	34.42	28.81	46.93
	4/4	44.75	36.14	37.64	34.65	47.73
	연간	40.85	35.61	35.66	34.84	47.48
1997	1/4	37.01	38.92	38.69	39.09	48.25
	2/4	42.94	34.57	32.65	31.08	48.73
	3/4	39.42	36.64	34.97	34.40	44.83
	4/4	48.14	39.09	35.98	35.40	47.76
	연간	41.89	37.53	35.66	34.84	47.40
1998	1/4	49.62	45.40	45.24	42.90	55.00
	2/4	50.31	44.48	43.54	46.77	55.81
	3/4	43.17	42.60	39.45	45.40	52.70
	4/4	44.52	42.36	41.86	40.96	50.09
	연간	46.72	43.73	42.48	44.11	53.38
1999	1/4	51.16	42.38	45.03	44.08	52.78
	2/4	45.75	41.67	42.28	44.53	51.83
	3/4	44.09	44.09	42.56	45.21	51.9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5〉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7.41 (6.74)	5.41 (4.26)	4.21 (3.62)	4.08 (3.61)	11.00 (10.28)
	2/4	7.10 (6.56)	4.28 (4.65)	3.58 (3.41)	3.16 (3.08)	10.17 (9.57)
	3/4	6.30 (7.43)	4.33 (4.87)	3.11 (3.82)	2.40 (2.87)	8.93 (9.90)
	4/4	8.16 (8.20)	4.52 (4.80)	3.70 (3.85)	3.25 (3.53)	9.81 (10.10)
	연간	7.29	4.65	3.66	3.24	9.95
1997	1/4	7.41 (6.74)	6.00 (4.72)	4.43 (3.81)	2.97 (2.63)	10.14 (9.47)
	2/4	7.80 (7.21)	3.97 (4.31)	3.65 (3.47)	2.48 (2.41)	9.95 (9.37)
	3/4	6.32 (7.45)	4.70 (5.28)	3.15 (3.87)	2.77 (3.32)	9.22 (10.22)
	4/4	7.65 (7.69)	6.03 (6.40)	4.36 (4.54)	2.85 (3.10)	10.73 (11.05)
	연간	7.35	5.18	3.91	2.77	10.03
1998	1/4	12.00 (10.91)	9.61 (7.56)	6.43 (5.52)	6.33 (5.60)	14.38 (13.43)
	2/4	12.38 (11.44)	8.67 (9.42)	7.36 (7.00)	7.23 (7.04)	15.99 (15.05)
	3/4	11.66 (13.75)	8.50 (9.55)	7.00 (8.60)	7.44 (8.91)	16.05 (17.79)
	4/4	12.47 (12.54)	8.48 (9.00)	6.83 (7.12)	5.64 (6.13)	13.81 (14.22)
	연간	12.18	8.83	6.91	6.68	15.04
1999	1/4	14.13 (12.85)	9.42 (7.41)	8.13 (6.98)	8.32 (7.36)	14.92 (13.94)
	2/4	11.63 (10.75)	8.37 (9.09)	6.58 (6.26)	8.07 (7.86)	15.68 (14.76)
	3/4	11.55 (13.62)	8.08 (9.08)	6.49 (7.97)	6.71 (8.03)	12.76 (14.14)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Sen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6〉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2.57	2.81	2.42	1.50	4.23
	2/4	1.99	1.51	1.84	0.76	2.99
	3/4	2.18	1.61	1.31	1.03	2.94
	4/4	2.29	1.45	1.45	0.88	2.13
	연간	2.27	1.86	1.76	1.06	3.05
1997	1/4	2.02	2.39	2.48	0.93	2.07
	2/4	2.05	1.48	2.26	0.64	2.03
	3/4	1.90	1.72	1.30	1.00	1.90
	4/4	1.50	2.23	1.78	1.00	3.31
	연간	1.88	1.96	1.96	0.89	2.36
1998	1/4	4.12	4.36	3.03	1.88	4.95
	2/4	3.63	3.81	3.56	2.54	5.96
	3/4	2.59	4.15	4.06	3.19	5.97
	4/4	3.37	3.84	3.53	1.54	5.96
	연간	3.50	4.05	3.54	2.30	5.70
1999	1/4	3.74	4.53	3.64	3.02	6.38
	2/4	3.06	3.74	3.33	3.20	5.93
	3/4	3.12	3.57	2.70	2.55	4.41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7〉 家口主 年齡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15.30	9.64	7.13	8.29	22.04
	2/4	15.57	8.81	6.43	7.07	21.87
	3/4	13.06	8.76	6.04	4.63	18.69
	4/4	17.77	9.54	7.36	7.11	22.35
	연간	15.54	9.19	6.75	6.81	21.21
1997	1/4	16.03	11.89	7.62	6.29	23.31
	2/4	17.06	8.037	5.91	5.49	22.86
	3/4	13.22	9.569	6.17	5.65	21.16
	4/4	17.51	12.23	8.58	5.87	22.83
	연간	16.07	10.44	7.09	5.83	22.53
1998	1/4	23.23	18.17	11.98	13.59	29.77
	2/4	24.49	16.60	13.56	14.89	32.36
	3/4	23.70	15.61	11.79	14.37	32.48
	4/4	24.52	16.06	12.22	12.31	26.62
	연간	24.02	16.62	12.41	13.82	30.26
1999	1/4	26.76	17.40	15.47	16.96	28.84
	2/4	22.49	15.93	11.87	16.02	31.58
	3/4	22.33	15.43	12.67	13.51	26.3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8〉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2$, 全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2.90 (2.54)	2.14 (1.62)	1.49 (1.19)	1.73 (1.47)	4.89 (4.42)
	2/4	2.90 (2.62)	1.57 (1.74)	1.15 (1.11)	1.03 (1.00)	4.77 (4.33)
	3/4	2.52 (3.18)	1.65 (1.90)	1.03 (1.35)	0.80 (1.00)	4.11 (4.76)
	4/4	3.84 (3.73)	1.80 (1.93)	1.35 (1.44)	1.14 (1.30)	4.43 (4.71)
	연간	3.04	1.79	1.25	1.17	4.53
1997	1/4	3.28 (2.88)	2.43 (1.84)	1.72 (1.38)	1.12 (0.95)	4.82 (4.36)
	2/4	3.49 (3.15)	1.49 (1.65)	1.29 (1.24)	0.83 (0.80)	4.66 (4.23)
	3/4	2.71 (3.42)	1.90 (2.19)	1.12 (1.47)	1.01 (1.27)	3.86 (4.47)
	4/4	3.60 (3.49)	2.52 (2.71)	1.65 (1.77)	1.01 (1.15)	4.87 (5.18)
	연간	3.27	2.08	1.44	0.99	4.55
1998	1/4	6.15 (5.40)	4.52 (3.42)	2.94 (2.36)	2.76 (2.34)	7.17 (6.48)
	2/4	6.06 (5.48)	3.94 (4.37)	3.23 (3.10)	3.32 (3.21)	8.15 (7.39)
	3/4	4.84 (6.11)	3.76 (4.33)	2.92 (3.83)	3.18 (3.99)	7.69 (8.91)
	4/4	5.38 (5.22)	3.64 (3.91)	2.92 (3.12)	2.34 (2.66)	6.36 (6.77)
	연간	5.61	3.96	3.00	2.89	7.31
1999	1/4	6.97 (6.11)	4.12 (3.12)	3.61 (2.89)	3.56 (3.02)	7.10 (6.42)
	2/4	5.27 (4.76)	3.63 (4.03)	2.86 (2.75)	3.61 (3.49)	7.44 (6.75)
	3/4	5.54 (6.99)	3.43 (3.95)	2.85 (3.74)	3.02 (3.79)	6.11 (7.0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FGT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19〉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2$, 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1.29	1.22	0.72	0.57	1.45
	2/4	0.89	0.60	0.47	0.23	1.25
	3/4	0.90	0.70	0.37	0.38	1.33
	4/4	0.92	0.58	0.41	0.25	0.90
	연간	0.99	0.78	0.49	0.36	1.21
1997	1/4	0.93	1.02	0.92	0.24	0.80
	2/4	0.89	0.61	0.86	0.23	0.82
	3/4	1.01	0.77	0.43	0.38	0.55
	4/4	0.61	1.05	0.68	0.26	1.03
	연간	0.86	0.86	0.72	0.28	0.80
1998	1/4	2.35	2.17	1.36	0.75	1.92
	2/4	1.78	1.77	1.56	1.07	2.37
	3/4	1.10	1.96	1.80	1.16	2.09
	4/4	1.43	1.74	1.49	0.50	1.95
	연간	1.68	1.91	1.55	0.86	2.06
1999	1/4	1.57	2.14	1.59	1.17	2.21
	2/4	1.17	1.67	1.46	1.29	1.82
	3/4	1.49	1.46	1.23	0.97	1.6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0〉 家口主 年齡別 FGT指數($\alpha=2$, 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6	1/4	5.52	3.63	2.73	3.61	10.50
	2/4	6.23	3.16	2.27	2.34	10.51
	3/4	5.16	3.20	2.11	1.48	8.65
	4/4	8.60	3.78	2.87	2.59	10.17
	연간	6.39	3.44	2.49	2.50	9.94
1997	1/4	7.02	4.72	3.01	2.55	11.36
	2/4	7.67	2.92	1.99	1.79	10.92
	3/4	5.35	3.75	2.23	2.02	9.26
	4/4	8.37	4.91	3.23	2.23	11.13
	연간	7.09	4.07	2.61	2.14	10.66
1998	1/4	11.55	8.35	5.52	6.02	15.73
	2/4	11.97	7.46	5.95	6.99	17.56
	3/4	9.80	6.68	4.75	6.48	16.82
	4/4	10.61	6.75	5.26	5.35	13.56
	연간	10.97	7.31	5.36	6.21	15.86
1999	1/4	13.53	7.35	6.89	7.45	15.08
	2/4	10.46	6.81	5.15	7.38	16.60
	3/4	10.70	6.64	5.50	6.35	13.4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2. 家口主 學歷別

가. 學歷別 貧困率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빈곤율 추계결과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 순위는 大學校, 高等學校, 中學校, 初等學校 卒業 家口主 家口의 순서로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구분도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96년과 '97년 사이에 대졸 및 고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5.77%에서 5.56%, 그리고 8.79%에서 8.36%로 약간씩 減少하나 초등학교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26%에서 20.35%로, 그리고 중학교졸 가구주 가구는 10.78%에서 11.23%로 증가하였다.

'97년과 '98년 사이, 즉, 經濟危機 後 학력별 貧困率 順位는 변화가 없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97년과 '98년 사이 빈곤율 증가율은 중학교(75.24%) > 고등학교(65.90%) > 대졸 이상(58.09%) > 초등학교(41.86%)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나 경제위기는 중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가구주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推定된다.

'99년 1/4분기 들어와 모든 가구에서 貧困率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빈곤율은 모두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나 대졸 가구의 경우 2/4분기에 빈곤율이 더욱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表 3-25〉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9.26	10.78	8.79	5.77
1997		20.35	11.23	8.36	5.56
1998		28.87	19.68	13.87	8.79
1999	1/4	36.25 (33.25)	26.85 (24.72)	17.28 (14.67)	10.35 (9.27)
	2/4	35.44 (34.47)	23.05 (21.91)	15.28 (15.94)	12.52 (12.01)
	3/4	30.52 (33.67)	20.85 (23.26)	14.69 (16.28)	10.87 (13.02)

註: 괄호안 수치는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26〉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9.56	6.56	3.91	1.71
1997		8.70	5.59	3.36	1.27
1998		14.97	12.44	7.21	2.28
1999	1/4	22.17	15.32	9.15	3.07
	2/4	20.67	12.85	7.99	6.61
	3/4	15.15	9.53	7.09	6.4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27〉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35.19	17.67	16.73	12.38
1997		38.91	20.43	16.50	12.56
1998		47.82	31.48	24.74	19.41
1999	1/4	53.39	45.66	30.54	22.23
	2/4	54.14	39.69	27.16	22.17
	3/4	50.16	39.30	27.09	18.1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빈곤율을 보면 비근로자 가구 경상소득-빈곤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자 가구의 경우나 비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의 경우 모두 학력별 貧困率 순서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비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99년 들어와 50%를 넘고있는 바와 같이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역시 비근로자 가구중 가구주가 중학교만을 卒業한 가구의 빈곤율도 '99년 1/4분기에 45.66%까지 상승하여 역시 그 심각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學歷別 貧困갭 比率

家口主 학력별 빈곤갭 비율 계측결과 '97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낮게 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가구는 빈곤율도 가장 높았으므로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겠다. 학력별 빈곤갭 비율 순위는 貧困率 順位처럼 학력별로 분명

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家口主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中學校와 高等學校 卒業 家口主 家口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이나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고 하겠다.

〈表 3-28〉 家口主 學歷別 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 이상	
1996	41.16	35.15	35.99	33.85	
1997	44.20	36.28	38.17	37.11	
1998	48.47	42.78	42.52	42.59	
1999	1/4	49.48	44.76	41.61	40.62
	2/4	48.98	40.92	40.89	40.53
	3/4	48.77	41.65	40.32	41.2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29〉 家口主 學歷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24.93	29.59	32.07	29.74	
1997	28.62	29.92	36.23	41.7	
1998	32.55	33.19	38.24	49.41	
1999	1/4	30.78	34.41	36.32	32.20
	2/4	30.08	29.63	35.70	40.05
	3/4	32.54	33.47	34.58	36.0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30〉 家口主 學歷別 貧困갇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45.98	36.18	36.39	34.39
1997		47.42	37.03	37.55	35.11
1998		52.14	45.84	43.82	40.21
1999	1/4	53.61	47.65	42.98	43.05
	2/4	53.83	46.07	41.39	42.07
	3/4	51.71	47.48	42.94	43.6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다.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Sen指數와 FGT指數 추계결과는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의 추계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가구주 학력별 Sen指數와 FGT指數는 모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순서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 구분도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96년과 '97년 사이에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상승하고 대졸 및 고졸 가구주 가구의 貧困率은 약간씩 감소하나 Sen指數의 경우 고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갇과 最低生計費 이하 가구들의 분배상태를 고려할 경우 대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97년에 들어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빈곤갇과 所得分配의 영향을 더욱 고려한 FGT指數의 경우 고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經濟危機가 본격화된 '98년에 들어와서도 학력별 빈곤수준 순위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빈곤율, Sen指數, FGT指數중 어떤 지수를 적용해도 같은 순위로 결과되고 있다. 그러나 '97년과 '98년 사이 貧困指數 증가율 순위는 빈곤율이나 Sen指數 그리고 FGT指數의 경우 모두 같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순위는 중학교(Sen 95.17%, FGT 130.37%), 고등학교(Sen 85.94%, FGT 105.11%), 대졸 이상(Sen 67.75%, 92.5%), 초등학교(Sen 51.67%, FGT 67.86%)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즉,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나 경제위기는 중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가구주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99년 1/4분기 들어와 모든 家口에서 Sen指數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모두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나 大卒 家口의 경우 2/4분기에 Sen指數가 더욱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FGT指數의 경우 1/4분기에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 대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감소하였으며 3/4분기에 들어와 중학교 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減少하였다.

6) '96년과 '97년 사이 우리나라의 Sen 指數와 FGT 指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1〉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SEN	10.68	5.29	4.46	2.76	
	FGT _{α=2}	4.50	1.99	1.72	1.04	
1997	SEN	11.94	5.60	4.41	3.07	
	FGT _{α=2}	5.29	2.14	1.76	1.20	
1998	SEN	18.11	10.93	8.20	5.15	
	FGT _{α=2}	8.88	4.93	3.61	2.31	
1999	SEN	1/4	22.58 (20.13)	15.84 (14.39)	10.03 (8.14)	5.88 (5.18)
		2/4	21.56 (20.88)	12.75 (11.73)	8.60 (9.00)	7.31 (7.16)
		3/4	18.94 (21.42)	12.26 (14.17)	8.32 (9.41)	6.37 (7.95)
	FGT _{α=2}	1/4	10.82 (9.24)	7.34 (6.46)	4.25 (3.30)	2.63 (2.24)
		2/4	10.80 (10.33)	5.65 (5.16)	3.60 (3.79)	3.25 (3.24)
		3/4	9.07 (10.58)	5.70 (6.92)	3.55 (4.13)	2.83 (3.6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Sen指數와 FGT指數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학력별 경상소득-Sen指數를 보면 비근로자 가구 경상소득-Sen指數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자 가구의 경우나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모두 학력별 貧困率 順序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表 3-32〉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SEN	3.63	2.96	1.85	0.79	
	FGT _{α=2}	1.06	1.09	0.77	0.32	
1997	SEN	3.63	2.41	1.82	0.80	
	FGT _{α=2}	1.23	0.91	0.79	0.38	
1998	SEN	6.94	5.94	4.01	1.60	
	FGT _{α=2}	2.66	2.48	1.83	0.86	
1999	SEN	1/4	10.75	7.90	5.03	1.54
		2/4	8.80	5.55	4.31	3.86
		3/4	6.98	4.72	3.82	3.56
	FGT _{α=2}	1/4	3.63	3.57	2.10	0.67
		2/4	3.14	2.06	1.77	1.87
		3/4	2.62	1.99	1.46	1.5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33〉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SEN	22.24	9.09	8.71	5.97	
	FGT _{α=2}	10.15	3.47	3.27	2.22	
1997	SEN	25.16	10.80	8.62	6.78	
	FGT _{α=2}	11.76	4.14	3.34	2.54	
1998	SEN	33.34	19.07	15.03	10.93	
	FGT _{α=2}	17.36	8.93	6.52	4.67	
1999	SEN	1/4	36.97	28.78	18.19	12.96
		2/4	37.71	24.49	15.60	12.93
		3/4	34.22	24.55	15.67	10.94
	FGT _{α=2}	1/4	19.56	13.48	7.74	5.81
		2/4	20.50	11.50	6.59	5.49
		3/4	17.31	11.74	6.95	4.8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1〉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21.20 (19.45)	12.42 (11.43)	9.19 (7.80)	6.13 (5.49)
	2/4	18.49 (17.99)	10.11 (9.61)	8.96 (9.35)	6.02 (5.78)
	3/4	17.33 (19.12)	9.86 (11.00)	8.12 (9.00)	5.13 (6.15)
	4/4	19.95 (20.45)	10.73 (11.35)	8.86 (9.30)	5.78 (5.80)
	연간	19.26	10.78	8.79	5.77
1997	1/4	22.67 (20.79)	11.91 (10.97)	9.50 (8.07)	5.68 (5.08)
	2/4	19.20 (18.68)	10.82 (10.28)	7.26 (7.57)	5.74 (5.51)
	3/4	18.77 (20.71)	10.16 (11.33)	7.75 (8.59)	4.48 (5.37)
	4/4	20.83 (21.35)	12.03 (12.73)	8.91 (9.35)	6.31 (6.33)
	연간	20.35	11.23	8.36	5.56
1998	1/4	26.33 (24.15)	17.27 (15.90)	14.31 (12.15)	8.84 (7.91)
	2/4	30.57 (29.74)	20.67 (19.65)	13.67 (14.26)	8.52 (8.17)
	3/4	31.89 (35.19)	21.06 (23.49)	14.05 (15.57)	8.22 (9.85)
	4/4	26.70 (27.37)	19.71 (20.85)	13.47 (14.14)	9.60 (9.63)
	연간	28.87	19.68	13.87	8.79
1999	1/4	36.25 (33.25)	26.85 (24.72)	17.28 (14.67)	10.35 (9.27)
	2/4	35.44 (34.47)	23.05 (21.91)	15.28 (15.94)	12.52 (12.01)
	3/4	30.52 (33.67)	20.85 (23.26)	14.69 (16.28)	10.87 (13.02)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빈곤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2〉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11.66	8.51	4.79	2.06
	2/4	9.23	5.45	4.07	1.82
	3/4	8.27	6.33	3.56	1.48
	4/4	9.06	5.95	3.22	1.46
	연간	9.56	6.56	3.91	1.71
1997	1/4	12.31	6.36	4.12	1.33
	2/4	6.88	5.66	3.35	1.38
	3/4	7.37	4.42	2.76	1.09
	4/4	8.33	5.87	3.19	1.27
	연간	8.70	5.59	3.36	1.27
1998	1/4	12.49	10.62	7.43	2.48
	2/4	16.84	12.24	7.01	2.38
	3/4	18.50	13.45	7.41	2.28
	4/4	12.18	13.47	6.98	1.95
	연간	14.97	12.44	7.21	2.28
1999	1/4	22.17	15.32	9.15	3.07
	2/4	20.67	12.85	7.99	6.61
	3/4	15.15	9.53	7.09	6.4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3〉 家口主 學歷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36.76	18.78	16.37	12.75
	2/4	33.86	17.72	16.94	12.86
	3/4	32.20	15.61	15.54	11.08
	4/4	37.74	18.51	18.05	12.82
	연간	35.19	17.67	16.73	12.38
1997	1/4	39.25	20.95	18.26	12.77
	2/4	39.01	19.23	13.64	12.84
	3/4	36.57	19.52	15.87	10.00
	4/4	40.85	22.07	18.23	14.54
	연간	38.91	20.43	16.50	12.56
1998	1/4	46.05	28.11	25.53	19.22
	2/4	49.56	34.40	24.52	18.53
	3/4	49.67	33.47	24.88	17.90
	4/4	45.92	29.88	24.05	22.08
	연간	47.82	31.48	24.74	19.41
1999	1/4	53.39	45.66	30.54	22.23
	2/4	54.14	39.69	27.16	22.17
	3/4	50.16	39.30	27.09	18.1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4〉 家口主 學歷別 貧困峇 比率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40.92	39.49	37.02	35.17
	2/4	40.86	32.61	34.90	32.39
	3/4	40.95	32.48	35.03	31.24
	4/4	41.94	35.23	36.81	36.24
	연간	41.16	35.15	35.99	33.85
1997	1/4	46.02	36.93	39.97	36.09
	2/4	42.71	36.28	35.60	33.84
	3/4	43.30	34.85	38.43	35.56
	4/4	44.39	36.94	38.06	42.05
	연간	44.20	36.28	38.17	37.11
1998	1/4	50.40	43.60	45.68	46.11
	2/4	49.16	43.69	44.34	43.30
	3/4	49.57	42.09	41.66	41.29
	4/4	44.38	42.84	41.10	40.10
	연간	48.47	42.78	42.52	42.59
1999	1/4	49.48	44.76	41.61	40.62
	2/4	48.98	40.92	40.89	40.53
	3/4	48.77	41.65	40.32	41.2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5〉 家口主 學歷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27.30	35.25	35.59	31.37
	2/4	22.57	29.76	29.98	27.89
	3/1	26.20	28.25	29.26	26.82
	4/4	22.98	22.87	32.35	32.49
	연간	24.93	29.59	32.07	29.74
1997	1/4	29.07	26.72	38.00	39.44
	2/4	28.09	32.84	34.37	32.24
	3/4	29.42	29.92	37.94	40.26
	4/4	27.61	30.88	34.41	55.96
	연간	28.62	29.92	36.23	41.7
1998	1/4	34.16	32.38	39.38	61.47
	2/4	30.05	34.15	36.92	48.91
	3/4	33.58	34.58	38.46	39.86
	4/4	32.78	31.46	38.03	46.12
	연간	32.55	33.19	38.24	49.41
1999	1/4	30.78	34.41	36.32	32.20
	2/4	30.08	29.63	35.70	40.05
	3/4	32.54	33.47	34.58	36.0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6〉 家口主 學歷別 貧困갭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45.76	40.20	36.56	35.81
	2/4	46.42	32.76	35.73	33.15
	3/4	45.07	33.00	36.04	31.87
	4/4	46.60	38.04	37.15	36.38
	연간	45.98	36.18	36.39	34.39
1997	1/4	50.11	39.04	39.11	33.54
	2/4	45.89	36.23	34.89	33.29
	3/4	45.27	34.83	37.15	34.28
	4/4	48.04	37.87	38.32	38.79
	연간	47.42	37.03	37.55	35.11
1998	1/4	53.77	46.87	46.29	39.31
	2/4	54.17	46.96	45.58	40.21
	3/4	53.47	43.30	41.39	40.43
	4/4	46.59	46.31	42.03	40.79
	연간	52.14	45.84	43.82	40.21
1999	1/4	53.61	47.65	42.98	43.05
	2/4	53.83	46.07	41.39	42.07
	3/4	51.71	47.48	42.94	43.6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7〉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11.70 (10.43)	6.74 (6.12)	4.85 (3.93)	3.06 (2.69)
	2/4	10.01 (9.69)	4.89 (4.50)	4.36 (4.56)	2.92 (2.86)
	3/4	9.72 (10.99)	4.60 (5.32)	4.04 (4.57)	2.26 (2.82)
	4/4	11.17 (11.62)	4.89 (5.38)	4.53 (4.92)	2.76 (2.73)
	연간	10.68	5.29	4.46	2.76
1997	1/4	13.25 (11.81)	5.69 (5.17)	5.15 (4.18)	2.92 (2.57)
	2/4	11.36 (11.00)	5.49 (5.05)	3.66 (3.83)	2.95 (2.89)
	3/4	10.58 (11.96)	4.99 (5.77)	4.11 (4.65)	2.54 (3.17)
	4/4	12.51 (13.01)	6.20 (6.82)	4.70 (5.10)	3.83 (3.79)
	연간	11.94	5.60	4.41	3.07
1998	1/4	17.01 (15.16)	9.75 (8.86)	8.71 (7.07)	5.25 (4.62)
	2/4	18.96 (18.36)	11.76 (10.82)	8.24 (8.63)	4.96 (4.86)
	3/4	20.09 (22.72)	11.32 (13.09)	8.06 (9.12)	4.71 (5.88)
	4/4	16.18 (16.83)	10.73 (11.80)	7.76 (8.42)	5.57 (5.51)
	연간	18.11	10.93	8.20	5.15
1999	1/4	22.58 (20.13)	15.84 (14.39)	10.03 (8.14)	5.88 (5.18)
	2/4	21.56 (20.88)	12.75 (11.73)	8.60 (9.00)	7.31 (7.16)
	3/4	18.94 (21.42)	12.26 (14.17)	8.32 (9.41)	6.37 (7.95)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Sen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8〉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4.76	4.34	2.52	1.00
	2/4	3.16	2.55	1.76	0.73
	3/4	3.33	2.97	1.49	0.70
	4/4	3.12	1.99	1.56	0.71
	연간	3.63	2.96	1.85	0.79
1997	1/4	5.16	2.24	2.30	0.77
	2/4	2.77	2.66	1.75	0.67
	3/4	3.08	1.96	1.54	0.71
	4/4	3.56	2.72	1.68	1.00
	연간	3.63	2.41	1.82	0.80
1998	1/4	5.82	4.68	4.28	1.96
	2/4	7.47	6.00	3.72	1.70
	3/4	8.63	6.52	4.04	1.38
	4/4	5.81	6.42	3.94	1.20
	연간	6.94	5.94	4.01	1.60
1999	1/4	10.75	7.90	5.03	1.54
	2/4	8.80	5.55	4.31	3.86
	3/4	6.98	4.72	3.82	3.5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29〉 家口主 學歷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23.02	10.65	8.65	6.41
	2/4	21.36	8.70	8.60	6.50
	3/4	20.21	7.25	8.18	4.80
	4/4	24.32	9.61	9.38	6.10
	연간	22.24	9.09	8.71	5.97
1997	1/4	26.20	11.32	9.78	6.41
	2/4	25.17	10.09	6.78	6.66
	3/4	22.30	9.92	8.29	5.53
	4/4	26.85	11.87	9.62	8.45
	연간	25.16	10.80	8.62	6.78
1998	1/4	32.95	18.02	15.93	10.61
	2/4	34.87	21.16	15.62	10.28
	3/4	35.31	19.15	14.62	10.13
	4/4	29.90	17.76	13.98	12.68
	연간	33.34	19.07	15.03	10.93
1999	1/4	36.97	28.78	18.19	12.96
	2/4	37.71	24.49	15.60	12.93
	3/4	34.22	24.55	15.67	10.9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0〉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全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5.01 (4.28)	2.74 (2.41)	1.92 (1.49)	1.15 (0.98)
	2/4	4.18 (4.00)	1.67 (1.52)	1.67 (1.76)	1.04 (1.04)
	3/4	4.10 (4.78)	1.69 (2.05)	1.53 (1.78)	0.85 (1.11)
	4/4	4.71 (5.11)	1.89 (2.10)	1.78 (1.98)	1.16 (1.12)
	연간	4.50	1.99	1.72	1.04
1997	1/4	6.11 (5.22)	2.23 (1.96)	2.08 (1.62)	1.14 (0.97)
	2/4	4.99 (4.77)	2.03 (1.85)	1.39 (1.46)	1.11 (1.11)
	3/4	4.54 (5.30)	1.83 (2.22)	1.66 (1.93)	0.98 (1.27)
	4/4	5.54 (6.01)	2.48 (2.76)	1.93 (2.14)	1.60 (1.55)
	연간	5.29	2.14	1.76	1.20
1998	1/4	8.50 (7.26)	4.43 (3.90)	4.09 (3.18)	2.50 (2.13)
	2/4	9.56 (9.14)	5.50 (5.02)	3.74 (3.94)	2.25 (2.24)
	3/4	9.97 (11.63)	4.93 (5.98)	3.43 (3.99)	2.03 (2.64)
	4/4	7.46 (8.10)	4.89 (5.44)	3.21 (3.56)	2.48 (2.40)
	연간	8.88	4.93	3.61	2.31
1999	1/4	10.82 (9.24)	7.34 (6.46)	4.25 (3.30)	2.63 (2.24)
	2/4	10.80 (10.33)	5.65 (5.16)	3.60 (3.79)	3.25 (3.24)
	3/4	9.07 (10.58)	5.70 (6.92)	3.55 (4.13)	2.83 (3.68)

註: 괄호안 수치는 比率移動平均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季節變動要因을 제거한 FGT지수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1〉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1.45	1.83	1.10	0.40
	2/4	0.79	0.84	0.73	0.29
	3/4	1.08	1.08	0.64	0.31
	4/4	0.92	0.63	0.62	0.31
	연간	1.06	1.09	0.77	0.32
1997	1/4	1.76	0.79	0.99	0.37
	2/4	0.98	1.07	0.75	0.28
	3/4	1.13	0.75	0.72	0.31
	4/4	1.09	1.03	0.72	0.56
	연간	1.23	0.91	0.79	0.38
1998	1/4	2.26	1.98	2.06	1.23
	2/4	2.93	2.56	1.75	0.88
	3/4	3.37	2.77	1.85	0.67
	4/4	2.14	2.64	1.65	0.65
	연간	2.66	2.48	1.83	0.86
1999	1/4	3.63	3.57	2.10	0.67
	2/4	3.14	2.06	1.77	1.87
	3/4	2.62	1.99	1.46	1.5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2〉 家口主 學歷別 FGT指數($\alpha=2$, 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6	1/4	10.82	4.22	3.25	2.37
	2/4	9.80	3.01	3.20	2.25
	3/4	9.04	2.69	2.98	1.72
	4/4	10.90	3.95	3.66	2.54
	연간	10.15	3.47	3.27	2.22
1997	1/4	13.08	4.57	3.85	2.39
	2/4	11.44	3.60	2.43	2.46
	3/4	9.86	3.60	3.19	2.06
	4/4	12.66	4.83	3.89	3.28
	연간	11.76	4.14	3.34	2.54
1998	1/4	17.40	8.41	7.40	4.58
	2/4	18.74	10.29	6.98	4.47
	3/4	18.74	8.44	5.99	4.25
	4/4	14.51	8.56	5.76	5.47
	연간	17.36	8.93	6.52	4.67
1999	1/4	19.56	13.48	7.74	5.81
	2/4	20.50	11.50	6.59	5.49
	3/4	17.31	11.74	6.95	4.8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3. 家口主 性別

가. 性別 貧困率

家口主가 남성이거나 여성인 경우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다. <表 3-34>를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97년에는 7.57%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5.86%에 이르러 2.1배정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男性家口主 가구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격차가 '98년에 들어와 1.68로 다소 줄었으나 99년 들어와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比率이 99년 1/4분기에는 2.23, 2/4분기에는 2.09, 그리고 3/4분기에는 1.93으로 나타났다.

<表 3-34> 家口主 性別 貧困率

(단위: %)

기간	남성(A)	여성(B)	B/A	
1996	8.01	17.49	2.18	
1997	7.57	15.86	2.10	
1998	12.26	20.55	1.68	
1999	1/4	17.70	39.48	2.23
	2/4	16.04	33.56	2.09
	3/4	14.89	28.80	1.9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성별 빈곤율의 차이를 보면 근로자 가구의 경우 女性 家口主 貧困率은 '97년도에 최저치인 7.99%를 기록하였으며 '99년도 2/4분기에는 19.4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男性家口主 가구의 경우 역시 '97년도에 최저치인 2.88%를 기

록하였으며 '99년도 2/4분기에 6.44%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대 男性 家口主 가구 貧困率의 비율이 '98년에 2.52배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96년에 3.37배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비율은 비근로자 가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가구 빈곤율대 남성 가구주 가구 빈곤율의 비율이 1.17배('98년)에서 1.60배(99년 1/4분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비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性別 貧困率 차이보다는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性別 빈곤율 차이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시장내에서 일반적으로 女性の 勤勞與件이 남성보다 취약하며 이러한 사실은 低所得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35〉 家口主 性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A)	여성(B)	B/A	
1996	3.16	10.65	3.37	
1997	2.88	7.99	2.77	
1998	5.81	14.24	2.45	
1999	1/4	6.22	15.68	2.52
	2/4	6.44	19.47	3.02
	3/4	5.83	15.62	2.6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비근로자 가구의 貧困率이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근로자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빈곤율이 '99년 1/4분기에 52.59%까지 상승한 것은 이들 가구의 貧困問題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 비록 이들 가구가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46.39%와 41.22%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그 빈곤수준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에 대한 對策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表 3-36〉 家口主 性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A)	여성(B)	B/A	
1996	16.98	25.98	1.53	
1997	17.74	28.10	1.58	
1998	27.08	31.79	1.17	
1999	1/4	32.80	52.59	1.60
	2/4	30.40	46.39	1.52
	3/4	28.85	41.22	1.4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나. 家口主 性別 貧困갭 比率

앞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으나 家口主 性別 빈곤갭 비율의 계측결과를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의 크기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貧困 深度를 비교하기 어렵다.

〈表 3-37〉 家口主 性別 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34.64	37.67	
1997	37.31	38.71	
1998	44.70	41.43	
1999	1/4	43.61	42.52
	2/4	43.00	42.05
	3/4	42.59	42.9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 를 이용하여 추계

<表 3-37>을 보면 '96년과 '97년에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98년부터 99년 2/4분기까지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女性 家口主 家口의 빈곤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99년 3/4분기에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보다 0.34% 포인트 높게 계산되었다.

한편 勤勞者家口의 경우 남성 가구주 가구 빈곤갭 비율이 여성 가구주 가구 빈곤갭 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가구 빈곤갭 比率이 더 높게 나타났다.

'96년부터 '98년까지 근로자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증가추세였으나 '99년에 들어와 남성 근로자가구의 경우 약간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성근로자가구의 경우 増減을 거듭하며 약간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非勤勞者家口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表 3-38> 家口主 性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31.62	25.20
1997		37.12	25.08
1998		39.51	30.38
1999	1/4	39.72	29.59
	2/4	37.32	33.07
	3/4	38.07	32.2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39> 家口主 性別 貧困갭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36.65	44.33
1997		38.22	44.17
1998		45.00	47.30
1999	1/4	45.73	47.18
	2/4	44.91	46.68
	3/4	44.34	47.2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다.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Sen指數와 FGT指數의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 이는 빈곤율의 경우에서 이미 파악된 점이다. <表 3-40>을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Sen指數가 '96년에는 4.08%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Sen指數는 9.54%에 이르러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98년에 들어와 1.59배로 다소 줄었으나 '99년 들어와 다시 擴大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比率이 '99년 1/4분기에는 2.23배, 2/4분기에는 2.03배, 그리고 3/4분기에는 1.93배로 나타났다.

〈表 3-40〉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SEN	4.08	9.54	
	FGT _{α=2}	1.55	3.81	
1997	SEN	4.23	8.71	
	FGT _{α=2}	1.71	3.43	
1998	SEN	7.71	12.30	
	FGT _{α=2}	3.63	5.21	
1999	SEN	1/4	10.70	23.90
		2/4	9.69	19.68
		3/4	8.87	17.14
	FGT _{α=2}	1/4	4.87	10.39
		2/4	4.41	8.49
		3/4	3.97	7.7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가구주 성별 Sen指數의 차이를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Sen指數는 '97년도에 최저치인 3.11%를 기록하였으며 '99년도 2/4분기에는 8.7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男性家口主 가구의 경우는 '96년도에 최저치인 1.52%를 기록하였으며 '99년도 1/4분기에 3.60%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여성 가구주

가구 Sen指數 대 남성 가구주 가구 Sen指數의 비율이 '98년에 1.86배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96년에 2.63배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비율은 비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성별 Sen指數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가구 Sen指數 대 남성 가구주 가구 Sen指數의 비율이 최저 1.21배('98년)에서 최고 1.75배('99년 1/4분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비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성별 Sen指數 차이보다는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성별 Sen指數 차이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勞動市場內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근로여건이 남성보다 취약하며 이러한 사실은 低所得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41〉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SEN	1.52	3.99	
	FGT _{α=2}	0.62	1.22	
1997	SEN	1.57	3.11	
	FGT _{α=2}	0.69	0.91	
1998	SEN	3.32	6.19	
	FGT _{α=2}	1.56	2.21	
1999	SEN	1/4	3.60	7.10
		2/4	3.55	8.76
		3/4	3.34	6.70
	FGT _{α=2}	1/4	1.65	2.66
		2/4	1.55	2.97
		3/4	1.41	2.4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42〉 家口主 性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SEN	8.98	15.77	
	FGT _{α=2}	3.41	7.02	
1997	SEN	9.78	17.05	
	FGT _{α=2}	3.86	7.60	
1998	SEN	16.80	20.40	
	FGT _{α=2}	7.69	9.52	
1999	SEN	1/4	20.31	33.92
		2/4	18.77	28.98
		3/4	17.40	26.53
	FGT _{α=2}	1/4	9.36	15.62
		2/4	8.68	13.47
		3/4	7.90	12.6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3〉 家口主 性別 貧困率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8.74	18.54
	2/4	7.98	16.91
	3/4	7.27	15.63
	4/4	8.04	18.07
	연간	8.01	17.49
1997	1/4	8.51	16.26
	2/4	6.77	15.75
	3/4	6.99	14.12
	4/4	8.37	15.96
	연간	7.57	15.86
1998	1/4	12.05	19.76
	2/4	12.34	20.89
	3/4	12.65	21.51
	4/4	12.16	20.20
	연간	12.25	20.55
1999	1/4	17.69	39.47
	2/4	16.04	33.55
	3/4	14.89	28.8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4〉 家口主 性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3.93	13.10
	2/4	3.26	9.34
	3/4	2.76	10.18
	4/4	2.68	9.99
	연간	3.16	10.65
1997	1/4	3.65	9.36
	2/4	2.62	8.39
	3/4	2.36	6.71
	4/4	2.90	7.43
	연간	2.88	7.99
1998	1/4	5.89	11.66
	2/4	5.70	15.44
	3/4	5.98	17.33
	4/4	5.66	12.40
	연간	5.81	14.24
1999	1/4	6.22	15.68
	2/4	6.44	19.47
	3/4	5.83	15.6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5〉 家口主 性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17.686	25.610
	2/4	16.789	26.500
	3/4	15.642	22.882
	4/4	17.791	28.887
	연간	16.982	25.984
1997	1/4	18.859	29.503
	2/4	16.025	27.213
	3/4	16.586	26.113
	4/4	19.479	29.702
	연간	17.742	28.102
1998	1/4	26.739	31.737
	2/4	27.456	32.943
	3/4	27.648	30.450
	4/4	26.467	32.087
	연간	27.081	31.796
1999	1/4	32.806	52.595
	2/4	30.408	46.390
	3/4	28.853	41.22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6〉 家口主 性別 貧困艱 比率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37.62	35.94
	2/4	33.29	38.20
	3/4	34.04	35.43
	4/4	35.97	37.12
	연간	34.63	37.66
1997	1/4	38.88	36.90
	2/4	36.65	34.92
	3/4	36.74	37.64
	4/4	38.55	39.77
	연간	37.31	38.71
1998	1/4	46.15	43.13
	2/4	46.18	43.52
	3/4	43.20	39.34
	4/4	41.80	41.04
	연간	44.69	41.43
1999	1/4	43.60	42.51
	2/4	42.99	42.04
	3/4	42.58	42.9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7〉 家口主 性別 貧困갇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36.22	26.56
	2/4	28.57	25.92
	3/4	30.03	24.42
	4/4	30.00	23.51
	연간	31.62	25.20
1997	1/4	35.82	25.83
	2/4	35.89	25.71
	3/4	39.14	23.59
	4/4	38.31	24.74
	연간	37.12	25.08
1998	1/4	42.48	28.89
	2/4	37.97	31.87
	3/4	39.24	29.64
	4/4	38.03	30.84
	연간	39.51	30.38
1999	1/4	39.72	29.59
	2/4	37.32	33.07
	3/4	38.07	32.2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8〉 家口主 性別 貧困각 比率 (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38.23	43.82
	2/4	35.04	44.84
	3/4	35.40	43.57
	4/4	37.70	44.85
	연간	36.65	44.32
1997	1/4	40.40	43.24
	2/4	36.59	41.63
	3/4	36.48	44.88
	4/4	38.86	46.87
	연간	38.21	44.17
1998	1/4	46.07	51.03
	2/4	46.99	47.20
	3/4	43.80	46.47
	4/4	43.06	45.15
	연간	44.99	47.30
1999	1/4	45.72	47.18
	2/4	44.90	46.68
	3/4	44.34	47.2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39〉 家口主 性別 Sen指數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4.76	10.23
	2/4	3.97	9.14
	3/4	3.70	8.34
	4/4	4.16	9.94
	연간	4.07	9.54
1997	1/4	4.73	9.02
	2/4	3.72	8.22
	3/4	3.80	7.87
	4/4	4.66	9.55
	연간	4.23	8.71
1998	1/4	7.70	12.12
	2/4	7.92	12.43
	3/4	7.72	12.46
	4/4	7.23	11.92
	연간	7.71	12.29
1999	1/4	10.7	23.89
	2/4	9.69	19.68
	3/4	8.87	17.1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0〉 性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2.09	5.24
	2/4	1.39	3.51
	3/4	1.31	3.69
	4/4	1.22	3.36
	연간	1.52	3.99
1997	1/4	1.83	3.81
	2/4	1.42	3.11
	3/4	1.37	2.53
	4/4	1.67	3.01
	연간	1.57	3.11
1998	1/4	3.56	6.41
	2/4	3.13	7.21
	3/4	3.40	7.07
	4/4	3.15	5.75
	연간	3.32	6.19
1999	1/4	3.60	7.10
	2/4	3.55	8.76
	3/4	3.34	6.70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1〉 性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9.68	15.97
	2/4	8.74	15.83
	3/4	8.07	13.65
	4/4	9.42	17.63
	연간	8.98	15.78
1997	1/4	10.72	17.52
	2/4	8.77	15.68
	3/4	8.88	15.82
	4/4	10.76	19.16
	연간	9.79	17.05
1998	1/4	16.87	21.86
	2/4	17.65	20.81
	3/4	16.88	19.43
	4/4	15.74	19.73
	연간	16.80	20.41
1999	1/4	20.31	33.93
	2/4	18.77	28.99
	3/4	17.40	26.5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2〉 家口主 性別 FGT指數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1.91	4.06
	2/4	1.45	3.68
	3/4	1.38	3.30
	4/4	1.64	3.92
	연간	1.55	3.80
1997	1/4	1.93	3.74
	2/4	1.47	3.12
	3/4	1.51	3.06
	4/4	1.92	4.05
	연간	1.70	3.43
1998	1/4	3.72	5.36
	2/4	3.77	5.55
	3/4	3.50	5.05
	4/4	3.15	5.04
	연간	3.63	5.21
1999	1/4	4.87	10.3
	2/4	4.41	8.49
	3/4	3.96	7.7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3〉 家口主 性別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0.91	1.64
	2/4	0.54	1.04
	3/4	0.55	1.17
	4/4	0.47	1.02
	연간	0.62	1.22
1997	1/4	0.78	1.20
	2/4	0.62	0.95
	3/4	0.63	0.64
	4/4	0.74	0.85
	연간	0.69	0.91
1998	1/4	1.80	1.51
	2/4	1.48	2.76
	3/4	1.58	2.45
	4/4	1.38	2.06
	연간	1.56	2.21
1999	1/4	1.65	2.66
	2/4	1.55	2.97
	3/4	1.41	2.4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4〉 家口主 性別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남성	여성
1996	1/4	3.76	7.16
	2/4	3.17	7.05
	3/4	2.94	6.10
	4/4	3.77	7.82
	연간	3.41	7.02
1997	1/4	4.41	7.99
	2/4	3.33	6.58
	3/4	3.36	6.94
	4/4	4.34	9.02
	연간	3.86	7.60
1998	1/4	7.93	10.6
	2/4	8.38	9.86
	3/4	7.52	8.85
	4/4	6.93	8.96
	연간	7.69	9.52
1999	1/4	9.36	15.62
	2/4	8.68	13.47
	3/4	7.90	12.6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4. 居住 地域別

가. 居住 地域別 貧困率

居住 地域別 빈곤율은 서울지역 거주 가구의 빈곤율이 기타 도시지역 거주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9년 1/4분기에 들어오면 두 지역의 빈곤율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 서울거주 가구의 貧困率은 5.45%였으나 '98년에 들어와 12.86%로 135.9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타 도시 거주 가구들의 경우 '97년에 9.99%의 빈곤율을 기록하여 서울거주 가구들의 빈곤율보다 1.83배 더 높게 나타났으나 '98년에 들어와 빈곤율이 16.00%로 전년대비 60.16%의 增加率을 기록하였다. 또한 기타 도시 거주가구 빈곤율은 서울 거주가구 빈곤율에 비해 '98년에 1.24배로 감소하였으며 '99년에 들어와 1.34배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두 지역의 빈곤율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經濟危機의 충격이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表 3-43〉 地域別 貧困率

(단위: %, 倍)

기간	서울(A)	기타 도시(B)	B/A
1996	5.52	10.58	1.92
1997	5.45	9.99	1.83
1998	12.86 (135.96)	16.00 (60.16)	1.24
1999 1/4	13.85	18.53	1.34

註: 괄호안 수치는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임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地域別 貧困率을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 거주 근로자가구의 貧困率이 '97년에 2.7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98년에 들어와 5.79%로 급증하였으나 서울지역의 절대적 빈곤수준은 기타 도시(7.03%)나 비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기타 도시거주 비근로자가구의 貧困水準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거주 비근로자가구 빈곤수준인데 전체적으로 非勤勞者家口의 빈곤수준이 근로자가구의 빈곤수준보다 높다. 그리고 서울거주 근로자가구의 빈곤수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기타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나 서울거주 비근로자가구 보다는 확실히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 도시거주 비근로자가구의 貧困對策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表 3-44〉 地域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2.87	4.57
1997	2.77	3.86
1998	5.79	7.03
1999	1/4	5.44
		7.9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45〉 地域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10.27	21.10
1997		12.55	21.73
1998		21.64	29.49
1999	1/4	27.95	28.4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 를 이용하여 추계

나. 地域別 貧困갭 比率

지역별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서도 서울지역의 빈곤갭 비율이 기타 도시지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8년부터 즉, 경제위기 이후에는 서울과 기타 도시 거주가구들의 빈곤갭 比率이 서로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살펴 본 經濟危機가 서울 거주 가구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一致하고 있다.

〈表 3-46〉 地域別 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31.85	35.93
1997		31.31	38.44
1998		41.56	43.39
1999	1/4	41.58	43.9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 를 이용하여 추계

〈表 3-47〉 地域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31.14	29.14
1997		38.85	32.36
1998		37.37	37.43
1999	1/4	34.84	37.3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
를 이용하여 추계

〈表 3-48〉 地域別 貧困갭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31.48	39.34
1997		33.06	40.66
1998		41.41	46.16
1999	1/4	43.23	46.6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
를 이용하여 추계

다.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

居住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 계측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 거주 가구의 Sen指數와 FGT指數가 기타 도시지역 거주가구의 Sen指數와 FGT指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9년 1/4분기에 들어오면 두 지역의 Sen指數 및 FGT指數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 서울거주 가구의 Sen指數는 2.52%(FGT指數는 0.93%)였으

나 '98년에 들어와 6.77%(FGT指數는 2.94%)로 168.65%(FGT指數는 216.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타 도시거주가구들의 경우 97년에 Sen指數가 5.44%(FGT指數는 2.23%)를 기록하여 서울거주 가구들의 Sen指數보다 2.16배(FGT指數는 2.40배) 더 높게 나타났으나 '98년에 들어와 Sen指數가 9.86%(FGT指數는 4.58%)로 전년대비 81.25%(FGT指數는 105.38%)의 增加率을 기록하였다. 또한 기타 도시거주 가구 Sen指數는 서울 거주가구 Sen指數에 비해 '98년에 1.46배(FGT指數는 1.56배)로 감소하였으며 '99년에 들어와 1.42배(FGT指數는 1.50배)로 다시 감소하여 서울과 기타도시지역의 Sen指數 및 FGT指數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經濟危機 後 期間 中 Sen指數와 FGT指數의 증가율이 빈곤율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빈곤가구의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의 심도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지수들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빈곤층의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의 심도가 經濟危機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빈곤율의 증가율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Sen指數보다 FGT指數의 서울과 기타 도시의 빈곤수준 비율 및 97년과 '98년 사이의 빈곤지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격상 FGT指數가 Sen指數보다 빈곤가구의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의 심도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지수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經濟危機의 충격이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을 빈곤율 결과 때보다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表 3-49〉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全家口)

(단위: %, 배)

기간		서울(A)	기타 도시(B)	B/A
1996	SEN	2.56	5.57	2.18
	FGT _{α=2}	0.93	2.17	2.33
1997	SEN	2.52	5.44	2.16
	FGT _{α=2}	0.93	2.23	2.40
1998	SEN	6.77 (168.65)	9.86 (81.25)	1.46
	FGT _{α=2}	2.94 (216.13)	4.58 (105.38)	1.56
1999	SEN	7.95	11.26	1.42
	FGT _{α=2}	3.44	5.16	1.5

註: 괄호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raw data)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表 3-50〉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SEN	1.36	2.03
	FGT _{α=2}	0.54	0.74
1997	SEN	1.57	1.90
	FGT _{α=2}	0.71	0.73
1998	SEN	3.21	3.78
	FGT _{α=2}	1.42	1.70
1999	SEN	2.84	4.37
	FGT _{α=2}	1.19	1.9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한편 지역별 Sen指數를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 거주 근로자가구의 Sen指數가 '97년에 1.57%로 상당히 낮게 나타

났고 '98년에 들어와 3.21%로 급증하였으나 비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어느 지역이던 간에 비근로자가구의 貧困水準이 근로자가구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서울과 기타도시간의 Sen指數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 '99년 3/4분기에는 상당히 수렴하였다.

〈表 3-51〉 地域別 Sen指數와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SEN	4.61	11.82
	FGT _{α=2}	1.58	4.82
1997	SEN	5.97	12.52
	FGT _{α=2}	2.18	5.24
1998	SEN	12.56	18.51
	FGT _{α=2}	5.52	8.65
1999	SEN	16.43	17.92
	FGT _{α=2}	7.27	8.3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5〉 地域別 貧困率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6.56	11.27
	2/4	5.54	10.36
	3/4	4.58	9.61
	4/4	5.48	10.78
	연간	5.51	10.57
1997	1/4	6.88	10.53
	2/4	5.55	8.95
	3/4	4.82	8.89
	4/4	5.34	10.43
	연간	5.45	9.99
1998	1/4	11.85	15.38
	2/4	12.58	16.29
	3/4	13.04	16.80
	4/4	13.12	15.70
	연간	12.85	15.99
1999	1/4	13.85	18.53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6〉 地域別 貧困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1/4	3.43	5.68
	2/4	2.59	4.50
	3/4	2.52	4.14
	4/4	2.96	3.94
	연간	2.87	4.57
1997	1/4	3.99	4.62
	2/4	2.62	3.71
	3/4	2.02	3.26
	4/4	2.42	3.85
	연간	2.77	3.86
1998	1/4	5.46	6.73
	2/4	5.85	7.10
	3/4	5.82	7.69
	4/4	6.04	6.60
	연간	5.79	7.03
1999	1/4	5.44	7.9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7〉 地域別 貧困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1/4	11.83	21.31
	2/4	11.08	20.78
	3/4	8.42	19.44
	4/4	9.76	19.85
	연간	10.27	21.10
1997	1/4	12.29	23.28
	2/4	11.90	20.02
	3/4	11.71	20.22
	4/4	14.27	23.44
	연간	12.55	21.73
1998	1/4	21.34	29.07
	2/4	22.00	30.00
	3/4	20.49	30.06
	4/4	22.71	28.82
	연간	21.64	29.49
1999	1/4	27.95	28.4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8〉 地域別 貧困갭 比率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30.68	38.12
	2/4	30.40	35.12
	3/4	30.34	34.93
	4/4	33.29	36.73
	연간	31.84	35.92
1997	1/4	36.51	38.78
	2/4	30.73	37.27
	3/4	33.83	37.82
	4/4	31.87	39.42
	연간	31.30	38.44
1998	1/4	40.56	45.78
	2/4	44.39	44.06
	3/4	38.72	42.72
	4/4	37.54	42.51
	연간	41.55	43.39
1999	1/4	41.58	43.98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49〉 地域別 貧困갭 比率(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32.24	33.00
	2/4	29.79	27.49
	3/4	31.75	27.44
	4/4	30.57	27.01
	연간	31.14	29.14
1997	1/4	41.26	30.98
	2/4	36.94	31.57
	3/4	36.82	33.73
	4/4	38.51	33.69
	연간	38.85	32.36
1998	1/4	40.58	39.96
	2/4	42.25	35.39
	3/4	38.22	36.46
	4/4	28.79	38.07
	연간	37.37	37.43
1999	1/4	34.84	37.3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0〉 地域別 貧困갭 比率(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30.86	40.87
	2/4	30.92	38.28
	3/4	29.76	38.05
	4/4	34.44	39.36
	연간	31.48	39.34
1997	1/4	36.33	41.78
	2/4	28.50	39.43
	3/4	31.53	39.51
	4/4	34.98	41.60
	연간	33.06	40.66
1998	1/4	40.553	48.07
	2/4	45.20	47.37
	3/4	38.94	45.19
	4/4	40.76	44.04
	연간	41.41	46.16
1999	1/4	43.23	46.6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1〉 地域別 Sen指數(全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도시
1996	1/4	3.00	6.24
	2/4	2.52	5.36
	3/4	2.02	5.06
	4/4	2.60	5.77
	연간	2.56	5.57
1997	1/4	3.59	5.89
	2/4	2.56	4.92
	3/4	2.33	4.95
	4/4	2.49	5.97
	연간	2.52	5.44
1998	1/4	6.85	9.67
	2/4	7.89	10.03
	3/4	6.70	10.06
	4/4	7.01	9.26
	연간	6.77	9.86
1999	1/4	7.95	11.2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2〉 地域別 Sen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1.64	2.81
	2/4	1.18	1.86
	3/4	1.12	1.81
	4/4	1.39	1.59
	연간	1.36	2.03
1997	1/4	2.32	2.14
	2/4	1.44	1.74
	3/4	1.08	1.69
	4/4	1.40	2.10
	연간	1.57	1.90
1998	1/4	3.31	3.79
	2/4	3.60	3.69
	3/4	3.23	4.00
	4/4	2.60	3.59
	연간	3.21	3.78
1999	1/4	2.84	4.37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3〉 地域別 Sen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5.32	12.24
	2/4	5.00	11.47
	3/4	3.50	10.66
	4/4	4.56	11.00
	연간	4.61	11.82
1997	1/4	6.19	13.56
	2/4	5.01	11.45
	3/4	5.28	11.44
	4/4	7.28	13.66
	연간	5.97	12.52
1998	1/4	12.08	18.84
	2/4	13.86	19.19
	3/4	11.37	18.66
	4/4	12.84	17.33
	연간	12.56	18.51
1999	1/4	16.43	17.92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4〉 地域別 FGT指數(全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1.80	2.55
	2/4	0.91	2.04
	3/4	0.71	1.94
	4/4	0.95	2.30
	연간	0.93	2.17
1997	1/4	1.44	2.54
	2/4	0.95	1.98
	3/4	0.88	1.99
	4/4	0.92	2.48
	연간	0.93	2.23
1998	1/4	3.03	4.66
	2/4	3.75	4.65
	3/4	2.68	4.51
	4/4	2.88	4.13
	연간	2.94	4.58
1999	1/4	3.44	5.16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5〉 地域別 FGT指數(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0.65	1.11
	2/4	0.47	0.65
	3/4	0.52	0.67
	4/4	0.56	0.55
	연간	0.54	0.74
1997	1/4	1.05	0.79
	2/4	0.66	0.68
	3/4	0.46	0.68
	4/4	0.66	0.78
	연간	0.71	0.73
1998	1/4	1.60	1.82
	2/4	1.71	1.62
	3/4	1.41	1.75
	4/4	0.94	1.59
	연간	1.42	1.70
1999	1/4	1.19	1.94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3-56〉 地域別 FGT指數(非勤勞者 家口)

(단위: %)

기간		서울	기타
1996	1/4	1.85	5.14
	2/4	1.75	4.52
	3/4	1.11	4.22
	4/4	1.60	4.51
	연간	1.58	4.82
1997	1/4	2.36	5.85
	2/4	1.65	4.64
	3/4	1.84	4.63
	4/4	2.85	5.86
	연간	2.18	5.24
1998	1/4	5.17	9.16
	2/4	6.59	9.16
	3/4	4.82	8.50
	4/4	5.51	7.80
	연간	5.52	8.65
1999	1/4	7.27	8.35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지출자료와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第 4 節 經濟危機 前後 貧困要因 分析

지금까지 '96년부터 '99년 3/4분기까지의 우리나라 빈곤수준을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 여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빈곤선 이하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으며 經濟危機의 충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 50대 남성 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비근로자가구의 빈곤수준이 勤勞者家口보다 높은 이유는 비근로자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비율이 '98년의 경우 약 30%를 상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98년 3/4분기에 最低生計費 以下 근로자가구의 88.6%가 흑자가구인 반면에 비근로자가구는 대부분이 적자가구로 나타나는 것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98년의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은 근로자가구가 더 컸다. 그 이유는 비근로자가구 중 무직가구주 가구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빈곤상태에 있으므로 경제위기의 충격에 단지 높은 빈곤율 수준을 유지하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나 家口主가 근로자인 가구중 고용상태가 지극히 불안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失業으로 인해 비근로자가구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위기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근로자 가구의 比率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그리고 여성가구주로서 초등학교만을 卒業한 가구주 가구가 빈곤선 이하에 있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 가구가 일반적으로 경제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별, 즉, 가구의 근로여부·거주 지역별·성별·학력별·연령별로 그 비중을 계산

함으로써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 <附錄 2>를 보면 最低生計費에 있는 빈곤가구들을 가구주 중심으로 먼저 서울 거주와 기타 도시 지역 거주로 兩分하였다. 그리고 서울거주 가구는 다시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로 양분하였으며 각각의 가구를 다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로 나누고 이들 가구주의 학력과 연령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의 사항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구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며 남성 근로자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대 가구주 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수의 0.189%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96년 1/4분기부터 '99년 1/4분기까지 함으로써 각 分期別 빈곤수준에 대한 要因分析을 가능하게 하였다. 먼저 '96년 1/4분기를 보면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비근로자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가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가구를 類型別로 分解하여 빈곤가구 중 어떤 유형의 가구가 다수를 점하는가를 파악하여 빈곤대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비중을 분기별로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어떤 가구의 비중이 어떤 方向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96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는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이다. 이들 家口의 비율은 8.965%를 나타내고 있다. 이 比率은 '97년 1/4분기에 10.235%, '98년 1/4분기에는 10.941%, 그리고 '99년 1/4분기에는 9.709%를 기록하였다. 즉, 경제위기 전후기간에 이들 가구는 전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96년 1/4분기에서 두 번째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는 역

시 기타 도시에 居住하는 초등학교 졸업 60대 이상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비율은 3.788%에서 '97년 1/4분기에는 5.213%로 증가하나 '98년 1/4분기에는 오히려 3.917%로 그 비율이 떨어졌으며 '99년 1/4분기에는 4.127%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들 가구는 經濟危機 전에도 빈곤율이 높은 가구이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져 소득창출 능력이 약한 가구들로써 大量 失業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해 '98년도에 다른 가구들의 증가로 이 가구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 表를 놓고 볼 때,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약 45%에 달하여 이들 가구의 변화가 전체 貧困水準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치밀한 貧困對策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附錄 2>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表 3-52>와 같이 나타내면 각 가구의 유형별로 분기별 증감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表 3-52>를 보면 '97년 1/4분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家口類型 28개를 나열하였으며 이는 전체 160개 유형 중의 일부이나 28개 가구유형 이후에는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상위 10개의 家口類型을 살펴보면 우선 기타 도시지역 거주가구가 9개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근로자가구주 가구가 9개, 그리고 남성이구주 가구가 10개로 全部를 차지, 연령별로는 30대가 5개이며 고졸 가구주 가구가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빈곤가구는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이며 30대 고졸 수준의 가구주 가구가 多數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비근로자이며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表 3-53>에서 번호 1에서 번호 7까지를 보면 기타지역에 사는 60대 남성 비근로자이며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98년 1/4분기에 모두 그 比率이 증가하였다. 이들 가구들의 비율변화가 전체 가구들의 비율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번호 8에서 번호 22까지의 家口類型중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20대의 고졸 남성 근로자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98년에 들어와 전년에 비해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번호 23번부터 번호 28번까지는 비율이 增加하였다. 아래 表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모두 6개 가구(번호 8, 13, 16, 19, 21, 22)가 '97년에 비해 '98년과 '99년에도 연속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3개 유형의 가구 즉,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50대 중졸과 고졸의 남성 비근로자 가구와 역시 기타 도시지역 거주 40대 고졸 남성 근로자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表 3-52〉 貧困家口中 家口類型別 比率의 變化

(단위: %)

번호	지역	연령	성별	학력	근로 여부	'97년 1/4분기	'98년 1/4분기	'99년 1/4분기
1	기	30	남	고	비근	10.235	10.941 ↑	9.709 ↓
2	기	60	남	초	비근	5.213	3.917 ↓	4.127 ↑
3	기	40	남	고	비근	4.132	5.917 ↑	5.074 ↓
4	기	30	남	대	비근	3.497	4.215 ↑	3.045 ↓
5	기	30	남	중	비근	2.606	3.321 ↑	2.300 ↓
6	기	20	남	고	비근	2.416	2.937 ↑	2.300 ↓
7	기	30	남	고	근	2.161	5.534 ↑	4.229 ↓
8	서	30	남	고	비근	2.161	2.001 ↓	1.488 ↓
9	기	60	남	고	비근	1.907	1.107 ↓	1.556 ↑
10	기	40	남	중	비근	1.844	1.703 ↓	2.842 ↑
11	기	30	여	고	비근	1.780	1.362 ↓	2.334 ↑
12	기	40	여	초	근	1.589	0.894 ↓	1.218 ↑
13	기	50	남	초	비근	1.589	1.575 ↓	1.116 ↓
14	기	60	남	중	비근	1.526	1.192 ↓	1.894 ↑
15	기	20	남	고	근	1.526	2.639 ↑	1.928 ↓
16	기	30	여	고	근	1.462	1.192 ↓	1.049 ↓
17	기	30	남	초	근	1.399	0.128 ↓	0.237 ↑
18	기	60	여	초	비근	1.399	0.724 ↓	1.150 ↑
19	기	30	남	중	근	1.335	1.320 ↓	1.319 ↓
20	기	40	남	중	근	1.335	0.851 ↓	1.049 ↑
21	서	30	남	고	근	1.271	0.937 ↓	0.096 ↓
22	서	40	남	고	비근	1.017	0.979 ↓	0.710 ↓
23	기	20	여	고	비근	0.826	1.235 ↑	0.677 ↓
24	기	30	남	대	근	0.826	1.703 ↑	1.083 ↓
25	기	50	남	중	비근	0.636	1.107 ↑	1.962 ↑
26	기	40	남	고	근	0.636	1.405 ↑	1.455 ↑
27	기	50	남	고	비근	0.636	1.405 ↑	2.064 ↑
28	서	60	남	초	비근	0.318	1.277 ↑	0.677 ↓

註: 기: 기타도시 거주, 서: 서울지역 거주, 근: 근로자가구, 비근: 비근로자가구

第 4 章 所得不平等度 計測과 變化要因分析

본 章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도를 계측하기 위한 방법과 所得不平等度の 변화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본 방법론은 OECD의 방법(Buriniiaux J-M. 1998)에 가능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의 차이로 불가피한 경우 다소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所得不平等度を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서 소득의 개념, 불평등 측정단위, 가구규모의 조정, 그리고 소득불평등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第 1 節 計測方法

1. 統計資料와 所得概念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소득자료는 빈곤계측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의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아울러 勤勞所得도 이용하였다. 이 資料에서 소득은 앞에서 설명한 <表 3-1>과 같이 분류되는데 이중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OECD 국가들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는 소득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2. 測定單位와 家口均等化指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써 본 연구에서는 「家口」를 이용하였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도 측정단위가 주로 가구로 되어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測定單位는 통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개인보다 가구를 단위로 삼는 것이 더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가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할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구원을 동등화하지 않고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경우 現實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家口均等化指數를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장현준(1984), 김진욱(1996)이 그리고 하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家口均等化指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과 1994년에 산출한 바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결과를 OECD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의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W_{ij} = Y_i/S_i^\varepsilon$ 이다. 여기서 Y_i 는 i 가구의 所得을 나타내며,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W_{ij} 는 i 가구의 각 가구원 j 의 조정된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ε 은 均等 彈力性(equivalence elasticity)을 나타내는데 만일 $\varepsilon=0$ 이면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 없이 i 가구의 전과 같은 福祉水準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varepsilon=1$ 인 경우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할 때 規模의 經濟 效果가 전혀 없이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수 만큼 산술적으로 증가되어야

7) OECD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이전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이용하고 있다.

전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OECD의 경우 $\epsilon=0.5$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가구균등화 규모를 中立的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表 4-1〉 家口均等化指數 比較

	OECD	OECD*	장현준 (1984)	김진욱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1994
1인	1.000	-	-	-	-	-
2인	1.414	1.000	1.00	1.00	1.00	1.00
3인	1.732	1.225	1.31	1.18	1.33	1.53
4인	2.000	1.414	1.63	1.36	1.64	1.87
5인	2.236	1.581	1.90	1.63	1.93	2.15
6인	2.449	1.732	2.31	1.77	2.20	2.36
7인	2.646	1.871	-	-	-	-

資料: Förster Michael F., *Measurement of Low Incomes and Poverty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4, OECD/GD(94)10, OECD, Paris 1994.

김진욱,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 - 가계 특성에 의거한 균등화 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1996.

안창수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박순일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1986.

3. 不平等度 測定方法

가. Gini係數(Gini coefficient)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는 해당 가구가 얻는 所得의 累積分에 대해 가구의 누적분을 최저 소득 가구에서 최고 소득가구로 그려 얻는 로렌즈 커브를 이용하여 추계된다. 즉, 로렌즈 커브와 45°線에 둘러싸인 面積을 전체 삼각형

의 면적으로 나누어 도출된다.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용되는 자료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소득계층별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한 계층의 累積人員比率를 $n_i (i=0, 1, 2, \dots, N)$, 그리고 그 다음 계층의 누적인원비율을 n_{i+1} , 이들 각각의 누적소득비율을 y_i, y_{i+1} 이라 할 때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낼 수 있다.

$Gini = 1 - \sum_{i=1}^n (y_i + y_{i+1})(n_{i+1} - n_i)$. 그런데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는 경우 Gini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Yoo, J. G,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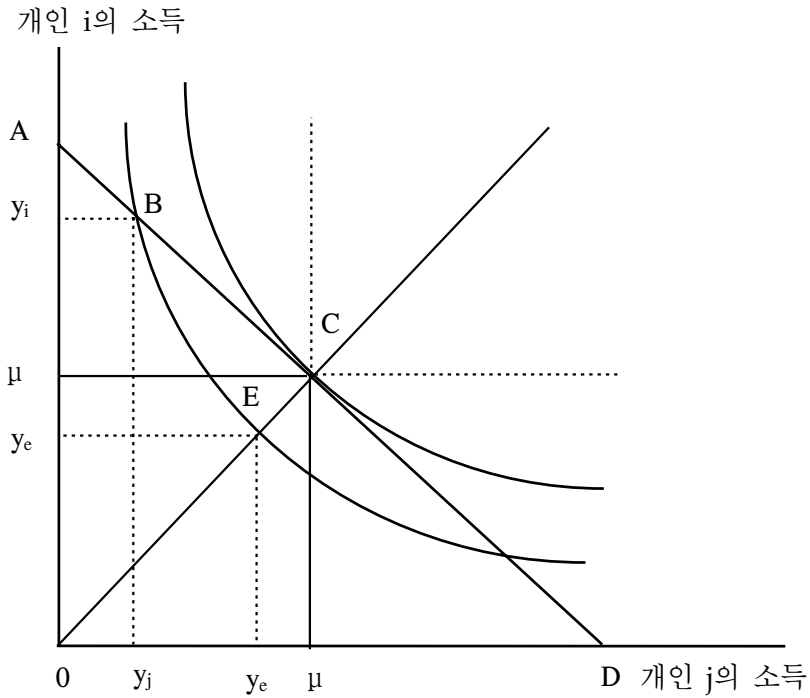
$$Gini = \left[\frac{2}{\mu n^2} \sum_{k=1}^n k \cdot W_k \right] - \frac{n+1}{n}$$

$$= \frac{\frac{2}{n} \sum_{k=1}^n (W_k - \mu) \cdot \left(\frac{k}{n} - \frac{1}{n^2} \sum_{k=1}^n k \right)}{\mu}$$

나. Atkinson指數

Atkinson은 1970년에 로렌즈 곡선에 기초하여 社會厚生을 비교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림 4-1] 2人 經濟의 社會厚生函數



[그림 4-1] 에서 횡축과 종축은 각기 i 라는 사람과 j 라는 사람의 소득을 나타낸다. 두 사람의 소득상태에 따라 사회전체가 동일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곳은 즉, 無差別 曲線을 도입하여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B 점은 부존점으로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C 점은 B 점과 동일한 平均所得이지만, 부유층의 소득 일부를 빈곤층에 이전지출하여 도달할 수 있는 점으로서 완전 평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E 점은 초기 부존점과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완전평등점이 된다. 이러한 두 점 사이의 상대적인 社會厚生 차이를 불평등 지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E = \frac{W_C - W_B}{W_C} = 1 - \frac{W_B}{W_C} \dots\dots\dots(4-1)$$

여기서, IE는 不平等指數 이며, W_i는 i점에 대한 社會厚生을 나타낸다.
 소득에 대한 社會評價函數 (social evaluation function) 인 U (.) 와 사
 회후생함수인 W(.) 가 일정한 탄력도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첨가하
 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면 사회후생이
 동일한 비율만큼 상승하게 되고, 식 (4-1)에 의하면 不平等 指數는 변
 하지 않게 된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Atkinson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效用函數를 도입하였다.

$$U(y) = a + b \frac{y^{1-\epsilon}}{1-\epsilon} \quad \epsilon \neq 1, \epsilon \geq 0 \dots\dots\dots$$

$$= \ln y \quad \epsilon = 1$$

(4-2)

여기서, ε은 相對的 不平等에 대한 회피 정도를 나타낸다. ε이
 음이 아니라는 것은 효용 함수가 원점에 대해 불록하다는 것을 나타
 내는 동시에 ε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 대해 더 불록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8) 이러한 효용함수에서 소득에 대한 限界效用은 다음과 같다.

$$\frac{\delta U(y)}{\delta y} = b y^{-\epsilon} \quad \epsilon \neq 1, \epsilon \geq 0 \dots\dots\dots($$

$$= \frac{1}{y} \quad \epsilon = 1$$

4-3)

8) ε 값이 클수록 원점에 대해 불록하다는 것은 이 함수가 移轉支出의 敏感性 (transfer sensitivity)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4-2)식을 (4-1)식에 대입함으로써 불평등지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지수는 ϵ , a , b 에 좌우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이 동일한 滿足感을 누릴 수 있는 소득수준인 y_e 를 均等分配同等所得 (the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 이라고 하면 y_e 는 다음과 같다.

$$W = \frac{1}{N} \sum U(y_i) = \left(\frac{1}{N} \right) \sum U(y_e) = U(y_e) \quad (4-4)$$

(4-2)식으로부터

$$y_e = \left[\left(\frac{1}{N} \right) \sum y_i^{1-\epsilon} \right]^{\frac{1}{1-\epsilon}} \dots\dots\dots (4-5)$$

이러한 식으로 변형하면 y_e 는 a , b 와는 독립적이며, 不平等指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E_A = 1 - \frac{y_e}{\mu} \quad (4-6)$$

이러한 결과는 <그림 4-1>의 $\frac{EC}{OC}$ 거리에 해당하며, 완전 평등한 상태인 0부터 완전불평등 상태인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불평등지수는 危險理論에서 危險을 회피하는 경우, 危險이 포함된 선택과 危險이 포함되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최대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4-4)식을 (4-5)식에 대입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Atkinson指數를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ATK_{\varepsilon} &= 1 - \left[\frac{1}{N} \sum \left(\frac{y_i}{\mu} \right)^{1-\varepsilon} \right]^{\frac{1}{1-\varepsilon}} \quad \varepsilon \neq 1, \varepsilon \geq 0 \\
 &= 1 - \exp \left[\frac{1}{N} \sum \ln \frac{y_i}{\mu} \right] \quad \varepsilon = 1
 \end{aligned}$$

한 사회에서 소득이 균등하게 (equally) 분배되어, 평균소득 (μ) 과 均等分配同等所得 (y_e)이 일치한다면 ATK_{ε} 은 0이 된다. 만약 $ATK_{\varepsilon} = 0.3$ 이라면 $y_e = 0.7\mu$ 가 된다. 아울러 (4-6)식을 변형하면 $y_e = \mu (1 - IE_A)$ 가 되어, 효율성 (μ) 과 불평등 지수 (IE_A)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Atkinson指數의 특성은 파라미터인 ε 이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ε 이 커질수록 社會構成員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varepsilon = 0$ 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varepsilon = 0$ 인 경우에는 $ATK_{\varepsilon} = 0$ 이 되고, 社會厚生은 분배에는 무관하고 소득 증대 (효율성)에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X, Y 두 분배 상태가 동일한 로렌즈 곡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 ATK_{ε} 값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층의 소득 y_j 가 빈곤층의 소득 y_i 보다 4배이고, 불평등 수준을 改善하기 위해서 租稅와 移轉支出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빈곤층이 만원을 받기 위해 부유층이 지출해야 하는 조세는 4^ε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불평등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부유층의 조세 규모는 변하게 된다.

만약 $\varepsilon = 0$	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	만원 = 1	만원
$\varepsilon = 0.25$	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25}$	만원 = 1.41	만원
$\varepsilon = 0.5$	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5}$	만원 = 2	만원
$\varepsilon = 1$	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1	만원 = 4	만원
$\varepsilon = 4$	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4	만원 = 256	만원이 된다.

9) $\varepsilon = 0$ 일 경우 $y_e = \mu$ 가 되므로 $ATK_{\varepsilon} = 0$ 가 된다.

즉, ε 값이 커지면, 부유층의 租稅에는 한계가 없으며, 이 경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후생수준의 비교가 되는 Rawls(1972)의 접근방법과 동일하다. 아울러 ε 은 조세 징수에 따른 낭비의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varepsilon=1$ 인 경우에는 부유층에게 4만원을 징수해야 빈곤층에게 1만원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75%가 浪費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varepsilon=0.5$ 인 경우에는 조세의 50%가 낭비되고, $\varepsilon=0.25$ 일 때는 33%가 낭비되지만 만약 $\varepsilon=0$ 일 경우에는 낭비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varepsilon=0.5$ 인 경우를 分析한다.

第 2 節 所得不平等度 計測

1. 勤勞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에 나와있는 근로자가구의 勤勞所得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Gini 계수의 경우 경제 위기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동시에 1999년에 들어와 소득불평등도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ni 계수가 '97년도에 0.303을 기록하였으나 '98년에는 0.313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추세는 '99년도 1/4분기까지 이어져 0.322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에 0.314로 감소하다 3/4분기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99년 3/4분기의 Gini 계수는 0.325로 1996년 1/4분기 이래로 최고의 不平等度를 보이고 있다.(附表 4-1 참조)

Atkinson指數 역시 경제 위기 후에 所得分配가 더욱 악화되어 1998년에 0.09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0% 악화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1999년 들어서도 소득분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고 3/4분기
기에 0.09에 이르렀다.

〈表 4-2〉 勤勞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근로자 가구	
		Gini	ATK _{e=0.5}
1996		0.313	0.074
1997		0.303	0.072
1998		0.313	0.086
1999	1/4	0.322	0.091
	2/4	0.314	0.082
	3/4	0.325	0.089

資料: 都市家計調査 원자료의 근로자가구 소득과 이를 기초로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2. 經常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勤勞所得에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경상소득이다. 따라서 전술한 근로소득 불평등도와 근로자가구 경상소득 불평등도와의 차이는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에 따라 증감된다. 經常所得 기준 근로자 가구 Gini 계수는 '96년에 0.306, '97년에는 0.296, '98년에는 0.302 그리고 '99년까지 근로소득 Gini 계수와 비슷한 추세이나 불평등도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중 사업 및 부업소득은 불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이전소득의 分配 不平等度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財産所得과 함께 합산된 이들 소득의 분배상태가 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다소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경우는 근로자가구 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97년도 Gini 계수가 0.467에서 1998년에 0.494에 이르렀다. 1999년에 접어들어서는 所得分配가 더욱 악화

되어 1999년 1/4분기 경우에는 0.508에 달할 정도였다.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를 합한 全家口의 경우 '97년에 0.369에서 '98년에는 0.39로 증가하였으며 '99년에 들어와 약 0.4정도를 유지하였다.

Atkinson指數도 Gini계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Atkinson指數에 따르면 0.07에 달하던 근로자가구의 불평등도가 1998년에는 0.08로 악화되는 동시에 비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가 0.16에서 0.19로 큰 폭으로 역시 악화되었다. 1999년에 접어들어서도 所得分配가 改善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1999년 2/4분기에 조금 개선되는 듯하다가 3/4분기에 악화되었고 비근로자가구는 1/4분기에 0.21을 정점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3/4분기에 0.19로 1998년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全家口의 경우 1999년에 소득분배가 1/4분기에 가장 악화되었고, 그 이후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1998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表 4-3〉 經常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1996	0.377 (0.266)	0.103	0.306 (0.212)	0.070	0.470 (0.275)	0.156	
1997	0.369 (0.284)	0.102	0.296 (0.248)	0.068	0.467 (0.287)	0.155	
1998	0.390 (0.308)	0.125	0.302 (0.269)	0.078	0.494 (0.314)	0.190	
1999	1/4	0.402	0.135	0.310	0.082	0.508	0.206
	2/4	0.400	0.129	0.307	0.078	0.503	0.197
	3/4	0.393	0.127	0.313	0.080	0.491	0.192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3. 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소득은 경상소득에 비경상소득을 합친 것으로 비경상소득에는 퇴직금, 연금일시금과 장학금, 경조소득과 폐품매각대금 등이 포함되는데 경상소득 불평등도와 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는 퇴직금과 연금일시금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所得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계산한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 Gini계수가 경상소득 Gini 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가구 소득 Gini계수는 '97년에 0.299에서 '98년에 0.319로 악화되었으며, '99년에 들어와 1/4분기에 0.33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4분기에는 0.320, 3/4분기에는 0.312로 감소하였다. 소득기준으로 계산한 Gini계수가 經常所得의 Gini 계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가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退職金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며 연금일시금 등 비경상소득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97년에 0.508에서 '98년에는 0.554로 악화되었다. '99년 1/4분기에 0.558로 전년도보다 악화된 상태이며, 2/4분기에 소폭 개선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가구의 所得不平等은 '97년에 0.399에서 '98년에는 0.440로 악화되었으며 '99년 1/4분기에 0.453으로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 2/4분기에 약간 개선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所得分配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改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98년의 Atkinson指數는 Gini 계수의 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의 Atkinson指數가 '97년에 각기 0.07, 0.18에서 '98년에 0.09, 0.24로 약

30% 가량 악화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Gini 계수와 마찬가지로 99년 들어서도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아 1/4분기는 크게 惡化되어,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공통적으로 최악의 분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4분기에 소폭 改善되었다가 3/4분기에 다시 악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表 4-4〉 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e=0.5}	Gini	ATK _{e=0.5}	Gini	ATK _{e=0.5}	
1996	0.397 (0.251)	0.117	0.310 (0.211)	0.072	0.495 (0.258)	0.174	
1997	0.399 (0.262)	0.120	0.299 (0.222)	0.069	0.508 (0.268)	0.184	
1998	0.440 (0.314)	0.159	0.319 (0.258)	0.091	0.554 (0.325)	0.237	
1999	1/4	0.453	0.172	0.337	0.103	0.558	0.248
	2/4	0.423	0.144	0.320	0.087	0.521	0.208
	3/4	0.436	0.154	0.312	0.080	0.549	0.235

註: 괄호안 수치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Gini 계수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4. 總收入 基準 所得不平等度

총수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기타 수입과 전월 이월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기타 수입이란 資産減少(저축 찾은 금액, 보험·계단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 매각, 빌려준 돈 받음 등)나 부채증가(월부 및 외상, 빌린 돈 등)로 구성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所得의 불평등도와 총수입의 불평등도를 비교함으로써 기타 수입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다.

總收入은 '98년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勤勞者家口의 경우에는 '98년의 소득불평등도가 '96년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비근로자가구는 경제위기 후에도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여 所得分配는 소폭이나마 악화되었다. 이러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98년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서는 경제 위기 당시보다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이 惡化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비근로자가구는 소득불평등이 소폭으로 개선되다가 '99년 3/4분기에는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를 함께 고려한 全家口의 경우에는 '99년 1/4분기에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Atkinson指數는 Gini 계수보다 더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98년의 소득불평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큰 폭으로 악화되어,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를 합한 全家口의 所得不平等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5〉 總收入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1996	0.410 (0.225)	0.127	0.382 (0.082)	0.119	0.449 (0.234)	0.139	
1997	0.420 (0.223)	0.135	0.391 (0.084)	0.128	0.460 (0.229)	0.146	
1998	0.417 (0.230)	0.138	0.380 (0.129)	0.122	0.463 (0.231)	0.161	
1999	1/4	0.426	0.146	0.395	0.130	0.461	0.166
	2/4	0.423	0.143	0.399	0.135	0.452	0.153
	3/4	0.422	0.142	0.388	0.126	0.463	0.163

註: 괄호안 수치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한 Gini 계수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4-1〉 勤勞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근로자 가구	
		Gini	ATK _{$\epsilon=0.5$}
1996	1/4	0.312	0.077
	2/4	0.304	0.068
	3/4	0.312	0.074
	4/4	0.320	0.076
	연간	0.313	0.074
1997	1/4	0.311	0.076
	2/4	0.301	0.069
	3/4	0.299	0.070
	4/4	0.299	0.070
	연간	0.303	0.072
1998	1/4	0.318	0.091
	2/4	0.303	0.080
	3/4	0.318	0.089
	4/4	0.312	0.085
	연간	0.313	0.086
1999	1/4	0.322	0.091
	2/4	0.314	0.082
	3/4	0.325	0.089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4-2〉 經常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1996	1/4	0.374	0.105	0.304	0.073	0.467	0.155
	2/4	0.370	0.098	0.300	0.064	0.462	0.150
	3/4	0.373	0.102	0.303	0.069	0.466	0.153
	4/4	0.384	0.107	0.312	0.071	0.478	0.161
	연간	0.377	0.103	0.306	0.070	0.470	0.156
1997	1/4	0.372	0.105	0.303	0.073	0.469	0.157
	2/4	0.366	0.098	0.293	0.064	0.461	0.149
	3/4	0.359	0.098	0.296	0.068	0.451	0.147
	4/4	0.377	0.106	0.289	0.065	0.486	0.167
	연간	0.369	0.102	0.296	0.068	0.467	0.155
1998	1/4	0.387	0.127	0.306	0.083	0.492	0.194
	2/4	0.391	0.124	0.295	0.073	0.499	0.194
	3/4	0.391	0.124	0.309	0.080	0.490	0.184
	4/4	0.389	0.124	0.297	0.076	0.493	0.190
	연간	0.390	0.125	0.302	0.078	0.494	0.190
1999	1/4	0.402	0.135	0.310	0.082	0.508	0.206
	2/4	0.400	0.129	0.307	0.078	0.503	0.197
	3/4	0.393	0.127	0.313	0.080	0.491	0.192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4-3〉 所得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epsilon=0.5$}	Gini	ATK _{$\epsilon=0.5$}	Gini	ATK _{$\epsilon=0.5$}
1996	1/4	0.396	0.120	0.306	0.073	0.496	0.179
	2/4	0.389	0.111	0.309	0.070	0.486	0.168
	3/4	0.402	0.119	0.302	0.067	0.508	0.183
	4/4	0.396	0.113	0.318	0.074	0.481	0.161
	연간	0.397	0.117	0.310	0.072	0.495	0.174
1997	1/4	0.406	0.126	0.308	0.075	0.514	0.189
	2/4	0.389	0.112	0.297	0.066	0.491	0.169
	3/4	0.399	0.121	0.297	0.068	0.512	0.188
	4/4	0.401	0.121	0.292	0.065	0.513	0.188
	연간	0.399	0.120	0.299	0.069	0.508	0.184
1998	1/4	0.445	0.164	0.318	0.089	0.568	0.252
	2/4	0.455	0.172	0.327	0.100	0.570	0.251
	3/4	0.443	0.160	0.321	0.088	0.559	0.241
	4/4	0.422	0.146	0.309	0.084	0.529	0.213
	연간	0.440	0.159	0.319	0.091	0.554	0.237
1999	1/4	0.453	0.172	0.337	0.103	0.558	0.248
	2/4	0.423	0.144	0.320	0.087	0.521	0.208
	3/4	0.436	0.154	0.312	0.080	0.549	0.235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附表 4-4〉 總收入 基準 所得不平等度

기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Gini	ATK _{ε=0.5}
1996	1/4	0.403	0.124	0.370	0.112	0.448	0.142
	2/4	0.411	0.126	0.385	0.118	0.446	0.137
	3/4	0.401	0.119	0.359	0.102	0.457	0.144
	4/4	0.425	0.138	0.409	0.140	0.447	0.136
	연간	0.410	0.127	0.382	0.119	0.449	0.139
1997	1/4	0.426	0.145	0.401	0.142	0.461	0.149
	2/4	0.424	0.134	0.398	0.128	0.458	0.143
	3/4	0.416	0.133	0.388	0.125	0.458	0.147
	4/4	0.411	0.127	0.377	0.116	0.456	0.144
	연간	0.420	0.135	0.391	0.128	0.460	0.146
1998	1/4	0.409	0.134	0.373	0.115	0.459	0.161
	2/4	0.419	0.139	0.379	0.121	0.469	0.163
	3/4	0.420	0.138	0.385	0.122	0.465	0.160
	4/4	0.420	0.142	0.385	0.128	0.463	0.160
	연간	0.417	0.138	0.380	0.122	0.463	0.161
1999	1/4	0.426	0.146	0.395	0.130	0.461	0.166
	2/4	0.423	0.143	0.399	0.135	0.452	0.153
	3/4	0.422	0.142	0.388	0.126	0.463	0.163

資料: 都市家計調査자료와 추정된 소득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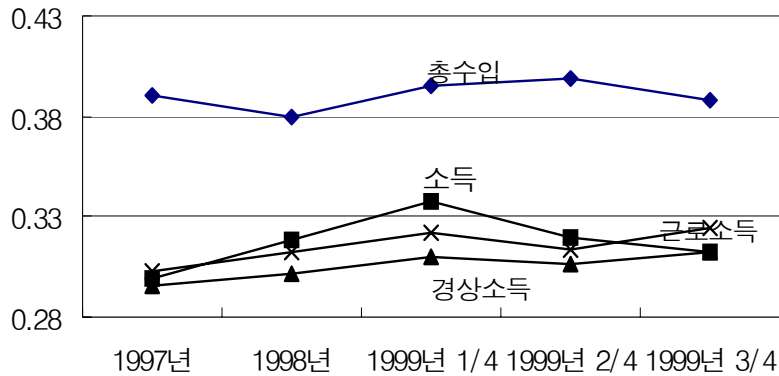
第 3 節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分析

1. 勤勞者 家口の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勤勞者 家口の Gini 계수의 경우, '97년과 비교하여 '98년에 총수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총수입의 所得分配 개선 효과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따른 기타 수입의 소득분배 개선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所得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심화된 정도는 경상소득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나빠진 것과 더불어 비경상소득에 대한 소득분배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분배가 勤勞所得을 기준으로 계산한 所得分配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과 비교하여 '99년의 총수입 기준 소득분배는 2/4분기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4분기의 경우에는 소득 악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2/4분기의 경우 기타 수입의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결과이다. '99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經常所得보다는 비경상소득에 대한 소득분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근로소득에 기인한 결과이다. Atkinson指數의 변화 추세는 Gini 계수의 변화 추세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 勤勞者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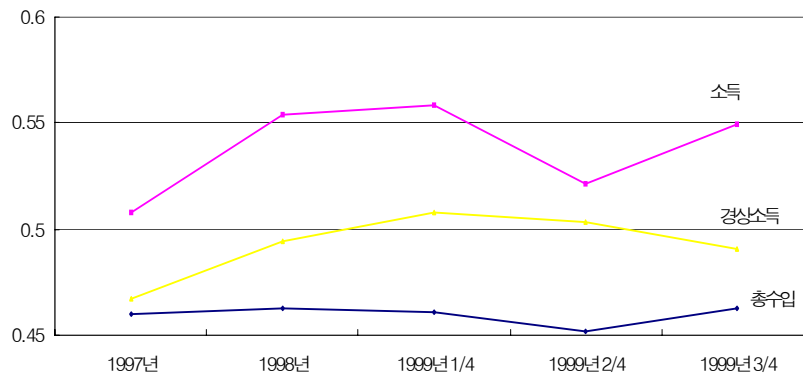


2. 非勤勞者 家口의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전반적으로 비근로자가구의 Gini 계수는 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비근로자가구의 所得不平等度가 근로자가구보다 나쁜 것으로 계산되었다. 비근로자가구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98년의 Gini 계수는 '97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보다는 적게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 수입에 대한 소득 분배가 改善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所得分配가 악화된 것은 경상소득의 소득분배 악화와 비경상소득의 所得分配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99년에 접어들어서도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總收入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분배는 '99년 3/4분기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보다는 기타 수입의 소득분배 악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분배의 악화 요인은 경상소득보다는 비경상소득에 기인한다.

Atkinson指數의 변화추이는 Gini 계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 非勤勞者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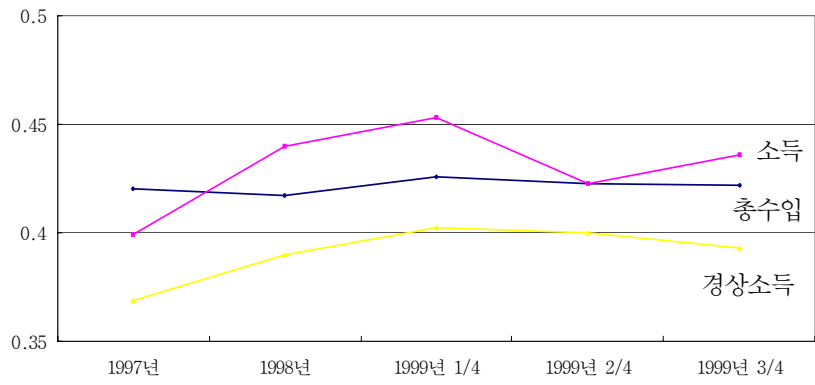


3. 全家口의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를 합한 전가구의 경우 총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불평등도는 '98년에 약간 改善되었다. 이것은 소득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에 대한 所得不平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타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불평등도는 '98년에 악화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소득의 所得分配 악화와 비경상소득의 소득분배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99년에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특히 總收入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불평등도가 2/4분기에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타 수입의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것 같다. 경상소득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全家口에 대한 Atkinson指數의 변화 형태는 Gini 계수와 거의 유

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全家口의 所得不平等度(Gini 係數)



第 5 章 貧困緩和 및 所得不平等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第 1 節 要約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분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貧困이나 所得分配의 변화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도시가계조사』는 근로자가구의 所得만이 公表되므로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전가구의 소득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빈곤율, 빈곤갭비율, Sen指數, FGT指數를 사용하여 빈곤수준을 계측하였다.

분석한 結果에 의하면 경제위기에 따른 1998년의 빈곤수준은 1997년 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1999년에도 그 수준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노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貧困水準의 분석결과를 볼 때 서울보다 빈곤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지방 도시에 대한 貧困對策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老人家口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유형은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

주 가구이다. 이들 가구들에 대한 빈곤대책으로는 地方都市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약 37~45%에 달하고 있어 지방 도시의 빈곤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분석기간 중 所得不平等度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보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경상소득에 의거한 소득분배 악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退職金 등 비경상소득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第 2 節 政策課題

1. 貧困 및 所得分配 統計시스템 改善

우리나라는 아직 전 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深度 그리고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나 빈곤관련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貧困과 所得分配에 관한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올바르게 수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그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통계에서 누락되어있는 1人 家口를 포함시키고 비근로자가구 소득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이며 국세청과 통계청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일단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가 改善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을 추정하고 현재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있는 분배정책과 빈곤완화정책 프로그램의 效果性을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한다

2. 對象別 貧困對策 樹立과 地方 都市 貧困對策 強化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노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지방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貧困政策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效果性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심도에 따라 빈곤대책의 방법과 강도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빈곤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유형은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이다. 이들 가구들에 대한 빈곤대책으로는 지방도시의 自活對策 및 일자리 창출이 效率的인 政策이 된다. 아울러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약 37~45%에 달하고 있어 지방 도시의 빈곤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3. 脆弱階層 自立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들 소득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再就業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저학력자나 여성도 정상적인 일자리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創業支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경험이 없는 노인들에게 창업지원비 대출 등의 시스템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自活支援 프로그램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빈곤층으로 다수 전락하는 시기에 큰 효과가 있으나, 아직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自活支援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근로사업(노동부), 취로사업(복지부), 자활지원센터(복지부), 생업자금융자(복지부), 실직자 대부사업(노동부), 직업훈련(노동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公共勤勞事業은 경제위기 이후 복지부의 취로사업을 모태로 확대발전된 한시적 사업이나 취로사업과의 연계장치가 없어 두 사업이 동일한 작업프로그램에 중복되거나 동일업무 참여자에 대한 두 사업간의 급여 차이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이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기 위해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生計費 支援은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生業資金融資事業은 그 효과성이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자활의 성공률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生産的 制度를 구축해야 한다.

4. 年金制度의 強化

높은 빈곤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연금수혜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현재 운영중인 敬老年金의 강화 즉,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의 제고가 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老人所得保障의 근간이 되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경로연금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현재 대다수의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1998년 7월부터 노인 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公的年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99년의 경우 현행 경로연금의 수혜자는 66만명(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의 21.6%)이며, 급여수준이 1인당 월 1만 5천원에서 5만원수준으로 실질적인 所得保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빈곤가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빈곤규모를 낮추는 정책중의 하나가 노인의 빈곤수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통한 老人貧困緩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5. 自營者 所得把握率 提高와 所得再分配

분석기간 중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었는데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경제위기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경상소득에 의거한 소득분배 악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금이나 연금일시금 등으로 구성된 비경상소득의 所得分配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계측한 소득불평등도는 세전 소득불평등

도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稅前 所得分配 즉, 소득의 1차분배는 市場機能에 맡기고 소득의 재분배 즉, 2차분배에서 稅金과 社會保障 制度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대폭 완화시킨다. 예를 들면 稅前 Gini계수는 미국의 경우 0.455, 독일은 0.436, 스웨덴은 0.487로 모두 우리나라의 稅前 Gini계수보다 높으나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조세 및 社會보장을 통한 再分配 이후 Gini계수가 각각 0.282와 0.230으로 세 전 Gini 계수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소득분배구조가 市場經濟와 生産的 福祉를 동시에 달성하는 분배 구조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소득 과약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영자의 소득과약률을 제고 하며 동시에 稅源의 투명화를 통한 公平課稅의 實現과 社會보장의 소득이전 기능을 강화하여 1차분배보다는 2차분배에 역점을 두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석훈, 「한국의 소득분배 - OECD 국가와의 정태적 비교」, 『월간경제』, 대우경제연구소, 1996. 10.
- 권순원·고일동·김관영·김성우, 『분배불균형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1989.
- 김진욱,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 - 가계 특성에 의거한 균등화 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1996.
- 나성린, 『한국의 조세/사회부조 모형』, 한국개발연구원, 1991.
- 박순일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안국신 외,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제6권, 1995.
- 연하청, 「사회보장제도의 자원배분 및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1989 봄.
- 안창수 외, 『1988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 유종구·주학중,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6 겨울.
-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6.

- 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1986.
- 정경배 외,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 연구』 제46집 제3호, 1998. 9.
- Altimir Oscar,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through Crisis and Adjustment", *CEPAL Review* 52, April 1994.
- Blackwood D. L. & Lynch R. G., "The Measurement of Inequqlity and Poverty: A Policy Maker's Guide to the Literature" *World Development*, Vol.22, No.4, 1994.
- Bourguignon François; Fields Gary, "Discontinuous Losses from Poverty, Generalized Pa-Measures, and Optimal Transfers to the Po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3, 1997.
- Burniaux J-M., Dang T-T., Fore D., Förster M., d'Ercole M. M. and Oxley H.,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89. ECO/WKP (98)2 OECD*, 1998.
- Chambaz Christine and Maurin Eric, "Poverty in Spain, France,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A Method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overty Levels," *INSEE Studies No.23*, December 1998.
- ECLAC, *Social Pnorama of Latin America*, U.N., 1994.
- EUROSTAT, "Poverty in Figures: Europe in the Early 1980s," Study carried out by the Institute of Social Studies Advisory Service(Issas).

- Fleurbaey Marc, Herpin Nicolas, Martinez Michel and Verger Daniel, "Can Poverty be Measured?" *INSEE Studies No.21*, November 1998.
- Förster Michael F., *Measurement of Low Incomes and Poverty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4, OECD/GD(94)10, OECD, Paris 1994.
- Hourriez Jean-Michel and Lier Lucile, "Standard of Living and Household Size: Equivalence Scale Estimates," *INSEE Studies No.26*, January 1999.
- Hourriez Jean-Michel and Legris Bernard, "The Monetary Approach to Poverty: Methodology and Results," *INSEE Studies No.22*, November 1998.
- Hurd, M.,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VIII, June 1990.
- Kakwani, N. C., and Podder, N., "Efficient Estimation of The Lorenz Curve and Associated Inequality Measures from Grouped Observations", *Econometrica*, Vol.44, No.1, January 1976.
- _____, "On the Estimation of Lorenz Curves from Grouped Observ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14, No. 2, June, 1973.
- Kakwani, N. C., "On the Estimation of Income Inequality Measures from Grouped Observ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43, 1976.

_____,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 Methods of Estimation and Policy Applications*, The World Bank Research Publ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Matteo Lacoviello, "Inequality Dynamics: Evidence from Some European Countries"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Working Paper No.191, October 1998.

Messinger Hans, Fedyk Frank and Zeesman Alle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Poverty Gap in Canada: A Micro Analysis of Variation among Demographic Group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4, No.3, September 1988.

Park, Chanyong and Kim Meesook, *Current Poverty Issu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KIHASA-UNDP 1998.

Rowntree, B. S.,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1901.

Townsend, P.,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1987.

Yoo J. 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Individual Welfare Inequality in Korea: 1965 ~1983*, 1985, pp.130 ~ 131.

附 錄

附錄 1. 非勤勞者家口の 所得推定式 / 199

附錄 2. 貧困家口 特性別 比率 / 206

附錄 1. 非勤勞者家口의 所得推定式

1996년 1/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3.993689 (29.894)	4.863399 (29.282)	5.893083 (34.786)
α_2	1.759993 (3.160)	2.307129 (3.782)	1.471616 (2.262)
α_3	1.211104 (5.714)	0.914767 (3.503)	0.320899 (1.175)
α_4	0.693089 (2.370)	2.116472 (6.503)	0.921984 (2.664)
β_1	0.225853 (11.734)	0.253399 (11.557)	0.270022 (11.824)
β_2	0.201213 (2.221)	0.214521 (2.091)	0.205275 (1.923)
β_3	0.072210 (2.380)	0.085099 (2.473)	0.078795 (2.201)
β_4	-0.029240 (-0.747)	0.013692 (0.309)	0.016514 (0.359)
γ_1	0.653542 (71.796)	0.612687 (52.263)	0.542842 (45.096)
γ_2	-0.145114 (-3.801)	-0.188073 (-4.343)	-0.130519 (-2.808)
γ_3	-0.094687 (-6.530)	-0.078623 (-4.261)	-0.037656 (-1.940)
γ_4	-0.044931 (-2.213)	-0.153844 (-6.628)	-0.072531 (-2.933)
결정계수(R^2)	0.5461	0.4164	0.3702

1996년 2/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003141 (29.464)	4.5679339 (26.405)	5.858307 (31.768)
α_2	1.666694 (2.909)	2.916881 (4.116)	2.065649 (2.858)
α_3	1.081977 (5.015)	0.576382 (2.084)	0.228734 (0.771)
α_4	0.609137 (2.050)	1.585794 (4.610)	0.085512 (0.222)
β_1	0.204613 (10.745)	0.206194 (9.540)	0.219216 (9.520)
β_2	0.350143 (3.975)	0.392600 (3.954)	0.387071 (3.686)
β_3	0.126143 (4.208)	0.157015 (4.640)	0.162658 (4.523)
β_4	0.062966 (1.613)	0.089553 (2.031)	0.061728 (1.312)
γ_1	0.651789 (70.322)	0.633629 (51.741)	0.545444 (41.426)
γ_2	-0.149363 (-3.836)	-0.244092 (-4.882)	-0.185859 (-3.633)
γ_3	-0.088875 (-5.979)	-0.059004 (-2.994)	-0.036307 (-1.706)
γ_4	-0.043848 (-2.121)	-0.119070 (-4.821)	-0.013449 (-0.483)
결정계수(R^2)	0.5288	0.4040	0.3332

1996년 3/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3.686903 (26.317)	4.860788 (28.173)	5.382179 (30.412)
α_2	1.750142 (3.124)	0.726085 (1.038)	1.011798 (1.468)
α_3	0.641823 (2.883)	0.391080 (1.427)	0.472022 (1.692)
α_4	1.715670 (5.535)	2.645841 (7.781)	1.672796 (4.544)
β_1	0.208671 (10.843)	0.233233 (10.557)	0.240645 (10.598)
β_2	0.257365 (2.856)	0.185585 (1.783)	0.200645 (1.883)
β_3	0.062102 (2.088)	0.058466 (1.717)	0.057223 (1.636)
β_4	0.078596 (1.948)	0.114716 (2.498)	0.092435 (1.953)
γ_1	0.672631 (70.497)	0.609317 (50.212)	0.575050 (45.969)
γ_2	-0.148503 (-3.904)	-0.073856 (-1.487)	-0.095088 (-1.935)
γ_3	-0.053712 (-3.530)	-0.037596 (-1.944)	-0.043497 (-2.198)
γ_4	-0.120824 (-5.609)	-0.194983 (-8.041)	-0.126811 (-4.806)
결정계수(R^2)	0.5357	0.3969	0.3667

1996년 4/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088800 (30.432)	4.932965 (29.512)	6.220315 (34.590)
α_2	3.473268 (6.232)	2.364120 (3.302)	1.906777 (2.628)
α_3	1.356160 (6.555)	0.872694 (3.336)	0.444890 (1.587)
α_4	0.972882 (3.205)	1.735976 (5.008)	0.971676 (2.511)
β_1	0.193795 (10.246)	0.183459 (8.471)	0.213700 (9.240)
β_2	0.247313 (2.392)	0.351695 (3.076)	0.362852 (2.998)
β_3	0.012133 (0.416)	0.067806 (2.046)	0.054743 (1.549)
β_4	0.027516 (0.696)	0.055120 (1.228)	0.025354 (0.529)
γ_1	0.649573 (71.143)	0.613004 (51.897)	0.524289 (40.966)
γ_2	-0.263044 (-6.648)	-0.202861 (-3.921)	-0.173580 (-3.300)
γ_3	-0.097501 (-6.895)	-0.070712 (-3.819)	-0.041013 (-2.054)
γ_4	-0.065025 (-3.121)	-0.125736 (-5.120)	-0.072187 (-2.617)
결정계수 (R^2)	0.5258	0.3933	0.3146

1997년 1/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854698 (37.447)	5.262817 (33.462)	5.981807 (37.065)
α_2	2.044736 (4.046)	0.733260 (1.100)	0.283255 (0.420)
α_3	0.965326 (4.668)	1.101459 (4.423)	1.064223 (4.149)
α_4	-0.111085 (-0.347)	1.276501 (3.561)	1.207862 (3.257)
β_1	0.296379 (15.862)	0.293255 (14.095)	0.304592 (14.069)
β_2	0.104393 (1.006)	0.109048 (0.947)	0.121609 (1.022)
β_3	0.034661 (1.216)	0.29700 (0.936)	0.045031 (1.368)
β_4	-0.021974 (-0.546)	0.026822 (0.602)	0.034284 (0.742)
γ_1	0.591080 (67.295)	0.582778 (52.668)	0.535095 (46.815)
γ_2	-0.152084 (-4.335)	-0.064799 (-1.348)	-0.035768 (-0.734)
γ_3	-0.074278 (-5.286)	-0.085428 (-4.858)	-0.084901 (-4.665)
γ_4	0.011979 (0.543)	-0.092544 (-3.642)	-0.090080 (-3.413)
결정계수 (R^2)	0.5304	0.4270	0.3828

1997년 2/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501854 (33.734)	4.727479 (28.015)	5.789394 (32.932)
α_2	2.297956 (4.919)	1.348738 (2.154)	1.099870 (1.682)
α_3	1.508641 (7.205)	1.187313 (4.340)	0.696118 (2.394)
α_4	0.960186 (3.038)	2.384351 (6.875)	1.227708 (3.149)
β_1	0.282547 (15.265)	0.294819 (14.309)	0.310048 (14.329)
β_2	0.047334 (0.497)	0.072361 (0.685)	0.112704 (1.023)
β_3	0.034096 (1.187)	0.025540 (0.798)	0.024119 (0.718)
β_4	0.015622 (0.384)	0.056033 (1.244)	0.025897 (0.543)
γ_1	0.611680 (67.569)	0.614700 (51.869)	0.542608 (43.675)
γ_2	-0.164861 (-5.043)	-0.104571 (-2.309)	-0.091384 (-1.926)
γ_3	-0.109408 (-7.666)	-0.088266 (-4.561)	-0.054881 (-2.654)
γ_4	-0.062235 (-2.847)	-0.169293 (-6.875)	-0.087713 (-3.139)
결정계수 (R^2)	0.5150	0.4050	0.3475

1997년 3/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477993 (34.510)	5.717076 (35.283)	6.367454 (37.986)
α_2	3.012608 (5.917)	2.553807 (4.354)	2.537834 (4.391)
α_3	1.248799 (5.903)	0.947271 (3.598)	0.688790 (2.478)
α_4	1.342115 (4.151)	2.023246 (5.633)	1.619735 (4.229)
β_1	0.229071 (13.195)	0.224681 (11.167)	0.230029 (11.016)
β_2	0.196398 (2.265)	0.290019 (2.962)	0.320824 (3.187)
β_3	0.076442 (2.747)	0.058218 (1.805)	0.053906 (1.611)
β_4	0.032994 (0.850)	0.030050 (0.671)	0.018067 (0.388)
γ_1	0.620872 (70.818)	0.555924 (48.824)	0.512672 (43.263)
γ_2	-0.228368 (-6.390)	-0.210854 (-4.990)	-0.213221 (-5.112)
γ_3	-0.096385 (-6.729)	-0.076586 (-4.122)	-0.058710 (-2.975)
γ_4	-0.090350 (-4.079)	-0.143898 (-5.646)	-0.116001 (-4.240)
결정계수 (R^2)	0.5237	0.3730	0.3304

1997년 4/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210825 (30.963)	4.554289 (26.461)	5.357063 (30.949)
α_2	3.268910 (6.398)	2.871258 (4.982)	3.035636 (5.356)
α_3	0.700039 (3.154)	1.730513 (6.351)	0.920629 (3.231)
α_4	1.492492 (4.608)	2.392400 (6.359)	1.125671 (2.752)
β_1	0.276850 (14.501)	0.260886 (12.033)	0.264579 (11.838)
β_2	0.089453 (0.953)	0.105668 (1.002)	0.137202 (1.257)
β_3	0.32414 (1.081)	0.060098 (1.771)	0.051556 (1.474)
β_4	-0.015712 (-0.387)	0.057394 (1.259)	0.032998 (0.701)
γ_1	0.632148 (68.990)	0.629242 (52.300)	0.576472 (47.319)
γ_2	-0.233544 (-6.656)	-0.213192 (-5.212)	-0.228571 (-5.629)
γ_3	-0.054079 (-3.603)	-0.128321 (-6.717)	-0.072540 (-3.608)
γ_4	-0.096337 (-4.341)	-0.169183 (-6.398)	-0.080515 (-2.780)
결정계수 (R^2)	0.5223	0.3964	0.3642

1998년 1/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817747 (36.958)	6.913290 (47.047)	7.014390 (43.568)
α_2	1.169369 (2.067)	-0.033230 (-0.055)	0.084448 (0.129)
α_3	0.680077 (3.361)	0.364555 (1.610)	0.068817 (0.279)
α_4	1.051020 (3.320)	2.459364 (8.240)	1.473124 (4.248)
β_1	0.258725 (13.340)	0.345744 (15.598)	0.345492 (15.238)
β_2	0.039607 (0.500)	0.014546 (0.161)	0.017702 (0.192)
β_3	0.101361 (3.430)	0.066864 (1.975)	0.063895 (1.847)
β_4	-0.029085 (-0.662)	-0.004917 (-0.098)	-0.035712 (-0.692)
γ_1	0.589868 (66.747)	0.460797 (44.706)	0.455277 (40.080)
γ_2	-0.086237 (-2.268)	-0.004640 (-0.112)	-0.012662 (-0.277)
γ_3	-0.060740 (-4.423)	-0.039637 (-2.490)	-0.018936 (-1.088)
γ_4	-0.067117 (-3.055)	-0.176313 (-8.276)	-0.104754 (-4.192)
결정계수 (R^2)	0.5265	0.3749	0.3505

1

1998년 2/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5.378170 (40.973)	7.571855 (53.017)	7.285273 (47.063)
α_2	1.216969 (2.307)	0.925470 (1.740)	0.418096 (0.692)
α_3	-0.434484 (-2.168)	-1.198076 (-5.280)	-1.092802 (-4.473)
α_4	0.490871 (1.503)	1.351751 (4.204)	0.940544 (2.630)
β_1	0.279654 (14.795)	0.362500 (16.814)	0.344982 (15.764)
β_2	0.089249 (1.208)	0.009559 (0.112)	0.027983 (0.323)
β_3	0.047842 (1.639)	0.000222 (0.007)	0.027690 (0.819)
β_4	-0.047499 (-1.070)	-0.005698 (-0.113)	-0.010412 (-0.203)
γ_1	0.547186 (61.085)	0.409443 (40.604)	0.431837 (39.250)
γ_2	-0.095524 (-2.652)	-0.072549 (-1.907)	-0.038638 (-0.893)
γ_3	0.019656 (1.437)	0.076349 (4.752)	0.067338 (3.876)
γ_4	-0.027227 (-1.193)	-0.098878 (-4.303)	-0.069230 (-2.689)
결정계수 (R^2)	0.5199	0.3686	0.3581

1998년 3/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5.812529 (4.7861)	7.046330 (50.386)	7.663039 (52.027)
α_2	-0.128601 (-0.264)	1.052325 (2.203)	-0.489230 (-0.812)
α_3	-0.221661 (-1.177)	-1.019010 (-4.556)	-0.871409 (-3.727)
α_4	-0.138381 (-0.482)	0.095399 (0.316)	0.153164 (0.494)
β_1	0.283623 (16.038)	0.337781 (17.039)	0.356216 (17.157)
β_2	-0.064466 (-0.911)	-0.057708 (-0.729)	-0.088525 (-1.065)
β_3	0.015284 (0.552)	-0.044199 (-1.419)	-0.038951 (-1.195)
β_4	-0.132033 (-3.205)	-0.157777 (-3.396)	-0.154945 (-3.190)
γ_1	0.524489 (63.406)	0.454607 (46.050)	0.412013 (39.453)
γ_2	0.010908 (0.328)	-0.071799 (-2.124)	0.037215 (0.869)
γ_3	0.009610 (0.750)	0.069996 (4.415)	0.0588478 (3.539)
γ_4	0.021851 (1.085)	0.002806 (0.128)	-0.002950 (-0.131)
결정계수 (R^2)	0.5493	0.4320	0.3780

1998년 4/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819699 (36.660)	7.034837 (46.921)	7.055161 (45.736)
α_2	0.035902 (0.068)	0.747548 (1.286)	0.289497 (0.473)
α_3	-0.263451 (-1.256)	-0.796108 (-3.305)	-1.703626 (-6.691)
α_4	0.202193 (0.613)	0.222002 (0.626)	-0.383483 (-1.013)
β_1	0.292364 (14.654)	0.334723 (14.345)	0.331485 (14.179)
β_2	0.167417 (2.014)	0.199144 (2.058)	0.186922 (1.930)
β_3	0.021296 (0.683)	0.053488 (1.475)	0.046818 (1.290)
β_4	-0.124711 (-2.681)	-0.073598 (-1.363)	-0.080791 (-1.492)
γ_1	0.582692 (65.359)	0.448308 (42.256)	0.448321 (40.878)
γ_2	-0.021063 (-0.581)	-0.073753 (-1.780)	-0.041246 (-0.943)
γ_3	0.010301 (0.719)	0.042928 (2.517)	0.106690 (5.899)
γ_4	0.001414 (0.061)	-0.011467 (-0.452)	0.032088 (1.178)
결정계수 (R^2)	0.5391	0.3768	0.3795

1999년 1/4분기

	총수입	소득	경상소득
α_1	4.932648 (39.090)	7.35763 (51.818)	7.648368 (49.707)
α_2	-0.159644 (-0.272)	-0.232767 (-0.385)	-0.330280 (-0.510)
α_3	0.869473 (4.478)	-0.886166 (-3.891)	-0.861393 (-3.541)
α_4	0.537107 (1.762)	0.660358 (2.106)	0.613886 (1.751)
β_1	0.322432 (16.533)	0.405714 (17.827)	0.420239 (17.841)
β_2	0.006365 (0.082)	0.022023 (0.245)	0.031491 (0.341)
β_3	-0.057113 (-1.868)	-0.074896 (-2.107)	-0.087013 (-2.366)
β_4	-0.128652 (-2.989)	-0.174933 (-3.485)	-0.198229 (-3.797)
γ_1	0.582509 (68.003)	0.431732 (43.080)	0.412265 (37.757)
γ_2	0.005944 (0.145)	0.005784 (0.132)	0.011652 (0.248)
γ_3	-0.059476 (-4.514)	0.060985 (3.807)	0.060148 (3.495)
γ_4	-0.025146 (-1.184)	-0.040277 (-1.784)	-0.035961 (-1.415)
결정계수 (R ²)	0.5693	0.4152	0.3724

附錄 2. 貧困家口 特性別 比率

1996년 1/4분기

(단위: %)

가 구 주 학 력	가 구 주 연 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	-
	30	0.189	-	-	-	0.694	0.505	0.442	0.316
	40	-	0.063	0.316	0.126	1.073	1.957	1.957	0.884
	50	-	-	0.126	0.063	0.316	0.316	1.199	0.758
	60	0.189	-	0.253	-	0.568	0.253	3.788	1.326
중 학 졸	20	0.063	-	-	-	0.126	0.189	0.253	0.505
	30	0.126	0.189	0.063	0.253	2.083	0.694	2.778	0.505
	40	0.253	0.253	0.253	-	0.884	0.884	2.336	0.884
	50	0.063	-	-	0.126	0.253	0.063	1.199	0.063
	60	-	-	0.253	-	0.442	-	0.694	0.316
고 교 졸	20	0.379	0.316	0.442	0.063	1.705	1.136	1.705	1.326
	30	0.694	0.253	2.462	0.126	4.167	1.389	8.965	1.326
	40	0.063	-	0.505	-	1.199	0.379	3.535	0.316
	50	-	-	0.316	0.253	0.063	0.063	1.515	0.126
	60	-	-	0.189	0.189	-	-	1.641	0.189
대 졸	20	0.063	-	-	-	0.063	0.253	1.073	0.316
	30	0.126	0.126	1.199	0.126	1.199	0.316	3.346	0.063
	40	-	0.126	0.189	-	0.126	-	0.694	-
	50	0.316	0.253	-	-	-	0.063	0.063	0.063
	60	-	-	-	-	-	-	0.568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6년 2/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	-
	30	0.207	-	-	-	0.758	0.413	0.138	0.275
	40	-	-	0.138	0.069	0.964	1.515	1.377	0.826
	50	-	-	0.207	0.138	0.413	0.207	0.826	1.240
	60	-	-	0.275	-	0.344	0.138	3.926	1.033
중 학 졸	20	-	-	-	-	0.620	0.275	0.138	0.207
	30	-	0.069	0.207	-	0.758	0.344	2.893	0.826
	40	0.138	-	0.138	-	1.033	0.620	1.722	0.620
	50	0.138	-	0.069	0.275	0.138	-	1.446	0.207
	60	-	-	0.344	-	0.344	-	0.826	0.344
고 교 졸	20	0.069	0.344	-	0.138	1.928	0.826	2.273	1.653
	30	0.757	-	2.204	0.413	4.201	0.826	9.160	1.377
	40	0.275	0.138	0.620	-	0.758	0.413	5.579	0.689
	50	-	-	0.482	0.069	0.069	0.275	1.653	-
	60	-	-	0.413	0.207	-	-	1.860	0.069
대 졸	20	0.207	0.069	-	-	0.413	0.413	0.895	0.207
	30	0.344	-	0.551	-	0.826	0.344	3.306	0.069
	40	-	-	0.207	-	0.275	-	0.895	0.207
	50	-	0.207	-	-	-	-	-	-
	60	0.207	-	0.069	-	-	-	0.758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6년 3/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0.152	-	-	-
	30	0.076	-	-	-	0.457	0.305	0.457	0.152
	40	-	-	0.457	-	0.762	1.601	1.220	1.067
	50	0.076	-	0.152	0.152	0.305	0.534	0.610	0.838
	60	0.076	-	0.152	-	0.305	0.305	3.506	1.220
중 학 졸	20	0.076	-	-	0.305	0.610	0.534	0.229	0.076
	30	-	0.076	0.229	-	1.067	1.067	3.201	0.534
	40	0.152	-	-	0.229	1.601	0.152	1.982	0.229
	50	0.076	-	-	-	0.229	0.076	1.067	0.076
	60	-	-	0.381	-	0.229	-	0.534	0.381
고 교 졸	20	0.076	0.457	-	-	2.287	1.220	2.439	1.677
	30	0.686	0.076	1.372	0.152	3.582	0.762	11.280	1.372
	40	-	0.152	0.915	0.152	0.838	0.076	5.030	0.762
	50	-	-	0.457	-	0.076	0.152	0.991	0.076
	60	-	-	0.305	0.076	-	-	1.524	0.305
대 졸	20	-	0.381	-	-	0.152	0.152	0.838	-
	30	0.076	-	0.838	-	0.991	0.381	3.735	0.152
	40	0.152	-	0.152	-	0.305	-	0.915	-
	50	-	0.305	-	-	-	-	-	-
	60	0.229	-	-	-	-	-	0.457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6년 4/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	-
	30	-	-	0.268	-	0.804	0.134	0.402	0.268
	40	-	-	0.067	-	1.139	1.005	1.408	1.340
	50	0.201	-	-	0.134	0.201	0.469	1.475	1.340
	60	0.067	-	0.067	-	0.268	0.067	4.692	1.072
중 학 졸	20	-	-	0.067	0.067	0.469	0.335	0.134	0.268
	30	-	0.268	0.335	-	0.871	1.206	2.346	0.737
	40	0.469	0.067	-	0.268	0.737	-	1.944	0.469
	50	0.067	-	-	-	0.134	0.201	1.340	0.201
	60	-	-	0.268	-	0.335	-	0.938	0.402
고 교 졸	20	0.268	0.335	0.134	-	1.072	1.139	2.480	1.340
	30	0.670	0.134	1.877	0.134	1.877	1.340	10.724	2.346
	40	-	0.134	0.804	-	0.670	0.201	6.099	0.737
	50	-	-	0.268	0.268	-	-	0.670	0.201
	60	-	-	0.067	0.201	-	-	2.011	0.201
대 졸	20	0.402	-	-	0.134	0.134	-	0.737	0.268
	30	0.201	-	1.609	-	0.871	0.134	3.552	0.134
	40	0.067	-	0.268	-	0.335	0.067	1.005	-
	50	-	0.201	0.067	-	-	-	0.469	-
	60	0.134	-	-	-	-	-	-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7년 1/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0.064	
	30	0.127	0.127	0.191	-	1.399	0.254	0.445	0.064
	40	-	-	0.509	-	0.954	1.589	1.017	0.826
	50	0.254	0.127	-	0.191	0.318	0.318	1.589	0.763
	60	-	-	0.318	-	0.318	0.191	5.213	1.399
중 학 졸	20	-	-	-	0.191	0.381	0.191	0.318	0.127
	30	0.063	-	0.064	-	1.335	0.763	2.606	0.572
	40	0.508	-	0.127	0.064	1.335	0.254	1.844	0.763
	50	0.063	-	-	0.127	0.191	0.127	0.636	0.318
	60	-	-	0.127	0.127	0.127	-	1.526	0.763
고 교 졸	20	0.318	0.127	0.127	0.064	1.526	0.572	2.416	0.826
	30	1.271	0.191	2.161	0.636	2.161	1.462	10.235	1.780
	40	0.254	0.127	1.017	0.064	0.636	0.445	4.132	0.699
	50	0.127	0.127	0.699	0.127	0.254	-	0.636	-
	60	-	-	0.191	-	-	-	1.907	0.191
대 졸	20	0.254	0.064	-	-	-	-	0.572	0.445
	30	0.445	-	0.826	-	0.826	-	3.497	0.064
	40	0.191	-	0.254	-	0.191	0.064	0.572	-
	50	-	0.064	-	-	-	-	0.127	-
	60	0.127	-	0.191	-	-	-	0.445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7년 2/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0.300	-
	30	-	0.075	0.225	-	0.300	0.300	0.375	0.150
	40	-	-	0.375	-	0.450	1.049	0.675	1.724
	50	-	-	-	0.375	0.150	0.075	1.274	0.750
	60	-	-	0.075	-	0.600	0.300	5.472	2.474
중 학 졸	20	-	-	-	0.225	0.675	0.150	0.600	0.075
	30	0.075	0.300	0.450	-	1.199	1.049	2.024	0.525
	40	0.075	-	0.300	0.075	0.825	0.450	2.174	0.600
	50	-	-	0.150	0.150	0.075	0.150	1.574	0.450
	60	-	-	0.450	-	0.300	-	1.724	0.225
고 교 졸	20	0.675	0.075	0.075	-	1.274	0.600	1.949	1.049
	30	0.525	0.300	2.399	0.525	2.324	0.900	8.171	1.199
	40	-	0.075	0.600	-	1.049	0.450	3.523	0.825
	50	-	-	0.825	0.300	0.225	0.075	0.975	-
	60	-	-	0.075	-	0.075	-	1.799	0.075
대 졸	20	0.075	-	-	-	0.750	-	0.675	0.750
	30	0.375	-	0.825	-	0.600	-	3.448	0.300
	40	0.075	-	0.375	-	0.375	0.150	0.825	0.075
	50	-	0.225	-	0.150	-	-	-	-
	60	-	-	0.150	-	-	-	0.675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7년 3/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0.307	-
	30	-	-	0.154	0.077	0.231	0.307	0.461	0.154
	40	-	-	0.307	-	0.461	0.999	1.230	1.076
	50	0.154	0.077	-	0.154	0.231	0.307	1.076	0.538
	60	-	-	0.154	-	0.231	0.461	5.534	2.229
중 학 졸	20	-	-	-	-	0.461	0.154	0.846	-
	30	0.154	-	0.231	0.154	1.153	0.846	1.922	0.461
	40	0.230	-	0.538	0.077	0.307	0.231	2.229	0.461
	50	0.077	-	0.307	0.077	0.307	-	1.614	0.307
	60	0.077	-	0.154	0.231	0.154	-	1.691	0.615
고 교 졸	20	0.384	-	0.384	0.154	1.076	0.538	2.613	0.922
	30	0.615	0.077	2.383	0.307	2.690	0.769	9.685	1.768
	40	0.077	0.154	0.769	-	0.538	-	4.919	0.769
	50	-	-	0.769	0.384	0.077	0.077	1.153	-
	60	-	-	0.231	-	-	-	3.075	0.154
대 졸	20	0.231	0.077	0.077	-	0.692	0.077	0.692	0.307
	30	0.307	-	0.769	-	0.692	0.077	3.151	0.231
	40	-	-	0.307	-	-	0.077	0.461	-
	50	-	-	-	0.384	-	-	-	-
	60	-	-	0.154	-	-	-	0.538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7년 4/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0.066	-
	30	-	-	0.265	-	0.199	0.133	0.994	0.199
	40	-	-	0.133	0.133	0.265	0.994	1.060	1.458
	50	-	-	-	0.199	0.795	0.331	1.590	0.596
	60	-	-	0.265	0.066	0.729	0.199	5.036	1.856
중 학 졸	20	0.132	-	-	-	0.066	0.066	0.331	0.133
	30	0.132	0.066	0.199	0.199	0.928	0.398	2.717	0.729
	40	0.199	-	0.596	0.133	1.590	0.464	2.452	0.729
	50	0.132	-	0.066	-	-	0.331	1.789	0.066
	60	-	-	0.133	0.265	0.265	-	1.590	0.331
고 교 졸	20	0.066	0.133	0.331	0.066	1.127	0.398	1.856	1.127
	30	0.530	0.066	3.579	0.265	2.054	0.663	8.217	1.922
	40	0.199	0.331	1.060	0.133	0.663	0.199	5.964	0.928
	50	0.133	0.066	0.729	0.265	-	0.066	0.861	-
	60	-	-	0.199	-	0.331	-	2.253	0.331
대 졸	20	-	-	-	0.066	0.464	0.066	1.060	0.331
	30	0.199	-	0.994	-	1.392	-	2.253	0.199
	40	-	-	0.199	-	-	0.133	1.127	0.066
	50	-	-	0.066	0.133	-	-	0.066	-
	60	-	-	0.331	-	-	-	1.060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8년 1/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0.170	-
	30	0.170	-	0.298	-	0.128	0.341	0.937	0.341
	40	0.128	-	0.085	0.085	0.468	0.894	0.851	0.426
	50	0.085	-	0.383	0.085	0.170	0.298	1.575	0.809
	60	0.085	-	1.277	0.170	0.596	0.255	3.917	0.724
중 학 졸	20	-	-	0.043	-	0.085	0.085	0.426	-
	30	0.255	-	0.383	0.043	1.320	0.170	3.321	0.639
	40	0.383	-	0.255	-	0.851	0.639	1.703	0.383
	50	0.170	-	0.255	0.170	0.511	0.043	1.107	0.894
	60	-	-	0.043	0.043	0.341	-	1.192	-
고 교 졸	20	0.298	-	0.553	0.085	2.639	0.298	2.937	1.235
	30	0.937	0.043	2.001	0.170	5.534	1.192	10.941	1.362
	40	0.255	-	0.979	0.553	1.405	0.128	5.917	0.894
	50	-	-	0.383	-	0.213	-	1.405	0.128
	60	-	-	0.383	-	0.213	-	1.107	0.043
대 졸	20	0.255	0.085	0.213	0.213	0.553	-	0.681	0.298
	30	0.468	-	0.937	-	1.703	-	4.215	0.170
	40	-	-	0.043	-	0.298	-	0.894	0.128
	50	-	-	0.170	-	-	-	0.511	-
	60	-	-	0.213	-	-	-	0.851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8년 2/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0.082	0.123	-
	30	0.041	0.123	-	0.123	0.409	0.409	0.532	0.491
	40	0.204	-	0.368	-	0.204	0.736	1.227	0.695
	50	0.123	0.164	0.532	0.082	0.368	0.123	1.595	1.268
	60	-	-	1.350	0.164	0.654	-	4.049	0.859
중 학 졸	20	-	-	0.123	-	0.204	0.613	0.327	0.041
	30	0.041	0.041	0.245	0.204	0.900	1.104	2.699	0.736
	40	0.327	0.123	0.900	-	1.145	0.204	2.740	0.654
	50	0.286	-	0.450	0.286	0.777	0.082	1.636	0.573
	60	0.123	-	0.327	-	0.204	-	1.677	0.082
고 교 졸	20	0.409	-	0.327	0.082	1.963	0.164	3.149	1.186
	30	0.409	0.082	1.431	0.123	4.335	-	9.611	1.922
	40	0.286	-	0.736	0.041	1.554	-	5.685	1.186
	50	0.041	-	0.409	-	0.123	-	1.145	-
	60	-	-	0.409	-	0.245	-	1.350	-
대 졸	20	0.123	-	0.245	0.204	0.613	0.123	1.186	0.164
	30	0.409	0.082	0.532	0.041	0.818	0.532	3.517	0.123
	40	0.204	-	0.123	0.164	0.245	1.227	0.368	-
	50	-	-	0.123	-	0.082	1.595	0.573	0.082
	60	-	-	0.286	-	-	4.049	0.491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8년 3/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0.041	0.041	0.203	-
	30	0.122	0.122	0.162	0.081	0.324	0.324	0.608	0.243
	40	0.081	0.081	0.122	-	0.243	1.176	1.257	0.811
	50	0.041	0.203	0.486	0.041	0.284	0.567	1.257	0.932
	60	-	-	0.730	-	0.567	0.122	4.378	1.054
중 학 졸	20	-	-	0.203	-	0.324	0.081	0.365	0.284
	30	0.122	-	0.243	0.081	0.851	0.527	2.635	0.324
	40	0.284	-	0.649	0.041	1.581	0.608	1.986	0.811
	50	0.122	-	0.405	0.365	0.892	0.203	1.865	0.446
	60	0.162	-	0.203	-	0.243	-	1.581	-
고 교 졸	20	0.324	0.081	0.405	0.041	1.946	0.527	2.229	1.419
	30	0.608	0.203	1.540	0.203	4.094	1.378	10.823	1.784
	40	0.365	0.041	0.567	0.081	1.621	-	5.310	0.689
	50	0.122	-	0.405	0.081	0.122	-	1.581	-
	60	-	-	0.446	0.081	0.405	0.041	1.662	-
대 졸	20	0.081	0.041	0.365	0.162	0.243	-	1.257	0.041
	30	0.203	0.122	0.567	-	1.378	-	3.162	0.324
	40	0.162	-	0.203	0.122	0.203	-	0.486	0.041
	50	-	-	0.081	0.041	0.081	-	0.324	-
	60	-	-	0.486	-	-	-	0.486	-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8년 4/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	-		
	30	0.212	0.042	0.127	0.085	0.340	0.382	0.297	0.382
	40	-	-	0.255	0.170	0.297	0.552	1.147	0.552
	50	0.042	-	0.297	-	0.085	0.212	1.232	1.445
	60	0.042	-	0.552	-	0.510	0.042	3.782	1.147
중 학 졸	20	0.042	-	0.170	-	0.510	-	0.510	0.127
	30	0.170	0.085	0.467	0.297	1.020	0.510	2.040	0.510
	40	0.595	0.127	0.807	-	1.700	0.255	2.125	0.637
	50	0.042	-	0.510	0.297	0.297	0.255	1.530	0.382
	60	0.170	-	0.127	-	0.255	-	1.190	0.085
고 교 졸	20	0.552	0.085	0.255	0.085	1.742	0.595	2.507	1.572
	30	0.807	0.212	1.615	0.255	3.952	0.977	10.582	2.337
	40	0.340	0.085	0.765	0.170	1.445	0.085	5.027	0.850
	50	-	-	0.425	-	0.085	-	1.445	0.127
	60	-	-	0.382	-	0.382	0.127	1.870	
대 졸	20	0.042	-	0.425	-	0.425	0.127	1.147	0.255
	30	0.127	0.042	0.850	-	1.062	0.085	3.315	0.467
	40	-	0.042	0.467	0.085	0.170	0.042	0.892	0.042
	50	-	-	0.212	0.042	-	-	0.340	
	60	-	-	0.510	-	-	-	0.425	0.042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1999년 1/4분기

(단위: %)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서울지역 거주				기타 도시지역 거주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초 등 졸	20	-	-	-	-	0.068	0.068	0.068	-
	30	0.013	0.009	0.203	0.034	0.237	0.304	0.440	0.338
	40	0.004	-	0.034	-	0.541	1.218	1.184	0.778
	50	0.013	-	0.338	0.271	0.203	0.440	1.116	1.590
	60	0.004	-	0.677	0.034	0.169	0.101	4.127	1.150
중 학 졸	20	-	-	0.169	-	0.135	-	0.203	0.068
	30	0.017	0.017	0.744	0.068	1.319	0.507	2.300	0.778
	40	0.026	0.013	0.643	-	1.049	0.710	2.842	0.474
	50	0.017	-	0.609	0.169	0.474	0.203	1.962	0.677
	60	0.022	-	0.203	-	0.169	-	1.894	0.034
고 교 졸	20	0.035	-	0.778	0.135	1.928	0.372	2.300	0.677
	30	0.096	0.022	1.488	0.237	4.229	1.049	9.709	2.334
	40	0.030	0.026	0.710	0.135	1.455	0.474	5.074	1.083
	50	0.004	-	0.338	-	0.203	0.101	2.064	0.203
	60	-	-	0.575	-	0.440	-	1.556	0.068
대 졸	20	0.022	-	0.474	0.135	0.338	-	0.710	0.406
	30	0.030	0.004	0.913	0.169	1.083	0.101	3.045	0.169
	40	0.004	0.009	0.304	0.068	0.304	-	0.744	0.034
	50	-	-	0.034	-	0.135	-	0.271	0.034
	60	-	-	0.304	-	-	-	0.541	0.068

註: - 는 해당가구 없음.

□ 著者 略歷 □

• 朴 讚 用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프랑스 Institut des Etudes Politiques de Paris 經濟學 博士

ILO 勞動統計 貧困調查研究員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副研究委員

〈主要 著書〉

『Current Poverty Issu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KIHASA·UNDP, 1998.(共著)

『最低生計費 計測模型開發』,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8.(共著)

• 金 振 郁

프랑스 파리 I 大學校 經濟學 博士

現 建國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 金 泰 完

漢陽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研究報告書 99-07

**經濟危機에 따른 貧困水準 및 所得不平等
變化와 政策方向**

The Change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Level during Economic Crisi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1999年 12月 日 印刷 값: 6,000원

1999年 12月 日 發行

著 者 朴 讚 用 外

發行人 鄭 敬 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企劃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9

ISBN 89-8187-196-5 93330